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학과 강 ○ 민

법률소비자연맹 2023년도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알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평소 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활동을 찾던 중 검색을 통해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에 이르기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느껴지는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하고 유익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봉사활동이 비대면 활동이지만 그 깊이는 대면에 못지않게 깊었습니다. 제가 했던 어떠한 종류의 활동들 보다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활동이 깊고 풍부한 까닭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오랜 기간 활동을 이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봉사활동에는 명확한 절차와 진행 방법이 존재하였고, 초보자라도 안내받은 절차만 차근차근히 따라가면 꽤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사소한 부분까지도 지침이 존재하였고 표본까지 존재하여 더욱 쉽게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해본 수많은 활동 중 이렇게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면서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유일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더욱 보람찼던 부분은 봉사활동의 결과물이 활용될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를 더욱 이롭게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보람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진행해 가면서 봉사하는 나 역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사회뿐만 아니라 봉사자의 사회적, 정치적, 시민적 의식을 향상하게 시켜 우리 사회를 더욱 이롭게 만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활동은 이번 학기 필수활동이었던 공약 이행률 조사였습니다.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던 선거 포스터에 생각보다 많은 수의 공약이 담겨있었고 대부분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순히 선거용 공약이라고 생각했던 공약들이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분류하면서 왜 이런 공약을 약속했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해당 후보가 진심으로 공약을 생각하는지 역시 어렵듯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계기로 이번 선거에서부터는 과거와 다르게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해당 공약을 약속했는지 생각하며 투표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생각이 들었던 봉사활동은 언론모니터링 활동입니다. 저는 10대 일간지의 한 주간의 사실 분석 활동을 하였고 해당 활동을 진행하면서 생각하고 배우게 되는 점이 많아서 두 번 활동을 진행하여 총 두 주간의 사실을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서 느낀 점은 일간지들의 한 가지 사실을 두고 수많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견해의 다양함과 그 견해의 진심은 일간지 모두 국가와 국민, 사회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일간지를 한 종류만 읽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과 성향이 일치하는 하나의 일간지를 구독하여 읽습니다. 많이 읽는다고

하여도 수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일간지를 동시에 읽으면서 논점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일은 생소하였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많은 일간지가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몇몇 일간지의 의견이 완전히 상반되게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견해는 단순히 2개로 나뉘면서 좌우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하게

다른 의견들이 스펙트럼 넓게 분포된 것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의 진심에는 결국 모두 똑같이 국가와 사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보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의 다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나와 철저하게 다른 생각에도 마음은 나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매우 추천할 만한 봉사활동입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를 이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봉사활동 중 나 자신이 올바른 민주적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느껴지는 봉사활동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겨울학기 친절하게 지도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담당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 ○ 섭

이번 겨울 법률소비자연맹 봉사 활동은 저의 두 번째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두 번째인 만큼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처음보단 훨씬 마음 편히 느껴졌고, 더 능숙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필수 활동도 지난번에 경험했을 때처럼 의정 모니터링,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조사했던 의원들과 다른 의원들을 조사하며 새로운 공약을 많이 접해서 흥미롭게 공약 조사를 했습니다. 평소 생활하며 딱히 불편함을 못느껴서 더 나올 공약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공약 조사를 하며 공약을 보니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실현된다면 편리해질 다양한 공약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 조사했던 국회의원들과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조사했는데, 공약에 있어 전체적인 느낌이 확실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정당에 따라 공약들도 발전과 성장에 중점을 둔 분들과 복지에 중점을 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었고, 공약과 실제 행동간 일관성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어떤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활동하며 이렇게 많은 시민이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조사하며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면 국회의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고 정책 결정에 있어 더 신중하게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 간 경쟁과 협력을 촉진해 다른 국회의원보다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거나 공동으로 협력하여 공약을 이행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원)봉사 소감문
2023년도 겨울학기 소감문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번역 봉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어와 영어를 번역했는데, 두 번째인 만큼 번역 속도도 훨씬 빨라졌고 처음 할 때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줄었습니다. 번역 활동을 하며 타 국가의 법은 어떤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번역을 하며 몰랐던 단어나 문장을 사전으로 찾아보며 제 영어와 일본어 실력도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여름방학 때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 활동에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부 최 ○ 윤

저는 이번 2023년도 가을학기에 이어 겨울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에 참여한 최○윤입니다. 저는 법 관련 진로에 흥미가 생겨 가을학기 봉사를 신청하였다가,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욱 활동이 알차고 얻어가는 게 많았다는 생각에 이번 겨울학기 봉사 또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에서 우수 모니터링원으로 선정되어, 이번 학기 활동의 시작을 시상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국회 현장학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국회에 방문한 것은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이어서 아주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국회박물관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국회의 웅장한 분위기를 보면서 정치의 세계에 대한 흥미와 궁금증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사람이 제 코앞을 직접 지나다니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이 진행되면서 설렘은 가라앉고, 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느낌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의 첫 발자국을 좋은 기분으로 떼어나머지 활동도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다짐을 하며 현장학습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날씨는 흐렸지만, 국회의 건물과 주변 환경은 매우 아름다웠고 그 덕에 더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번 학기 필수였던 국회의원의 공약점검과 공약이행률 조사, 그리고 지난 학기에 이어 언론모니터링 활동 중 10대 일간지의 사설 분석을 하였는데 둘 모두 얻어가는 게 많은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국회의원이 별로 하는 게 많지 않은 직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학기에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이 하는 업무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한발짝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의 주 업무이자 근간인 공약에 대해 깊게 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국회의원이 거는 공약의 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맡은 두 의원은 각각 80개와 100개 이상의 세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나하나 대조해가며 해당 의원의 공약 중 철회한 것은 없는지, 추가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힘들면서도 재미있었습니다.

또 공약이행률을 확인하는 작업은 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각종 자료를 찾아서 근거를 붙이고 분류하는 작업은 낯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에 분명히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전임자마다 다르게 만들어 놓은 형식까지, 화가 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만큼 보고서를 완성한 후에는 더 뿌듯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두렵고 어렵지만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있었고 나 또한 해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어 소중한 경험입니다.

10대 일간지의 사설을 정리하는 일은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집에 텔레비전이 없다 보니 뉴스를 잘 안 보게 되는데 가을학기 봉사에서 이 봉사활동을 통해 현재의 사회의 화두와 세상 돌아가는 물정에 대해 잘 알게 되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입장과 성향이 다양한 신문사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확실히 지난번에 비해 형식을 갖춰두고 시작하니 일의 효율이 훨씬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활동과는 달리 정치성향과 입장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신문사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슈가 많았다는 점도 독특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치성향과 다른 신문사를 욕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았는데, 신문사도 쯤대가 있고 꼭 자신과 정치성향이 일치하는 정부나 정치인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처음이 어렵다고 지난번보다 훨씬 능숙해진 스스로를 돌아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봉사를 통해 실제의 지식을 얻은 것도 아주 소중하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용기와 낯선 일을 이겨내는 힘을 얻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기르는 것이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봉사활동에서 얻은 이 자산들로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박 ○ 민

저는 법조인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 우연한 계기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의 종류가 다양하고 무엇보다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기 전 여러 활동이 교내에서 환경법학회에서 활동하면서 가볍게 다루기만 하면서 느껴진 아쉬움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어가고 느낀 점을 위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판결문리서치와 공약점검 및 공약이행률 조사, 이슈분석을 신청하였습니다. 판결문리서치로 저는 불산 누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선택하였는데, 환경은 제 전공(지구시스템과학)과 연관이 깊으며 제가 법조인을 준비하는 목표와도 맞닿아 있어 관심이 가는 주제였습니다. 판결문리서치 작성은 대법원 판결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1심부터 읽어보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법조인의 이력과 관련 기사를 모두 분석하는 활동이었기에 조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판결이 이루어진 사건에 빠져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정의로운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대법원 판결이 국민들의 행동 지표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공약점검 및 공약이행률 조사는 제 인식을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언론은 보통 직무태만이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아 국민들의 인식은 대체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기 마지막에 공약이행률을 조사하게 되어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두 분의 국회의원 모두 수십 가지의 공약 중에서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공약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지키고, 지킨 공약으로 지역구의 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양상이 시간이 흐르면서 뚜렷해지는 모습이 신기하게도 보였습니다. 더불어 뉴스기사에서 근거를 찾는 활동에서 찾고자 하는 내용을 가진 뉴스 기사를 정확하게 찾는 능력도 기를 수 있어 더 즐거웠습니다.

제가 한 봉사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이슈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위협에 대한 보도경향 분석'을 주제로 6개월의 기간 동안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비교하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웠던 점은 한 가지 주제로 긴 기간을 파고들어 가니 해당 주제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주변 정세 전반의 지식이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은 거의 없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평소에 뉴스를 보고 '왜 갑자기 저런 일이 생길까'하던 의문은 그 주제에 관해 지식이 별로 없기에 느껴지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수많은 전조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규모가 작은 도발과 감시동향을 통해 분석하고 미래 예측이 발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주제를 파고들면서 지식의 향상으로 느낀 즐거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2023년도 겨울학기 봉사활동에 참가한 것은 저에게는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 소요된 활동이었지만 봉사라는 느낌보다는 유익한 시간이라는 생각만이 듭니다.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조사한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생활의 마지막에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김 ○ 은

법률소비자연맹의 2023년 겨울학기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이전에는 흐릿하게만 느껴지던 것들이 점차 분명하게 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정 모니터링,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직접 법정에 가고, 판결문을 읽고, 우리나라의 사회와 정치, 그리고 법이 어느 하나 독립적인 것이 없음을 느끼는 가운데 로스쿨을 준비하고 법조인에 대한 비전을 갖는 일에 있어서 비로소 제가 마땅히 맞춰야 할 곳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경험이 어디에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개인적으로는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이 실무적인 법적 지식을 얻고, 추상적이었던 직업관을 더욱 구체화 하게 되는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의정 모니터링

을 통해 두 국회의원의 지난 공약 이행률을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졌던 봉사 활동이었지만, 수많은 기사를 검색하고 해당 국회의원과 관련된 블로그나 카페의 글을 찾아보면서, 적어도 내가 조사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요즘의 이슈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와 법, 그리고 사회의 모든 현상들이 얼마나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수많은 공약이 결국 혼자서는 달성해 낼 수 없는 내용일 때가 많았고,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법의 도움을 받거나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는 크고 작은 보수 공사까지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던 그 시간이 상당히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내거는 공약은 그 약속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으며, 정치, 사회, 경제, 복지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 깨닫지 못할 만큼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것이 결국 법이라는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욱 법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과 같은 경우, 처음으로 실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방청하는 일 자체가 마음을 두근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법정에 들어가는 것조차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게 느껴질 만큼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재판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강했던 제가 7번의 방청을 마무리 할 때에는 언제든 다시 방청을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법정에 가는 일을 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변호사, 검사, 판사가 감당하고 있는 각자의 몫이 어찌면 결국 하나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승과 패로 재판의 결과를 가리기도 하지만, 사실 재판을 통해 우리 모두는 지은 죄만큼의 벌을 받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면서도 법조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제 스스로가 부끄럽기도 했고, 가득히 쌓여 있는 증거 자료들, 법정 내에서 진행되는 그 모든 절차들을 바라보고 보고서로 담아내면서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시선으로 재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감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는 제가 맡은 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했던 사례에 적용된 판례, 1심부터 3심까지의 모든 판결문 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봉사활동이었는데, 오랜 시간 끝에 보고서 하나를 완성했을 땐, 제 안에 아주 작은 양이라도 법 지식을 쌓아가고 그 지식을 정리해보는 경험을 갖는다는 것이 늘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는 일상에 찍히는 큰 느낌표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멀게만 느껴졌던 법률 용어가 피부 가까이 와 닿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양형 사유, 상고나 항심 등의 쉬운 단어부터 전문적인 법률 용어까지, 예전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단어들이 판결문 리서치 이후 법정에 가서 직접 재판을 방청할 때 사용되는 것을 보며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 ○ 수

제가 처음으로 법률연맹의 봉사 활동에 대해 알게 된 계기는 무척이나 단순했습니다. 법에 관심이 많고 언젠가 로스쿨에 진학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던 저는, 무작정 진로의 방향을 잡기보다는 그에 앞서 무언가 실질적으로 법과 관련한 활동을 한 번쯤은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에 '법 관련 봉사활동'이라는 키워드로 구글링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법률연맹을 포함해 다양한 기관들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대해 알 수 있었으나,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 법률연맹의 비대면 봉사활동은 제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었기에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률연맹 봉사 활동의 시작은 어쩌면 저의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즉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연맹의 봉사활동 OT를 통해, 저는 제가 참여하기로 한 이 활동을 통해 저 자신의 길을 찾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까지는 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얻게 될 경험과 배움들을 기대했다면, OT 이후부터는 제가 참여한 활동들로 인해 도움을 받게 될 이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OT 자료집을 꼼꼼하게 읽어본 뒤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번역 봉사, 판결문 리서치 등의 활동들을 신청했고, 퇴근 이후 시간을 활용하여 꾸준히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대법원 2023다220639], [대법원 2019두59349]의 두 사건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였는데, 그중 [대법원 2019두59349] 사건이 특히나 기억에 남습니다. 해당 사건은 소위 이야기하는 '워킹맘'의 부당하고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지난 몇 년 간 같은 환경에서 근무해온 여성이, 관리 업체가 바뀌면서 근로 계약을 새로 맺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추가된 수습 평가에서 근태 부분에 미달 점수를 받아 해고되었습니다. 이 근태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육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 여성의 해고가 정당하지 아닌지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어쩌면 제가 미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생각되었기에 굉장히 인상 깊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원고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었기에 그 판단 기준이 어렵고 복잡하다 느껴져 1, 2, 3심의 판결 내용이 전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출산과 여성의 근로 등 현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얹혀 있는 만큼, 저는 이 판결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주목할 만하다 생각했고, 예상한 바와 같이 해당 사건은 판결 이후 많은 기사가 나는 등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스 및 신문 기사들은 가독성 등을 위해 사건의 내용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었기에, 해당 자료들만을 통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느꼈습니다. 이에 제가 조사하고 정리한 자료를 통해 누군가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해당 사건에 대해 좀 더 심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점이 굉장히 뜻 깊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이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라면,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은 번역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영국 변호사의 행위 규범]의 번역을 맡았었는데, 영국의 변호사들에게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차이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제가 자신 있는 언어 능력을 이용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 봉사 활동의 필수 봉사 활동이었던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 또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부끄럽게도 이전까지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던 저는 국회의원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은 제게 제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는 통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공약을 내고 있으며, 어떤 기관과 협업체 공약을 실천하는지에서 시작해 진행 상황은 어디에 보고되어 시민들은 어디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새로 알게 된 점이 정말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역할과 사법감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학기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은 제게 여러 면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 목표를 중점으로 두고 시작한 봉사활동이었으나, 법률연맹에서 공유하는 가치관을 습득하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봉사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큰 기쁨과 단순한 학문적 탐구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봉사를 진행하는 내내 수많은 질문들에 친절히 답해주신 담당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뜻깊었던 첫 번째 법률연맹에서의 봉사 활동 소감을 마칩니다.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강 ○ 호

고등학생 시절, 일련의 경험을 계기로 법조인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등학생 때 처음 가지게 된 법조인이라는 장래희망을 대학생이 되어서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연합동아리와 같은 다양한 법 관련 활동들에 참여하고 해당 분야의 지식을 쌓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여한 활동들은 그 과정과 결과가 추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의 2023년 추계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당 봉사활동은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된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법률과 관련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해왔던 다른 활동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제가 수행한 내용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마음먹었고 2023년 동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 중 필수 봉사였던 제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에 참여하며 법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젊은 세대는 바쁘다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법과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여부 및 이행률을 조사하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바탕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의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무관심 속에서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다시 저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등한시하지 않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의 의무와 권리를 다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 법률 번역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미국 사법 및 절차법' 조문들을 번역하였습니다. 각 나라의 법률들은 정의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법률을 번역하고 참고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에 국한된 시선을 가지지 않고, 더 넓은 시각으로 진정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배울 건 배우고, 고수해야 할 건 유지해야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재능을 통해 조금이나마 법률 영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함 역시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를 통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만 하고 있던 내용들을 직접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었고, 번역봉사를 통해 새로운 생각과 시각을 가지는 동시에 법률 영역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은 활동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힘이 닿은 데까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더 의미 있고 보람찬 봉사활동에 이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뜻깊은 봉사활동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홍 ○ 진

이번 2023년 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제가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저에게 주는 동시에 저의 여러 역량을 점검하고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1월에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던 공약 점검 및 이행률 조사의 경우, 저와 제 주변의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면밀히 조사해보며, 제가 살고 있는, 혹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해당 국회의원이 출마한 선거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던 많은 공약들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실행된 공약이 많은 만큼, 실행되지 않은 공약들, 또한 언론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공약들이 매우 많은 것을 보며, 저 같은 유권자들이 제대로 공약을 보지 않고 투표하고, 또 투표한 이후에도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점차 현대 사회에서 선거에서 공약이 중요시 여겨지지 않고 인물, 정당 중심의 선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처럼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도를 조사하고 이 결과를 대중들에게 공유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이라

고 생각하였고, 그 일원으로서 열심히 조사에 참여한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공약 이행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언론들을 찾아보면, 같은 내용도 여러 언론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의 언론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안을 다루는 여러 언론들을 비교, 대조 해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중점적으로 참여한 봉사는 번역봉사였습니다. 번역봉사의 경우, 미국 사법 및 절차법에 대해서 번역을 하였는데, 사실 미국의 법조문의 정리체계가 한국과는 다른 점이 꽤 많아 어려운 점도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법에서는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꽤나 많아, 처음에는 한 장을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번역하기 전에 미국의 법조문 정리체계를 먼저 공부하고, 미국 법 조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shall'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논문 등을 찾아 읽어보면서 번역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미국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했던 번역을 차근차근 할 수 있게 되었고 점차 한 페이지 당 번역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번역봉사를 통해 미국법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낯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일과 관련된 배경지식, 추가 자료 등을 공부하는 것이 처음에는 귀찮을지 몰라도 일을 정확하게, 또한 결과적으로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대한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여러 단어와 관용구를 공부하고, 부드럽게 맥락을 계속 확인하는 연습을 하면서 전반적인 외국어 실력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번 번역봉사를 통해 배운 미국법에 관련된 내용을 한국법과 비교, 대조해보면서 각각의 정리체계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한국법의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연구해보고 싶다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번역봉사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저에게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보람만큼 저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소중한 활동들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의 여유가 부족하여 봉사활동의 여러 형태 중 두 가지 밖에 못했다는 점이었는데, 이 아쉬움을 24년도 봄 학기 봉사활동에 또 신청하는 것으로 해소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법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며 동시에 개인적 측면에서도 법, 그리고 그 이외에 저의 다양한 역량들을 기르며 훗날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법조인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이 ○ 지

대학생으로서 마지막으로 보낼 수 있는 겨울방학을

어떻게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여 찾아본 봉사활동 중 눈에 띄는 봉사활동을 찾게 되었다. 바로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이었다. 처음에 이 봉사활동을 했을 때, 나의 지인들은 어떻게, 왜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 했다. 왜냐하면 나는 법과는 관련이 없는 경영학부 학생이기도 했고, 평소 교육봉사를 주로 했지 이런 법률봉사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내가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대학 수업에서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법 관련 대외활동이나 봉사활동이 많지 않다보니 가장 유명한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신청하게 되었다. 나는 작년 1학기에 경영학부의 '국제조세론'이라는 수업에서 짧게나마 법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법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진로가 법과 관련이 없더라도 법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더욱 흥미를 느꼈다.

법학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법대의 '물권법'과 '계약법'을 수강하였다. 처음 접하게 되는 법학이라 학점이 걱정되기도 했고, 다른 학우들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신의칙'이나 판결문을 분석하는 방법도 나에게서는 모두 생소한 내용이었기에 평소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공부하였다. 실제로 흥미롭다고 느끼는 과목이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수업이 끝나고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된 것 같다. 이후 방학동안 법과 관련된 활동을 찾던 중 이전에 법률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한 동기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게 되었다. 법률연맹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독특하고 다양한 종류의 봉사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률연맹에서는 판결문리서치, 의정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 번역봉사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봉사활동이 학생 신분으로 쉽사리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꼭 해보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법 관련 대외활동의 경우, 법학사 조건 등이 있어 경영학부인 내가 시도해보지 못하는 활동들도 많았는데 법률연맹 봉사활동의 경우 다양한 전공의 학생에게 기회를 주기에 지원하게 되었다.

이번 2023년도 동계 봉사활동에서 내가 했던 활동은 의정모니터링, 번역봉사, 국회 행사도우미였다. 의정모니터링은 제21대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류하고,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행사도우미를 했을 때, 모니터링 평가를 토대로 국회의원에게 상장이 수여되는 것을 봤기에 공약 이행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기사들을 찾아보며 꼼꼼히 평가하고자 했다. 그랬던 만큼 실망감도 컸는데, 생각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다수의 내용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또한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평소 투표에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고, 후보자의 공약의 질을 보고 투표하는 것으로 국민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난 뒤 느꼈던 점은 그 공약이 지난 몇 년 간 다른 국회의원들이 내세웠던 공약은 아닌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공약으로 나왔으나 실패하지는 않았는지, 재임 의원이라면 과거 공약 이행률은 어땠는지 등을 더 중심으로 봐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좋은' 공약을 가진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보다는 '실행 가능한 좋은' 공약을 가진 후보자가 없는지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한다. 힘들긴 했으나 많은 교훈을 남겼던 활동이라 개인적으로 매학기 필수 활동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또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번역봉사 활동이었는데, 미국 사법 및 절차법을 번역하는 것이었다. 나는 평소에 영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실제로 영어 관련 직종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비법학사인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여 지원해봤다. 하지만 일상영어와 법률용어의 간극은 내가 각오했던 것보다 컸고, 번역기와 사전의 도움을 받더라도 보다 매끄럽게 번역하기 위해 두 번 세 번 검수해야 했기에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었다.

또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매끄럽게 되지 않는 단어는 따로 인터넷 서칭을 통해 어렵사리 찾아내야 했는데 미국법규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기에 애를 먹었던 활동이었다. 혹시라도 내가 오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 번역봉사 담당자님께 여러 번 문의도 드렸으나 그럴 때마다 잘 하고 있다고 응원해주셔서 더욱 자신감과 열정을 갖고 번역봉사에 임했다. 이 활동은 지난 학기에 들었던 '국제통상법' 과목에서 배웠던 미국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 좋았고, 어렵지만 영어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행사도우미 활동에 대해 얘기하자면, 나는 사회자 및 주최측 보조였는데 크게 하는 일이 없어서 옆에 서서 전반적인 행사 진행을 도왔다. 첫 활동이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법률연맹에 대한 신뢰가 더 가서 좋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좋았다. 다만, 국회의원 분들 중에서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행사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는데,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의원이니 더 신중하게 참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 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수료식과 상장 수여식도 진행되었는데 같은 학생이지만 열정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아 귀감이 되기도 했고 존경스럽기도 했다. 상장 수여식을 감명깊게 봐서 나도 꼭 상장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활동해야지 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 마무리에는 담당자분의 연설도 들을 수 있었고, 온라인 OT라서 아쉬웠던 점을 보충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좋은 경험을 했던 하루였다.

종합적으로 이번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던 봉사활동이라 좋았다. 단순히 봉사시간을 얻어가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고 나에게 오랫동안 여운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 봉사활동이 딱 그런 활동이라 좋았다. 그리고 나한테는 법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는데 나를 성공적으로 해낸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다양한 도전을 해볼 계기가 되었다. 다만,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학기보다 기간이 짧기도 했고, 나의 여건상 해보지 못했던 활동들이 많아 스스로에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여러 번 봉사활동을 하시

는 분들도 계신 거 같은데, 졸업하기 전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이번에 못했던 활동 위주로 도전해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졸업하기 전 나에게 소중하고 의미있는 경험을 하게 해준 법률연맹에게 너무 감사하다. 다른 봉사활동을 했을 때, 담당자 분들이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대충 일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 누군가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법률연맹의 경우에는 문의 처리도 빨랐고, 문의할 때마다 따뜻한 답변을 남겨 주셔서 힘들었던 활동에 많은 힘이 되었다.

○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노 ○ 린

이번으로 세 번째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입니다. 처음에는 겨울방학 동안의 시험 준비와 다른 대외활동을 고려하여 망설이기도 했지만 결국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야말로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배움의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으로는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조사, 번역 봉사,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조사의 경우, 올해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어느 수준만큼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투명하고 건강한 정치 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 있어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번역 봉사는 제 전공이 어문 계열 쪽인 덕에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법정 변호사 행위규범을 번역해 보았는데,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의 법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영어 공부도 되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과 비교분석도 해보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지난 봉사활동 때도 수차례 진행해 보았기에 훨씬 수월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도 판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판결문을 읽어보고, 용어 풀이와 함께 간단명료한 이해가 가능한 요약본 작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를 마지막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총 200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채웠습니다. 국내외의 사법제도 교육자료 조사 및 언론 보도자료 분석 등 아직 못해 본 활동들도 남아 있으므로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기에 다음 학기가 더욱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이 ○ 현

저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관심사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도전정신을 갖춘 사람입니다. 도전에서 그치지 않도록 그 도전에 따르는 경험을 온전히 저의 것으로 만들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3학년도 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 자원봉사자로 지원하였습니다. 법률연맹 사이트와 이전에 활동하셨던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블로그를 통해 법률연맹 자원봉사자가 되면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찾아보고 그 활동들을 할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겨울학기에

봉사활동을 해 보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생각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법정모니터링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실제로 법정에 가보고 오늘의 공판을 찾아보며 재판장에 처음 들어갔던 순간은 평생 잊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엄숙하고 저와는 거리가 있는 곳이라고 느껴졌던 법원과 재판장이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그 거리감이 좁혀질 수 있었으며, 분명 존재는 하지만 일상 속에서 직접적으로 포착할 일이 적었던 범죄 사건들이 생각보다 일상 속에 많이 스며들고 있으며 제 근처에도 언제나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며 경각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법원 내 모든 직원분들, 피고인 등을 관찰하며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공약이행을 조사를 하며 처음엔 이름도 모르고 당선된 줄도 몰랐던 완주군과 대구광역시의 국회의원 두 분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셨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그것들을 이행했는지 혹은 이행 중인지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이행률에 대해 판단해 보면서 국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리의 부담감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존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역봉사는 처음에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조금씩 번역을 하다 보니 갈피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고, 점점 미국 선거법에 대한 관심도 생겨 배경지식을 찾아 읽으며 번역을 하니 더 매끄러운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국어도 아닐뿐더러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부족할 수 있으나 자원봉사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것 같아 가장 뿌듯함이 많이 남는 봉사활동이 번역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번학기 자원봉사자로서 했던 활동들 모두 저에게 큰 의미로 남았으며 앞으로의 봉사활동 내지 진로활동에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태함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확고한 신념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로서는 법률연맹의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한 3개월 남짓한 시간들이 참 보람차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릴 수 있었던 겨울방학이지만 여러 활동들을 해보며 마음의 양식과 봉사정신 그리고 법률적 지식 모두 겸비할 수 있었기에 더욱 더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다음 학기에도 법률연맹의 자원봉사자로서 새로운 분야의 봉사활동에도 도전해보며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할 수 있는 추진력과 그것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성실함을 갖추고 싶습니다. 법조인의 꿈을 갖게 된 지금, 저는 도전정신과 성실함을 더 개발하여 작은 역할이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의 긍정적인 영향력 그 일부가 되어 우리 사회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에 자원봉사자로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맹 ○ 환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된지 벌써

세 학기째가 되었습니다. 처음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어 2022년 가을학기에 활동을 진행했을 때에는 '처음'이라는 명분 하에 실수하거나 활동이 어려워도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자는 정신으로 활동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험도 풍부해졌기 때문에 2023년 겨울학기에서의 활동은 제가 경험 삼아 해볼 활동들이 아닌, 저 자신을 포함한 사회에 중요한 활동들을 진행해보고 싶었습니다.

작년에는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한 국회현장학습과 작년 겨울학기에 처음 접해보고 큰 울림을 느낄 수 있었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4년에 한 번씩만 오는 기회인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막막함이 제 눈앞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히 활동 방식을 익혀나가고 의원들의 활동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활동이 점점 익숙해졌고, 비판적 사고까지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김선교 의원과 동두천시 연천군 김성원 의원의 공약 이행을 조사를 담당하였는데, 의원들이 공약을 어떤 방식으로 내걸고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일일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그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시민과 지역구를 단순한 도구로만 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던 정치와 사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과거 제 불찰에 대해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당선 이전부터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해당 지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 혜택 등을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기에 의원으로 공천과 당선의 정당성이 부여되고,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의원들은 모두 당선 전부터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당협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서 시민들과 대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들어주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공약으로 내건 대부분의 공약을 이행했거나 진행 중에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도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지만, 처음으로 진행해본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조사는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공약 이행을 조사는 4.10 총선이 끝난 날로부터 3~4년 후겠지만 가능하다면 한 번 더 해당 활동을 해보고 싶을 만큼 의미 있고 재밌었습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 ○ 경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마치면 벌써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한 지 일 년이 됩니다. 처음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툰 점도 많았으나 지난봄부터 시작해 어느덧 한 해 동안 총 4학기에 걸쳐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을 무사히 마쳤다는 점에서 안도감이 듭니다.

이번 학기에는 특히 국정감사 평가회 및 국민복합시상식이 열려서 국정감사모니터링 위원 위촉식에 참여할 겸 행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번 학기에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보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하면서 활동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모니터링 결과물을 바탕으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수상하는 것을 보면서 활동 내용이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하여 법정모니터링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재판에 임하는 변호사들을 보면서 변호사의 역량과 직업윤리의식이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면에 형사사건의 경우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최후변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 년 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에 주력한 재판도 있었고, 소송 과정에서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지 분쟁이 벌어진 재판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법적 분쟁과 소송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뜻 깊었으나, 재판 변론 기일이 많이 분리되어 있어 소송 전 과정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메일로 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신 법률연맹 담당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조 ○ 재

진로를 법조인으로 결정하고 법에 관련한 활동을 탐색해보았습니다. 법학 전공이 아니어서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법조인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법 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법률소비자연맹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나름의 사명감도 생겼습니다. 국가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공동체 전원 혹은 대다수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의정모니터링 활동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국회의원의 활동이라고 하면 조금 멀고 어려운 활동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공약의 세부 사항에는 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잘 이행되는지 감시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핵심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을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겨울학기 동안 6명의의원을 조사하였습니다. 아마어마하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조사를 하면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자세히 적고, 또 이행 중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나름의 보람도 느꼈습니다. 해당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국회의원

에 대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이미지 역시 갖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조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역구의 다양한 부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공약을 정리본 혹은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 확인했는데 전체 공약집은 상당히 방대하면서도 세세하다는 것 역시 새롭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부분 역시 존재했습니다.

먼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제 첫 결심과는 달리 공약이행을 조사 이외의 봉사활동을 해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과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험해보지 못해서 다음 기회엔 꼭 해보고 싶습니다. 또, 공약 이행을 조사 역시 5차 조사여서 전임자 분들이 해둔 여러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더블 체크 형식에 그쳤다면 다음엔 제가 공약을 직접 조사해서 의정 모니터링 활동에 새로이 기여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소감문을 적으며 제 겨울학기를 돌아보니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다음 봉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번봉사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아쉬움 없는 봉사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또, 이번 봉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법률 소비자 연맹의 필요성과 활동의 사명감을 기억하면서 더 좋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준비자 더 나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번에도 꼭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번학기 동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 ○ 현

우선 본격적으로 소감을 풀어놓기에 앞서, 법률소비자연맹의 여러 성과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이음새 역할을 하시는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전화통화와 메일 상에서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주시는 태도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지향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직원분들을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저 또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이러한 뜻을 배우고 실생활에 적용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 겨울학기동안 행한 봉사활동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 조사, 번역봉사입니다.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의 경우 전공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활동이 용이할 것으로 보였으나, 국회의원 1인의 수많은 공약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꼼꼼하게 조사를 완료한 뒤의 성취감 또한 컸던 것 같습니다. 또한 조사를 진행하며 미처 몰랐던 실제 지역구 정치의 공약 관련 사항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또 유권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역봉사는 영국법정번호사행위규범, 미국 사법 및 절차법 두 가지 법령을 각각 15페이지, 9페이지 번역하였습니다. 영어에는 나름 자신이 있던 터라 자신 있게 신청했었으나, 각 나라의 배경과 법률용어, 규범을 인지하고 이를 번역으로 녹여내는 일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노력한 결과 요령이 생겼고, 이를 통해 점차 속도가 붙은 덕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법령번역을 통해 두 국가의 법령이 각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헌법과 같은 최상위 법이 아닌 일반 법령에도 앞서 언급한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 법령번역에 매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다가 추후 진로를 법조인으로 정했고,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법조인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첫 대외활동이었습니다. 늦게 목표를 설정한 만큼 같은 목표를 가진 다른 분들보다 확신이 없었는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법조인이라는 미래 목표를 확실하게 결심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조인이 되고 싶은 주변인이나, 저처럼 진로를 고민하는 주변인들에게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꼭 추천해주고픈 대외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최 ○ 한

세 달에 걸친 법률소비자연맹(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 겨울학기 봉사활동이 완료되었다. 사실, 지난 가을학기 봉사활동에도 참가 신청을 했지만 학업과 대외활동으로 너무 지쳐서 필수 이행 활동조차 완료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는 원래 계획했던 법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모두 완수할 수 있어 보람찼다. 또한, 평소 관심은 가졌지만 실제로 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던 국회의원 공약 이행 검수도 겨울학기 필수 활동으로 하게 되어 만족스러웠다.

이전까지 봉사라고 한다면 몸으로 하는 활동들만을 떠올리고, 그러한 신체적 봉사 활동에만 참가해왔다. 신체적인 봉사활동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이기도 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가지 않는다면 무슨 기여가 될지 회의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월 헌정회관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평가회 및 국민복상 시상식"에 정말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 내가 열심히 검색하고 정리한 자료들이 단지 몇 장의 종이기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눈이 되어 대의 권력에 감시와 견제의 신호를 보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를 할 때에도, 내가 작성한 보고서들이 다른 봉사자들의 모니터링과 합쳐져 사법 권력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특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은 봉사자가 마음의 만족을 얻고 일방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쏟는 기존의 봉사 방식과 달라서 흥미로웠다. 이곳에서 봉사자는 마음의 만족뿐만 아니라 진로에도 실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로서 공헌할 수 있다. 판결문 리서치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자발적으로 챙겨 보기 어려운 판결문을 봉사활동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꾸준히 읽어감으로써 관심 있는 법 분야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슨 법리가 적용되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봉사자 자신에게도 직접 도움이 되는 법률소비자연맹 내 봉사활동은 봉사자와 사회 간 유익의 선순환을 이루는 최적의 봉사활동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울러, 다음 봄학기 봉사활동에도 함께하여 지속적으로 사법감시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신 ○ 은

의미 없이 시간만 채우는 봉사활동에 회의감을 느껴 활동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다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단에 대해 알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입법 및 사법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대의 전문 시민 단체로서 법과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독려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다. 자원봉사단체 참여에 신청하기 앞서 주요 활동들을 알아보면서 내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법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법정에 참여해본 적도 없었고 제대로 판례분석을 해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움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의미 있는 활동을 해낸다면 끝에는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오리엔테이션 회신문을 작성하면서는 드디어 봉사단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면서 책임감도 생겼다.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고 법정 모니터링에 참여하였고 국정감사 활동을 진행하고 판례를 분석 했으며 다른 나라의 법조문을 해석했다. 처음에는 예상했던 대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모두 익숙하지 않은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활동들인 만큼 하나씩 해나갈수록 관련된 지식이 쌓이는 기분이 들었다. 또한 봉사단체 관계자 분들의 친절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모르는 것들은 배워가며 어려움이 생겨도 해결해 갈 수 있었다. 30시간이 조금 넘는 봉사 시간을 채우며 얻어가는 것은 그 이상의 값진 경험들이었다.

특히 국정감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국정감사 활동은 국회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의정활동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평가한다. 그렇게 평가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생각보다 정확한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웠고 각 의원이 임기동안 진행한 활동이 생각보다 몹시 방대했기 때문에 그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전까지 수차례 투표를 해왔음에도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보는 법도 잘 몰랐고 그들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스스로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

그동안 국회의 정치활동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3개월의 봉사활동은 내게 잊지 못 할 경험이 되었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봉사활동에도 참여해보고 싶다. 그때는 이번에 쌓은 경험으로 더 수월하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한 ○ 원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기점으로 2년 간, 총 4회의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과 겨울방학을 빼놓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느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이 방학의 당연한 일정 중 하나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칫하면 의미 없이 흘러보낼 수 있는 방학이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이번 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은 공약이행률 조사였습니다. 공약이행률 조사는 방학 때마다 했던 봉사활동 중 하나인데, 이번에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정치나 선거에 한 발자국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공약이행률 조사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방 선거의 후보자들과는 다르게 입법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공약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현실성과 예산까지 확인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기다리며,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며 어떤 공약이 현실성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게 된 계기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학기 중에 배운 법학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찾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 과목을 다시 복습하고,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2 학기에 수강하였던 보험법이나 노동법 과목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판례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 노인과 관련된 법학에 관심이 많아, 따로 상속과 관련된 판례들을 확인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봉사활동에 이어,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유해인도라는 독특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평소 접하기 어려운 판례만큼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유해인도 관련 판례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판례가 단순히 법적 영역에서의 해결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해인도 판례에서 해당 판례로 인하여 법정이 자녀나 배우자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자격 없음을 토로하는 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명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판결은 법적 영역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사적 영역까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해당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법조인이라는 꿈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 역시 필요하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의 삶과 조금 더 맞닿은 내용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식과 마음 모두 가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 ○ 재

2023년 가을학기에 이어 두 번째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법조인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능동적으로 사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직간접적으

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판결문리서치 봉사활동이 인상적인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제시해주신 양식을 토대로 대법원 판례를 1심에서부터 훑어보니, 판례가 마냥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례 속에서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법리들 속에서 너무나도 작은 사람 한 명이 서 있었고,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정의의 중요성을 느낀 순간입니다. 법은 심판을 내리는 날카로운 칼이 아닌, 사람들의 갈등을 공정하게 풀어내 그들을 하나의 사회로 묶는 실과 같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에서 살펴본 정직 처분에 대한 판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회사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되어 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한 판례였습니다. 근로자가 노조조합장이기에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2심의 판결을 대법원은 부정했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특수한 지위에 있는지를 떠나 모든 근로자는 사망이나 부상, 질병의 위험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 대법원의 요지였습니다.

이 판례에서 '권리'의 본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권리는 행사의 자격만 주어진다면 마땅히, 즉 선형적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여러 사후적 제약이 붙고 이에 따라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권리는 온전히 행사될 수 없을 것입니다. 권리는 그 자체로 보장받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대법원의 선언은 권리 그 자체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현 세대에 경종을 울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번학기에 새롭게 참여한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정당 중심적인 투표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공약이나 정책이 아닌 이슈와 이데올로기를 보며 투표하게 되고, 이에 각 정당들도 정책 없는 정치를 내세우는 일이 잦습니다. 사실 한명의 유권자로서 선거철마다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일이 마냥 쉽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를 통해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인 누구인지 구체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 서강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김 ○ 린

이번 2023학년도 겨울학기 봉사활동은 저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의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햇수로 3년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느덧 마지막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가득합니다.

특히 이번 겨울학기에는 시작과 함께 좋은 기회로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정기적 필수 활동으로서

국회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공식 오프라인 행사에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 가보니, 실제로 제가 모니터링했던 다양한 국회의원들의 발언들을 평가한 것이 공식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해외의 다양한 법률을 번역하는 번역 봉사활동에도 햇수로 3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루이지애나주, 펜실베이니아 주 등 미국 각주의 헌법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였는데,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에서는 미국의 사법 및 절차법의 번역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많은 분량을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미국의 사법을 오랜 시간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법률을 통해 미국의 행정절차나 입법절차, 사법제도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번 겨울학기에도 의정모니터링, 국정감사와 관련된 오프라인 행사, 그리고 번역 봉사활동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봄학기 봉사활동에도 성실하게 참여하여 저의 작은 봉사활동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익적인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품어봅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세대학교 졸업 정 ○ 림

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대한 총평을 내리자면,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참여한 것이 후회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보람 넘치는 활동이라고 하고 싶다. 직장인으로서 퇴근 후와 주말 등 개인 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지만, 봉사활동을 하며 사법 과정에 대한 막연한 관심을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었고, 직접 리서치를 하며 법률용어 및 법리해석 등에도 비교적 익숙해질 수 있어 얻은 것이 더 크다고 느낀다.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의정모니터링의 경우, 평소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나로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며 리서치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 활동이기도 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과 각 공약의 실제 이행 현황을 하나하나 조사해보며 얼마나 많은 공약들이 국민들이 모르는 새에 지켜지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의 공약이 실제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 수 있어 배운 점이 많았다.

선택 활동으로는 외국 법률 번역 봉사과 판결문 리서치를 선택했다. 특기인 언어 능력을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선택한 번역 봉사는 성문화된 법이 실제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특히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표현으로 각 조항이 매우 세밀하게 작성되어 있어, 향후 미국 법률을 공부하게 된다면 이 경험이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또한, 여러 개의 주로 나뉘어져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떠올리며 각 조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 또한 의미 있었다.

이번 학기에 가장 큰 배움을 얻은 활동은 판결문 리

서치였다. 지난 학기 봉사자들의 후기 및 봉사활동 안내 등에서 판결문 리서치는 생각보다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언급이 많아, 시작하기 전에는 다소 부담이 크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흥미로워 보였던 활동 중심으로 꼼꼼하게 판결문 전문을 읽어가며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접근하자, 내용 자체는 길더라도 오히려 재판의 흐름과 판사들의 판결 논리에 대해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배운 점이 많았다. 특히 각 사건이 항소와 상고를 거쳐 1심부터 3심까지 총 3차례의 판결을 거친 만큼, 각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과 그에 대한 법리해석 및 논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매우 흥미로웠다.

리서치를 진행한 2건 중 1건은 민사 사건, 1건은 형사 사건을 다루었는데, 민사 사건의 경우 원심의 잘못된 해석을 상급심에서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했던 부분, 그리고 원고들에게 피고가 지급할 피해 액수를 계산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

형사 사건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판결 내용이 단순히 해당 사건의 종결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후 대한민국 아동 교육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판결문에 명시한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이렇듯 판결 전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며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얻은 것이 많아, 이번 학기 활동 중 가장 재미있고 보람 넘치는 활동이었다고 했다고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전반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활동이었으나, 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한 것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던 매우 유익한 활동이라고 느꼈다. 다음 학기에도 활동할 기회가 있다면, 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 리서치를 추가로 수행해보고 싶다. 또, 글로 정리된 판결문과 실제로 공방이 오고가는 재판을 방청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일 것이라고 느껴져 법정모니터링에도 도전해보고 싶다.

○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졸업 김 ○ 현

지난 가을학기의 봉사활동에 이어, 이번 겨울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활동은 나에게 또 다시 성장하고 새로운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겨울을 지나는 3개월간의 봉사활동은 나에게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주었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에 있어 나의 열정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이번 학기에 내가 진행한 봉사는 국회 행사 도우미, 의정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 봉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나는 1월 3일에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행사 안내 도우미로서 봉사하게 되었다. 행사장입구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및 관련인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행사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답을 했다.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저번 학기 봉사에서 진행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 위원 위촉장을 받고 법률소비자연맹 봉사 오티에 참석했다.

여러 활동을 동시에 진행 하며 혼잡한 와중에 내가 봉사하는 단체의 국회에서의 영향력에 감탄했다. 내가 그 날 참여한 행사는 지난 국정감사 때 진행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였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민간단체임에도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고 안정적으로 국회 및 사회를 모니터링해 왔고, 그 결과로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춘 것이리라 생각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회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국가를 바꿔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진행한 봉사활동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하는 활동이었다. 임기를 마쳐가는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은 나에게 있어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 나는 의정 활동이 우리 사회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더욱 깊고 단단할 수 있었다.

이번 겨울학기 마지막 봉사활동은 언론 모니터링이었다. 해당 활동에서 나는 대한민국 10대 주요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의 2024년 2월 다섯째 주 사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평소에도 뉴스나 신문 기사를 매일 보는 편이지만 언론사별 기사를 전부 살펴볼 일은 거의 없었다.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기사를 보는 게 어색했지만 즐거웠고, 예상보다 방대한 양에 놀랐지만 진지하게 임했다. 이렇게 여러 일간지의 다양한 시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언론의 다면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나의 관심과 이해를 한층 더 넓힐 수 있었다.

겨울학기 동안의 이러한 봉사활동은 나에게 사회적 이슈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개인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 나는 이 경험들을 통해 얻은 지식과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에도 사회적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 두 학기 안의 봉사활동은 나에게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에 계속해서 힘을 쓸 것이다.

○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정 ○ 원

이제 교양수업을 들으며 학교를 다니던 1학년 시기를 지나, 어느덧 전공 과목들을 들어야 하는 2학년이 되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는만큼 전공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 사전적인 지식들을 봉사활동을 통해 얻어가고 싶었고, 관심분야이기도 한만큼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겨울학기 봉사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번 가을학기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여 국정감사 모니터링 우수 위원으로 선정되었던 것도 저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학기에는 저번 가을학기 때 진행하였던 국정감사 우수모니터상 수여식 및 국정감사 평가회, 그리고 관련 현장학습 참여하였습니다. 단순히 위촉장과 우수상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음은 물론 이후에 있을 겨울학기의 필수활동인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가 어떤 식으로 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의 소감을 듣는 과정에서 다음 활동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단서도 얻을 수 있어 특히나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역시 저번과 마찬가지로 번역 봉사과 판결문 리서치 봉사에 주력을 다했습니다. 미국의 한 주의 헌법을 번역했던 저번 학기와 달리, 이번에는 미국 선거법에 대한 내용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은 그 특성상 비교적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어 그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륙법을 차용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법은 영미법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공통적인 특정 대상을 가진 법이라는 점 때문인지 비교적 번역이 수월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구체적인 조항은 물론 전체적인 법의 방향성은 사뭇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그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영미법적 특성에서 차용하여 우리나라 선거법을 보완 할만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활동은 판결문리서치활동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법률 분야에 관심이 있더라도, '적극' '소극' 혹은 '원심판결 파기환송' 등의 법률적 용어 이해가 어려워 판결문을 접할 기회가 있더라도 잘 읽어보지 않았고, 판결문을 찾는 방법이나 판결번호를 읽는 방법 등을 알지 못해 직접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어떤 식으로 판결문을 찾을 수 있는지, 또 판결문에서의 쟁점 파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확한 방법을 배워갈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학교에서 수강하는 법 교양에서의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관심분야인 '지식재산권법' 관련 판결문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는데, 무형의 재산이 가지는 불확정성이 쟁점 파악 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다각도로 쟁점을 찾아 판결문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서치 페이퍼 마지막 장에 있는 '다른 판결을 내릴 것인지, 내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에 매번 생각해보면서 다른 관점에서의 판결을 생각해보고, 판결이란 적절하고 정확한 법리 이해에 달린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학기의 필수 활동은 앞서 언급했듯이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이었는데, 이 역시 뜻깊었습니다. 가을학기에도 똑같이 느꼈지만, 성인이 되었음에도 정치란 마냥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어 쉽게 국민이 가진 권리를 다하기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참여를 넘어 정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현 정치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 재고해볼 수 있어 매 학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필수 활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매번 참여할 때마다 뜻깊은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 인만큼, 최대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봉사를 하며 더욱더 사법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으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강 ○ 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중한 경험

이번 법률 소비자 연맹의 겨울 학기 필수 봉사활동

의 내용은 의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한 결과물을 모니터링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분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하였는데 대부분의 공약들이 많이 지켜져서 결과가 있었고 지역구의 일부 지역 공약들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대변인이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의정 모니터링은 국회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활동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3년 겨울학기로는 법률소비자 연맹 봉사를 1년 동안 하였습니다. 1년의 봉사 활동을 하면서 3번의 의정 모니터링을 하였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관심이 국회의원과 지역구 의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국민의 관심이 더 좋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수행한 봉사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몇 가지 판결문 중 특히 기억나는 판결문은 정직 처분 무효 확인 등에 대한 판결입니다.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인데 1심과 2심에서는 근로자의 입장보다는 공장의 입장을 더 대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로자의 특별한 쟁의가 아니라면 안전사고에 대비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3심에서 그러한 판단이 받아들여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시 판단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어서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몇 개의 판례를 통해 판결문 리서치를 하다보면 법은 우리와 참 가까운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반 시민은 법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사례들을 보면 개인이 살아가면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사실 관계가 정리되는지, 쟁점은 어떻게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루어지는지, 판단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지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3심까지 모든 재판내용이 나와 있는 판례는 민사 재판이 많아서 주로 민사 재판을 리서치하였는데 다음 기회에는 형사 재판도 리서치해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칠 때 더욱 성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야하기 때문에 의견을 합치는데 시간도 걸리고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절차를 없앤다면 민주주의는 절대 유지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정신없지만 민주주의가 지금까지의 인류사회에서 자유를 위한 가장 적합한 제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것은 총 100년이 되지 않아 혼란스럽지만 가장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민

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민주주의를 위한 저의 작은 봉사활동이 잘 마무리되어 정말 뿌듯하고 올해 총선에서 민주주의가 또 어떻게 실현되고 발전하는지 지켜보고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좋은 기회를 가지고 민주 사회 시민으로서 참여하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권 ○ 혜

저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2024년 겨울학기 동안언론 모니터링, 법원 모니터링, 법률 번역, 그리고 공약 이행을 조사 세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깊이 있는 학습과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특히 언론의 역할, 법의 중요성,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언어의 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인 언론 모니터링은 각기 다른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뉴스의 우선 순위 등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다양성과 각 언론사의 편향성,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어떻게 대중의 인식과 생각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인 법원 모니터링은 직접 법정에 참석하여 재판 과정을 관찰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법의 절차와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에 대해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또한, 법이 어떻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률에 대한 추상적인 이해를 넘어, 실제 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감하게끔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 법률을 번역하는 봉사활동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법적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문화의 법 체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법률 용어의 정확한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법적 문서에서의 정확한 표현이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법률을 비교하며, 각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해하는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봉사 활동들과 더불어, 저는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활동은 정치인들이 선거 기간 동안 내세운 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공약률 조사 활동을 통해, 선거 공약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에게도 그들의 약속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하고, 선거 공약을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약속과 그 실현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과정

에서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고된 투명성과 접근성은 유권자들이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활동은 제게정치적 과정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분석적 접근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으며,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언론, 법, 정보,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보다 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학습과 진로 선택에 있어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확고해졌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권 ○ 현

1.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 소감 (2회)

1) 국회의원 백종헌 공약이행률 조사

: 백종헌 국회의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회의원으로 부산에서 어떤 공약을 이행하려 하는지에 따라 현재 부산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엿볼 수 있어서 좋은 공부였습니다. 평소에는 국회의원의 공약을 읽어보기만 하고 이행이 되었는지 여부는 꼼꼼하게 확인해 본 적이 없었는데, 공약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것만큼 공약이행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국회의원 백혜련 공약이행률 조사

: 백혜련 국회의원은 활동시기가 길고 공약이 많아 조사하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선거 공보를 빼곡히 채운 공약들을 볼 때마다 공약이 다 이행되는지 여부가 궁금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사할 수 있어서 의미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약이 많아 공약 이행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공약이 구체적이라서 오히려 이행이 잘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률연맹 봉사활동자들의 꾸준한 공약이행률 조사 봉사가 도움이 되어 구체적이고 실행력 높은 공약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사법감시 판례문 리서치 (5회)

1) 대법 2022다20754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사건

위 사건은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155조에 관한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지는 동일 세대가 아닌 독립된 세대인 경우,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인 2주택 이상이 되어 주택소유가 카운트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법리오해 부분인데, 이렇게 법률이 만들어진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2) 대법 2023두53799 징계무효확인 소 사건

위 사건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학교 측에서 내린 징계에 대해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인 소 이익' 존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확인의 소 이익은 과거의 법률관계에는 적

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혹은 추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학교 측에서 학생에게 내린 징계는 정학2일로 높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는 점, 해당 징계가 학적부에 기록이 되어 학생의 미래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 등에 미루어 보아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판례였습니다.

3) 대법 2020도10180 저작권법 위반 사건

위 사건은 페이스북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수정하여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인 양 올린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판례문 리서치를 하며 좋았던 점은 판례문 리서치 양식 중 기사를 찾아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위 사건으로 sns에 타인의 글을 무단 복제하여 게시글을 작성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슈였다는 것도 알게되었으며 이러한 선례들로 인해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경우가 감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대법 2022다280283 손해배상 사건

이 사건은 용산역에 설치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잘못된 사진(일본인의 사진)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보도자료를 낸 것이 원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위 판례에서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때 위법성이 없다고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상황에 따라 증명책임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 등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5) 대법 2020다301308 장애인차별행위금지 사건

위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한정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이었고 국가가 피고였어서 다른 판례보다 당사자 부분이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판례여서 리서치를 흥미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우체국)이 다른 금융기관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지적장애인들의 금융거래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7조 및 제3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3심 모두 우체국의 규정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주었습니다. 부당한 차별을 용인하지 않고 정당한 재판으로 목소리를 내는 원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홍익대학교 법학과 권 ○ 민

2023년 겨울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하여 비록 3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어떤 활동보다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참여한 활동으로는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법정모니터링, 국회헌장학습,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을 조사, 10대일간지 언론모니터링 활동이 있습니다. 우선 봉사활동을 신청하고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은 국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건의 재판을 모니터링 활동으로 일반 법정모니

터링과는 차별점을 보였습니다. 모니터링하게 된 사건은 저작권(미국수능SAT)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강제수사로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자체를 이 기회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해당 재판이 10여년만의 공판이었던 만큼 큰 의미가 있었으며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10여년간 회복되지 못한 것이 씁쓸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재판에서 법원 인사이드로 재판부가 변경될 예정이라 변호인과 피의자는 그들의 입장을 주장하지도 못한 채 재판이 연기되어 여러모로 많은 아쉬움이 남은 활동이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으로는 2건의 형사사건 재판을 방청하였는데 처음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할 때는 긴장되어 관심 갖지 못했던 법정의 분위기, 판사의 태도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라는 장소 자체가 딱딱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풍기기에 들어갈 때 두렵기도 했으나 막상 법정에 들어가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 재판부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는 저에게 쉽지 않은 활동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기에 관련 기사를 찾고 읽는 데에도 시간이 꽤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활동이었던 것이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내건 공약들은 무엇이고 그 공약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지, 공약이행률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는지 등을 직접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꼭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제가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모니터링 활동으로 10대 일간지 사설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은 주요 언론사의 논조를 비교분석하고 관점의 차이가 어떻게 언론에 투영되는지 살펴보는 것인데 이 또한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10대 일간지의 한 주간 사설을 모두 스크랩하여 각 이슈에 대한 언론사별 비교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언론사별 정치 성향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정치 성향에 따라 특정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어 흥미로웠고 언론의 책임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독자에게 필요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했던 활동 하나하나가 법률소비자연맹을 알지 못했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으리라 생각되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란 사실을 다시금 인지하고 시민주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준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을 대학교 졸업 직전에 알게 된 점이 아쉽지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며 다음 학기에도 신청하여 값진 경험 많이 쌓아가고 싶습니다.

○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 ○ 빈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내가 변호사라면', '내가 검사라면', '내가 판사라면'이라는 상상을 해보며 지금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런 고민의 시간을 통해 제가 꿈꾸던 법조인이라는 직점이 어찌면 본인이 가장 초라하고 형편없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동행해 줄 수 있는 직업, 누군가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직업이라 느껴졌습니다. 길지 않은 봉사활동의 시간 동안 어느 순간에는 문득 내가 만약 법조인이 된다면 진정 그 날에도 지금의 마음과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경험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2023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겨울학기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겨울 학기봉사를 통해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 조사와 법정모니터링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처음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미래 진학 목표인 로스쿨을 목표로 하기 위한 하나의 스펙 및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신청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올라온 저학년인 제가 법과 관련하여 봉사를 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활동을 통해 한 나라의 4년간 국회의원 활동을 해 왔던 의원들의 공약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드라마나 영화 등 시청각물을 통해 봐왔던 재판 속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재판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잘 이끌어 나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던 봉사의 기회는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 조사는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과거 어떤 공약을 내세우며 선거에 임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우리의 손으로 뽑은 후보자들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공약을 내세운 것은 아닌지, 실천 가능한 공약이었는지를 비판하고 점검하며 정치 및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객관적으로 조사되고 분석된 결과가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정 모니터링은 로스쿨을 준비하는 저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재판을 하는 것을 방청한 것이 이번 기회가 처음이었는데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특히, 한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이 여럿일 경우 피고인이 서로 합의하여 더욱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판사의 역할은 판정 결과만을 통보한다고 생각했던 저의 과거 모습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진로에 한 걸음 더 가까워 질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소비자연맹은 여러 봉사를 통해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에게 하나의 의미를 제공하는 뜻깊은 단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만약 관심이 크게 없더라도 사회에 자신이 보탬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분이 계시다면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를 꼭 추천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 ○ 현

코로나 시기를 겪고 군 제대 후 2학년으로 복학하여 진로 탐색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마침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이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본 전공인 국문과와 관련이 없는 법조계로의 진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조사해보고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았을 때, 학교에서 법학 수업을 듣는 것 이외에 공모전, 봉사활동 등이 있었다.

그렇게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도중, 운 좋게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률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법과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방학 기간 동안 활동하려고 마음먹게 되었다.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법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게 다가왔다. 그렇게 법조계에 막연히 환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서 법 분야의 실재에 다가서게 되었다.

해당 연맹의 첫 활동인 OT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첫 활동은 1월 3일에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평가회 및 국민복합상 시상식 참여였다.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NGO에서 국회의원을 초청하고 그들이 참석하여 시상식이 개최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하려 노력하는 만큼 해당 연맹의 활동이 유의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상식 이후 봉사활동 중 필수 항목이었던 의정 모니터링을 선택하였고, 이외의 항목 중에서는 판결문 리서치, 법률 번역,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신청했다. 첫 번째 필수 활동인 의정 모니터링은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솔직하게 활동 이전에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크게 관심이 없었으나, 해당 활동을 통해 진지하게 접근하게 되었다. 임기 동안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에 있어서 국회의원들마다 유의미한 활동, 미흡한 활동들도 있었으나, 그들의 활동들로 각 지역의 발전이 가시화되어 놀라웠다. 아쉬운 점은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조사할 수밖에 없으며 조사자들에게 크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조사에서 아쉬운 점들이 발견되었지만, 앞으로도 조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 활동해야 한다고 느꼈다.

두 번째 활동인 판결문 리서치는 하나의 판결문을 선정해 해당 사건의 1심부터 최종심까지의 사건의 사실관계, 사건에 참석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정보 등을 정리하는 활동이다. 해당 활동은 학교에서 배웠던 법학 지식들을 활용하여 실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알게 되었다. 하나의 판결을 두고 관련인, 사건, 기사 등을 며칠 시간을 들여 조사하다보니 해당 사건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판결문을 선택하고 법률의 적용에 대해 고심한 것이기에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번 활동에서 가장 긴 시간 투자한 법률 번역은 타 국가의 문화와 국가 체계 등을 기본적으로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법률을 그들의 관점에서 번역해야 해서 다른 활동들 보다 까다로웠다. <영국 법정 변호사의 행위규범>에서는 영국 마차의 암묵적인 규칙이 'Cab-bank rule'로 구체화된 것에서 그 나라의 문화가 법률에 적용된 것이 기억에 남으며, 일본 <공직선거법>에서 해당 법이 과거부터 개정되어온 내력을 찾아볼 수 있어서 법이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한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법정모니터링은 판사를 비롯한 검사, 변호사들이 재판을 적절히 진행하는지, 소송 당사자들이 부당한 처우

를 받고 있지는 않은 지 등을 감시하는 활동이다. 개인적으로 법정모니터링 활동이 4가지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다. 살면서 법정을 방문한 적이 없었고 판결과 법을 책을 통해 평면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어 기대를 품고 서울고등법원에 가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형사 법정에서는 상상과는 다르게 실제 법리들의 적용보다는 선고와 형의 확정이 더 중점적이었다. 또한 모든 과정이 문서로 진행되기에 검사의 재판 증거 수집, 판사의 증거 채택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AI의 발전, 그리고 특이점이 눈앞에 다가오는 시점에 있어서 차후 법조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지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겨울 계절학과 활동을 병행하여 긴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했지만 법률소비자연맹 활동 덕분에 이번 방학은 가장 의미 있는 방학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사회가 이끄는 대로 흘러가기보다, 민주 사회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국가의 법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는지 성실한 감시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서 기쁘다.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김 ○ 림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동계 필수 활동인 공약 이행률 조사였다. 처음에는 공약 이행률 조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또한 나의 관심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나의 과제처럼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도 살짝 있었다. 그런데 막상 국회의원 2명을 배정받아 공약 이행률을 조사해 보니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집을 읽고 이를 평가하는 거의 모든 과정이 꽤나 흥미로웠다.

이번 공약 이행률 조사를 하며 느낀 것이 우리가 체감하지 못해도 국회의원의 공약은 수십 개가 되며 그 중 몇 가지는 꽤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 공약들이라는 것이다. 내가 조사한 2명의 국회의원의 경우 지하철 개통, 주민센터 등 건물 신축 등의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는 국회의원의 임기인 4년 이내에 완전히 해내기에 매우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이번 공약 조사를 통해 국회의원의 임기인 4년은 어쩌면 매우 짧은 기간일 수 있음을 느꼈다. 동시에 대통령과 다르게 중임이 허용되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평소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공약을 달성했을 것이라고 그냥 어림잡아 그렇게만 생각하며 지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란 걸 알게 되었다. 2명의 국회의원 중 한 국회의원은 공약 이행률의 평균이 5점 만점에 2.5점 가량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또 다른 국회의원은 5점 만점에 3.5점 가량의 꽤나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여줬다. 해당 과정에서 나는 공약 이행률 조사가 왜 필요하며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게 됐다. 또한 내가 별 조사 없이 어쩌면 쉽게 행한 한 표가 내가 사는 지역구의 환경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어서 가장 기대했던 판결문 리서치도 기억에 남았다. 판결문 리서치를 하며 처음 법원에 판결문 사본 제출을 신청해 보고 변호사와 검사, 판사의 과거 이력 등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체 판례를 읽으며 재판 당사자들의 심정을 간접적으로나마 느

낄 수 있었다. 특히 민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이해관계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민사 소송 판례를 보며 단순 피해 구제를 위함이 아닌 개개인의 사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도 법원이 간접적으로 수행해 내며 그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희비가 엄청나게 나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하며 진행한 민사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일부 과하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이 그러한 판결을 내린 까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좋았다. 전공 수업을 들으며 교수님이 하셨던 말 중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법은 절대다수의 정의와 보편적 도덕성을 따르는데 민사 소송의 경우 가끔 법이 잘 못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이익이나 생각이 판결과 달라 하는 말이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법은 아주 공평하며 대다수의 사람들의 상식에 부합한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내가 피고에게 내린 판결이 과하다고 생각한 법원의 판결도 그렇다면 다수의 생각에 부합한 것인가? 내가 단순 문서로 작성된 판결문만을 읽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의 정의와 도덕성 그리고 법의 기준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를 계기로 판사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법의 공정한 적용이 얼마나 많은 사고를 필요로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법조인으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마음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 경희대학교 약과학과 김 ○ 석

이번 학기 친구의 추천으로 함께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번 분기의 경우 제 21대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기간이었기에 더 의미 있는 활동으로 느껴졌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며 생각보다 공약을 많이 지킨 의원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특히 공약을 점검하면서 공약을 모호하게 제시한 국회의원의 경우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공약이 모호한 경우 이를 평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다소 부정적으로 느껴졌다.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추진', '진행'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경우 단순 회의 한 번으로도 공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부끄럽게도 총선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당에 대한 선호도를 바탕으로 선거에 참여했었다. 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번 공약이행률조사에 참여하며 깨닫게 되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과거의 나처럼 선거에 참여할 것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드는 활동이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는 4회 참여하였다. 생애 처음으로 판결문을 읽어야 했기에 걱정이 많이 되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판결문 중에는 읽기 쉽고 일반인들도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략하고 일상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있었다. 리서치를 진행하다보니 재미를 느껴 본래 계획보다 많이 참여하였다. 판결문리서치 활동 전에는 판사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마음이 있

었다. 이제까지 접해온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는 이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편견은 사라졌다. 적어도 내가 읽은 판결문에는 명확한 논리와 근거가 있었고 누구나 납득할만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판결문을 왜곡하는 듯한 표현이 많이 보였다. 특히 “야간건조물침입죄”에 관련한 기사를 찾으면서 해당 범죄와 절도, 성범죄 등이 함께 일어난 특수 범죄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만 무죄인 사항을 마치 범죄 전체에 대해서 무죄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독자들(특히 제목만 읽고 내용은 읽지 않는 사람들이 경우)이 우리나라 재판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만하게 기사를 작성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러한 기사들은 사실상 막을 수 없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판결문을 읽어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판결문이 세상에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봉사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일정과 겹쳐 원래 법률연맹 봉사의 메인인 법정 모니터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사법 감시 활동의 핵심인 만큼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다음 기회에는 꼭 참여하고 싶다. 봉사를 마치며 판결문 리서치와 공약 이행률 조사를 통해 법과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가까워질 수 있었다. 정보를 찾는 능력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 등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이 해당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법과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 ○ 정

2023년도 봄학기 사회봉사활동 이후 오랜만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번에는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 청년 사회 인식조사 및 법제 번역 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판례 분석 활동까지 추가하여 총 76시간 봉사하였습니다. (OT 포함)

판례 분석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중요)나 (이슈) 표시가 있는 판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재판 3건, 민사재판 1건, 형사재판 2건이었습니다. 기존에 법학회에서 하던 판례 분석은 대법원 판례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번 활동에서는 제1심, 제2심도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각 재판에서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며 살펴보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판례를 익혀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한편 기존에 민사나 형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 어렵지 않았지만 행정재판 판례를 살펴본 적은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계기로 행정재판의 절차나 기본 원리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추후에 학부에서 행정법을 수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제 번역 봉사 활동을 진행하여, 영국 및 미국의 법률 용어와 구조를 익혔습니다. 영국 변호사의 행위규범과 미국 사법 및 절차법을 번역하였습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미법 원본을 익힘으로써 이후 해외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유권자로서 국회의원의 공약을

이행 현황을 살펴보는 활동은 매우 뜻깊었습니다. 장동혁 의원(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과 김두관 의원(경상남도 양산시)의 공약 이행 현황을 조사하면서,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플랫폼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자들의 조사 활동과 이를 수합하여 통계를 내는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이 시민사회에 공헌함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봉사자 일원으로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 ○ 후

이번 2023 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 일전에는 대학에 진학 후 봉사활동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봉사활동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나의 진로와 관련한 깨달음을 얻음과 동시에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조금이나마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활동은 크게 2가지를 진행하였다.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와 판결문을 리서치를 진행하였는데, 처음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를 시작하면서 경험해보고 싶었던 활동을 판결문 리서치였다. 로스쿨 진학을 꿈꾸며 항상 막연하게만 다가왔던 진로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며 내가 꿈을 이루었을 때에 마주하게 될 관문들을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판결문 리서치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형령죄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고 싶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주제인 ‘형령죄’와는 별개로 명의수탁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명의수탁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원칙과 예외로 나뉘어 여러 가지 판례가 등장하고, 통시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에 대해 리서치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던 것 같다. 그렇게 관련된 3가지의 판례를 전부 조사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렇게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리서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민사사건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게 되었다. 형사사건에 비해 확실히 민사사건이 내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 사법의 영역이 공법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생각을 받게 되었다. 추후에 봉사활동을 다시 진행하게 된다면, 민사와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 사건 등 여러 갈래의 사건을 경험해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해당 봉사활동은 이번 학기필수요건이라는 말에 막연하게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신청하게 되었다. 나는 정치에 무지한 사람이고, 국회의원들이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선 대입을 준비하며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 정치(現 정치와 법)’에서 맛보기해본 것이 다였다. 그런데 막상 직접 나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렇게 총 13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약이행률 조사를 마치고 보니, 정말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국회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앞장

서는 반면, 어떤 국회의원은 이러한 활동에 소극적인 것을 직접 공약이행을 조사를 하며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 생각했던 활동은 아니지만, 되돌아볼 때 가장 흥미를 가지고 했던 활동은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정치적인 활동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내가 행사하는 투표권의 영향력을 더욱 중요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겨울 방학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을 알게 된 거 같아 기쁘고, 추후에도 해당 봉사활동을 지속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나의 진로와 조금이나마 더욱 가까워지고, 작은 노력이나마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 되었다.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김 ○ 인

로스쿨 진학을 위해 시작한 봉사활동이었지만, 너무 유익했고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봉사활동을 한 보람이 있었다. 나는 주로 판결문 리서치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했다. 왜냐하면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평소에 학교 법학회 활동에서 판례 분석 스터디, 판례평석을 하거나 전공 과제로 판례 평석을 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다음에 학교에서 같은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리서치 활동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판례 분석 스터디를 할 때는 당사자를 자세하게 검색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쟁점, 판결요지 외 내용들을 찾을 때 적응하느라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기 전 판례를 선택할 때, 쉽고 짧은 판례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봉사활동이지만 내 법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나중에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일부러 어렵고 긴 판례를 선택했다. 또한, 한 사건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민사, 행정, 형사 사건을 전부 다루었다. 원래는 형사 사건에 관심이 많아 형사 사건을 많이 하고 싶었지만, 내가 민사사건 판결문을 읽는 것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민사 사건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덕분에 민사 사건 판결문을 빨리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분야들의 용어를 익힐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를 하다보면 의료관련 용어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전문용어가 나올 때가 많은데, 이럴 땐 판결문을 빨리 읽는 것이 조금 어렵다. 예전에는 리트 시험을 보는데 왜 여러 분야의 지문을 읽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됐었는데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전문적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알아야하고, 모르더라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대부분 원심과 결론이 다른 대법원 판례들을 읽었는데 판단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었다. 판결문 리서치는 스스로 논거에 대해 생각하며 과연 이 판사의 선택이 최선의 판단이었는지, 과연 옳은 선택인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점점 잃어가던 법에 대한 흥미를 다시 느끼게 되었다. 매번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되새기게 되었다.

매주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기량이 향상된 것 같고 배운 점이 많아 마지막까지 정말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봉사활동을 찾을 때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이 많이 없어 난감했는데, 법과 관련되어 있고 법적 사고 능력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나중에 법조인을 희망하는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생긴다면 꼭 이 봉사활동을 추천해주고 싶다.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 ○ 영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다짐 후, 관련하여 의미 있는 활동을 찾던 중 법률연맹봉사활동을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고, 약 3개월 동안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봉사활동으로는 2023년 겨울학기 필수활동이었던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평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어 선거 외에는 정치 관련 경험이 없었기에, 정치를 처음 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윤영찬 의원과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의 윤재갑 의원들의 공약 및 이행을 조사를 하면서 지역 발전에 있어 국회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던 활동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예정인 총선에 대해 공부해보고, 보다 의미 있는 한 표를 행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행한 활동은 번역봉사로, 영문으로 되어 있는 영국법정변호사행위규범을 작성했습니다. 영국 여왕의 변호사 관련 내용이 가장 특이했던 점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한, 영국은 변호사의 경우 자격 관련해 특정 분야에서 등급별로 수행할 수 있는 사건들이 다르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고 분석할 수 있던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1심, 2심, 3심 과정을 통해 어떤 주장이 어떤 근거로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는지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의 입장에서, 그리고 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형사 사건 리서치를 하여 검사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기대 이상으로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률연맹에 감사드립니다.

○ 가천대학교 법학과 김 ○ 명

사실 법학을 배우면서 사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번 봉사를 통해 입법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다. 법학도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쉽지 않고, 무엇보다 각 분야의 전문 지식, 단어를 알아야 하기에 시도하기 더 어렵다. 그런 경험을 이번 활동으로 차분히 해볼 수 있었다. 사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정책, 국회의원, 입법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직접 점검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조건이다. 법,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각 분야에서 통용되는 법칙은 무엇인지, 어떤 환경과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야 하고, 그 각

분야의정보가 모여 윤리가 더 나아가 법이 만들어진다. 법이라는 학문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법만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사고 과정이라는 것을 알지만, 사회 문제가 아닌 정치, 외교, 국방 등 다른 문제에 눈을 돌려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 많은 정보를 공부하는 것이 겁이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필수 활동인 의정모니터링을 통해 그 벽을 한번 넘어보았다. 내가 배정받은 국회의원의 공약은 다른 봉사자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이 해당 선거구에,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왜 필요한지, 정확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직 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공약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가 였다. 하지만 많다고 하다면 많고, 적다하면 적은 정보들을 체크하면서 각 선거구, 더 나아가 보다 큰 행정구역, 또 국가의 현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후 뉴스나 기사를 보면서 왜 이 주제로 다뤄야 하는지, 따라서 나의 의견은 무엇인지 보다 깊게 고려해볼 수 있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나에게는 정말 어려운 활동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공약 이행률에 대한 평가가 아닌 지역과 국가의 기본 정보들을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이는 국민이자 법학도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임을 깊게 느꼈다. 법조인이 되겠다는 긴 꿈을 정리하기까지 많은 괴로움이 있었고 사실 아직도 정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사법 작용 속 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지금, 의정 활동에 대해 공부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편협한 사고에 갇혀 법학만을 공부해왔던 것은 오히려 법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그 속에 고통받는 사람을 돕기에는 너무 이상적이기만 한 행동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 불확실한 법을 통해 사람을 돕겠다는 나의 꿈에 환기를시켜준 중요한 경험이었다

○ 연세대학교 지속개발협력학과 졸업 김 ○ 림

1. 국회현장학습 및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평가회 및 국민복합식 상식에 참여하여 현역 국회의원분들의 이력과 공헌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소비자연맹의 국정모니터링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값진 활동인지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맡은 두 명의 국회의원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로 추진되었고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추진되지 않았다면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을 보며 국회의원의 열정과 추진력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 판결문 리서치

여러 판결문 중에서도 스토킵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대법원2023도6411'에 대해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판결문을 구하고 판결문과 재판당사자를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장문의 판결문 중 핵심을 읽어내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디어에서 짧은 글이나 영상을 통해 간접

적으로 접할 때와 달리,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판결문 전체를 읽으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부 내용까지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행위가 스토킵처벌법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징역 1년, 40시간의 스토킵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그 범죄가 원고에 끼친 피해에 비해 너무 약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폭력이 반복되는 패턴을 띠는데,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이러한 변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3. 미국 사법 및 절차법 번역

미국 법 전문을 실제로 읽어본 적은 처음인데, 미국 법을 아는 것이 우리나라 법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꽤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번역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도 틈틈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법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김 ○ 경

법률소비자연맹의 겨울학기 봉사활동은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를 더욱 심화하여 탐구해볼 수 있었던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 의정 모니터링 활동, 번역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판결문리서치활동에서는 특허법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평소 관심 있었던 법률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탐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판례에서 등장한 법률용어에 익숙한 경험이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학강의를 통해 배웠던 특허법 관련 법률들을 판례에 적용해보며 특허법의 복잡한 측면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사례들을 탐색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선택한 판례는 특허출원과정에서 특허청의 재량권일탈 및 남용의 위법성 존재여부와 처분사유 존재여부를 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고 재판결과와 적합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었는데, 판례에서 대법원의 판결과 원심의 판결이 다르게 나타난 점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판례에서는 위임장의 제출과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의 제출을 동일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원심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는 행정청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써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출원인이 해당 출원 절차가 아닌 별도의 포괄위임등록 절차에서 특허청에 대해 포괄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위임장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특허의 무효를 주장한 원심의 판결과 상반되는 해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허 출원 시, 보정 절차에서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최대한 출원인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은 특허 출원의 복잡한 형식과 절차를 완화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의정 모니터링 활동인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를 통해서 정치의 본질에 대해 깊이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명의 국회의원과 150여 개의 공약을

분석하며 공약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활동을 시작하기 전 예상과는 달리 정말 다양한 공약들이 있었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약들 또한 매우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이 국가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약의 이행은 정책의 실현과 국민의 미래에 직결되는 하나의 계약서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약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국회의원은 신중한 태도로 공약 이행에 임하고, 국민의 삶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하는 자세를 반드시 지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국회의 입법 활동과 의원 활동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네트워크 전파권보호조례와 탄소배출 거래권에 관한 규정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활동을 통해서도 전공자로서 중국어에 대한 이해도와 실력을 향상할 수 있었던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중국의 법률을 읽어보며 자주 사용되는 중국어 법률 용어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이와 유사한 한국어 표현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며 중국의 법체계와 한국의 법체계는 사용하는 용어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탄소배출거래권에 관한 규정을 번역하면서 중국정부의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규모의 탄소배출권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이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새롭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기회가 된다면 중국의 대외무역법에 대한 검토도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함께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저의 전문 분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활동을 통해 알찬 방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로에 대한 확신과 믿음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활동에 또 참여하여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김 ○ 하

저는 이번 학기에 국회 현장 학습 사진 촬영 봉사, 영국 법정변호사 행위규범 번역 봉사, 국회의원 공약 이행조사, 판결문리서치 이렇게 4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겨울학기 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를 하려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아픈 상처를 꺼내셔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2차 피해를 드리지 않고 변호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법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찾아보던 와중에 법률소비자연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대해 찾아보면서 저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활동은 국회 현장 학습 사진 촬영 봉사입니다. 봉사활동을 하

면서 국회의원님들의 수상 사진을 찍었는데, 평소에 TV로만 보았던 국회의원님들을 가까이에서 본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님을 직접 볼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새로웠습니다. 수상식을 보면서 정부 기관이나 국가 기관은 아니지만 시민으로서 충분히 국회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감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정치나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제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국 법정 변호사 행위규범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나라의 법전을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에 신청했습니다. 처음에 해석을 진행하며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법률 용어라 생소한 단어도 많았고, 제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과는 조금씩 다르게 쓰이는 단어들도 있었고, 아예 해석에 들어가지 않는 단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면서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법에서 쓰이는지 찾아보기도 했고, 우리나라 법들을 살펴보면서 서술어 등을 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활동이었는데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았던 활동입니다. 영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논문도 찾아보며 법원 종류와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 법들을 찾아보면서 우리나라 변호사 제도와 영국의 변호사 제도를 비교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공약 이행 조사입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이행하셨지만 제가 탐색을 잘못하여 혹여나 이행한 사실이 묻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자료를 찾아본 기억이 납니다. 이 활동도 저에게 매우 뜻깊은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하며 공약을 점검하고, 공약의 이행 정도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무엇보다도 이 조사가 선심성 공약의 남발을 방지하고,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약들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조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조사를 해보면서 제 위치에서도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 뜻 깊었습니다.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로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실행하신 정책 중에 좋은 정책을 우리 지역에 맞게 도입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어떤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정책의 흐름도 살펴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판결문이 어려울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터라 겁을 많이 냈습니다.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고, 몇 개의 생소한 단어들 때문에 가끔 멈칫하긴 했으나 제가 겁을 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실을 진작에 알았다면 더 많은 판결문을 읽어볼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관한 판결문으로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줄 만큼의 행위였는가였습니다.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는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껴야 해당이 되는데 자신의 일부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서 변호사가 되면 어떤 법리를 채택할지, 어떤 조문으로 변호를 뒷받침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판결문들을 많이 접하면서 관련법들도 찾아보

는 노력도 해보아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1심과 2심 판결문과는 다르게 대법원 판결문에는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적혀있는데 이 부분을 보며 사건을 판단할 때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편에 서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중립을 지켜서 다양한 각도로 사건을 바라보는 자세도 더 좋은 변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사실 혼자서 하기에는 힘인데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한 번밖에 못 한 것이 아직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법정 모니터링 활동도 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활동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활동들을 완료한 덕분에 많은 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도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많은 배움을 얻고 싶고 이번 학기보다는 좀 더 열심히 임하고 싶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김 ○ 린

2023년 여름학기에 이어, 겨울학기에도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법률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사회 참여에 대한 열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경험을 더욱 활용하여 법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키우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 다시 한 번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필수 활동이었던 의정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조사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이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은 국민에게 큰 희망을 주는데, 이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약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공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면서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느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도 두 번째로 참여하는 것이었는데, 법률 분야에서의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법원의 1심, 2심, 3심 판결문을 읽어보고 그 안에 담긴 판결 요지와 쟁점을 분석하면서, 판례의 중요성과 법의 논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뚜렷하게 느낀 것은 논리적 사고와 분석력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하고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쟁점을 파악하고 판결문에서 핵심을 추출하는 능력도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리서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 문제에 대한 논리적 해석과 분석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저에게 법조인의 자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열정과 노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각각의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리서치를 끝마쳤을 때 뿌듯한 기분과 함께 새로운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미래에 더 나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기반으로 삼을 것입니다.

법정 모니터링은 법률연맹의 봉사활동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을 직접 관찰하고, 법적인 과정과 절차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면서, 법과 정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법정에 발을 들인 순간, 법과 관련된 많은 개념들이 책 페이지나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살아 숨 쉬는 상황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절차의 복잡성과 법률 용어의 다양성에 처음에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재판을 흥미진진하게 방청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법과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재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법의 평등한 적용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역 봉사활동도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미국 사법 및 절차법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의 다양성과 문화적 차이를 깨달을 수 있었으며, 법조인이 가져야 할 국제적 역량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더 넓은 시야에서 법과 정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미래에도 국제적인 법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가장 큰 점은 작은 노력이라도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정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파동을 일으키며, 우리의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곳으로 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 김 ○ 우

제가 본 봉사활동을 신청한 주된 계기는 바로 번역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육군 통역병으로 군 복무를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 전사 작전법 등을 통/번역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전역 후 이런저런 법 관련 봉사활동을 찾아보던 중 법률봉사자연맹 봉사활동을 발견하게 되었고, 번역 봉사활동이 있는 것을 보고 신청했습니다. 살면서 법 번역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군대에서 한 번 해 보고 끝내는 너무 아쉬웠고, 미국 이외 다른 나라의 법률을 번역할 기회가 있을까 해서 지원했는데 다행히 영국 법

정 변호사 행위규범을 번역해볼 수 있어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정말 일상 용어와 법률 용어는 아예 다른 언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롭게 공부를 해야 했고, 알거나 영국 법률 용어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으며 제가 번역한 것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외에 또 기억에 남는 활동은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조사입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정치 쪽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필수 활동인 공약 이행을 조사를 하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든 생각은 공약들을 제시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이 매우 풍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상황을 잘 알고 있어도 결국 제도를 바꾸려면 법을 바꾸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을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한 당선인이 법률 개정안을 몇 번 발의했지만 위원회 심사에서 계류되어 공약을 실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먼 미래에 관련 일을 하게 된다면 관련 규제와 법률에 대해 먼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느낀 점은 생각보다 지켜지지 않는 공약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큼직큼직한 주된 공약들은 완벽히 실행되지 않아도 실행하려는 노력 정도는 보여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동단위의 작은 공약들은 2년이 넘도록 아예 실행 준비조차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정도로 아예 실행조차 되지 않는 공약들이 많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만이라도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아직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정치에 소홀했던 제 자신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번 봉사활동 카테고리의 모든 활동을 다 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어가는 것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기회가 있다면 이번에 하지 못했던 다른 활동들도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 ○ 현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단순히 동기의 추천때문이었다. 내가 진학하고 싶은 로스쿨에 지원할 때 봉사활동 이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것과 달리,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주로 진행했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대부분의 활동 과정에서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판결문 리서치에 필요한 판례를 찾는 과정에서는 내가 관심이 있던 분야의 재판, 재판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나 후속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잊혀진 사건 등 다양하고 폭 넓은 판례들을 접할 수 있었다. 나는 주로 행정소송과 국가대상 사건에 관심이 많아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판례들

을 주로 분석하였다.

이후 판례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선택한 판례를 세세히 읽고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과정을 통해 판결이 이루어지는 과정, 일반적인 사건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근거와 입장,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나의 언어로 곱씹어보는 과정에서 판결문의 작성원리와 그들의 논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분석한 판결문에 대해 짧막하게 의견을 작성하는 활동이 있는데, 의견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분석, 요약한 판결문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해당 판결의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사법불신 경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번 겨울학기엔 진행한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깊이있는 법 관련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평소에 법과 재판의 중요성에 대해 넌지시 이해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판례를 지정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내가 관심있는 분야, 내가 관심 있는 판례를 선택하여 활동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도 활동에 흥미를 잃지 않고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최종적으로 내가 법조인이 되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개인적인 일도 많고, 시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 홍익대학교 법학과 김 ○ 지

20학번으로 대학을 입학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를 가보지도 못해서 아무런 대외활동에 대한 정보도 없이, 집에서 원격 강의만 듣다 보니 무기력한 상태로 4학년이 되었다. 코로나가 중간에 잠잠해져서 대외활동을 할 기회가 생겼지만 3년 동안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었다. 로스쿨 진학을 위해 법대에 진학했고 진학 후 학점 관리도 열심히 했지만, 실제 법원에 가본 경험도 없고 법과 관련한 실질적 경험 자체가 없었기에 법과 관련한 대외활동을 하는 것이 무기력해진 나에게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1.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

개인적으로 나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된 봉사활동이었다. 대학교에서 원격으로 한 모의재판 경험이 있지만 실제로 법정에 가본 경험은 없어서 법정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재판 중에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 밖에 없었다. 법정에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부담이 있었지만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법정에 들어서니 부담감이 덜 하고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처음에 법정을 갔을 때는 많이 어색했고, 생각보다 재판이 빨리 끝나는 모습에 놀랐다. 하지만 여러 번 법정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재판 중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또 내가 학부 시절에 배운 조문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직접 법정을 가서 재판을 보니까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한 번 더 다짐하게 되었다.

2. 번역 봉사활동

대학교를 다니며 미국헌법을 배운 적이 있어 미국 법률 번역은 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신청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미국 사법 및 절차법이었기에 또 다른 새로운 단어들이 나와서 번역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는 했었지만, 번역을 넘어서 미국 법체계에 대해 인터넷에 찾아보니깐 우리나라 법체계와 비교할 수도 있고 지식이 더욱 쌓이는 느낌이 들었다.

3. 공약 이행률 조사 봉사활동

투표권을 가진 후 투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주권의식을 느끼고 그 이후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잘 실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어차피 못 지켜도 뽀힐 사람은 뽀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행률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공약 이행률 조사를 하며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세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공약을 이행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 앞으로는 인물 또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보다는 공약과 공약의 이행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겠다고 생각했고, 국민으로서 투표행위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30시간을 채우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법정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었고 번역과 공약 이행을 조사를 위해 모든 사이트에 검색해 자료를 찾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다 끝내고 나니 홀가분한 기분과 함께 뿌듯한 감정이 든다. 대학 입학 후 학점 챙기는 것 외에 무언가를 열심히 해본 기억이 없는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국민으로서 그리고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법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자극도 많이 되었기에 좋은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로스쿨 진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관련된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봉사활동 특히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하면서는 너무 재밌었다.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김 ○ 주

비록 법적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지만, 대학생으로서 법률 봉사활동을 경험해 본 것이 뜻 깊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법원 방청은 여러 번 가봤지만, 직접 법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법원에 가서 판검사 및 변호사님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지를 기록해보고, 그 안에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봄으로써 더 유익하고 기억에 남는 방청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단순히 많은 판결문들을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리서치를 하고 양식에 맞추어 기록하고 정리하며, 판결문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었으며, 판결문을 어떤 식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가며 읽으면 좋을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들은 제가 법과 관련된 진로를 좇는 데 있

어 법과 현실세계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생으로서 학교 안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법적인 활동은 법과 관련된 수업을 듣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었는데, 봉사활동을 통해 좀 더 현실세계와 관련하여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법 수업을 들어보는 것 외에 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법조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법 이외에도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조사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법률과 정치가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살펴보고 적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봉사자분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저도 우리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남 ○ 윤

제작년 겨울, 학교 민사법학회 임원진으로서 학회원들과 함께 하면 좋을 활동들을 찾다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학도로서 책을 통해 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면 느끼는 바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학회원들에게 봉사를 소개하며 신청을 도왔고, 작년 겨울에 임원진 활동을 마치며 직접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저의 봉사활동은 1월 3일 국회 현장체험학습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시상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을학기 국감모니터위촉장 및 우수봉사자 시상식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런 시상식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수상하는 국회의원들을 직접 보며 그들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극적인 기사 헤드라인과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인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팩트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국정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은 어떠한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의 필수 활동이었던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를 하며 구체화되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공약을 직접 찾아보고 이행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정치에 대해 무관심했던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약이행률조사 이전에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할 때, 제가 선호하는 정당에 치우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봉사활동을 하며, 국회의원 당사자가 이뤄낸 성과를 자세히 찾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당 이념과 별개로, 국회의원 개인이, 자신이 내세운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 4년 동안 꾸준히 노력했고 그에 따른 성과가 나왔다면,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약이행률조사 봉사활동'은 이번 봉사활동 중 가장 어려웠습니다. 우선 엑셀 작업에 미숙했고, 공약을 점검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선거공보를 꼼꼼히 정독하여 엑셀에 기입되지 않은 공약들을 추가하고, 여러 사이트를 동원하여 자료를 찾고, 핵심내용을 잘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4회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입니다. 처음은 요령 없이 순서대로공란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두 번째 판결문 리서치부터는 저만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란을 채워나갔고, 시간이 반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법학 공부를 하다보면 판례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됩니다. 길고 어려운 문장들로 이루어진 판결문들은 읽자마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권총론', '물권법', '법정채권법'과 같은 과목을 공부할 때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대법원 주요 판례를 접하면서 매 뉴얼대로 쟁점과 판결요지 등을 정리해나가며, 판례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고른 판례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사건을 다루고 있었는데,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기 전에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는 순간 원심의 법리오해를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리걸마인드가 부족한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여하여 다른 다양한 활동들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남 ○ 원

올해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법에 대해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법을 공부하고 체험해 보고 싶어서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에는 판결문리서치, 언론모니터링,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 활동을 진행하였고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의 경우 형사사건 2건, 민사사건 1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맡았던 형사사건은 정인이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양부모가 생후 16개월의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대표적인 아동학대 및 살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평소 판례를 읽으며 법학 공부를 할 땐 주요 쟁점에 대해 이미 아는 상태로 판결문을 읽었기에 쟁점을 파악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내용 또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어떤 부분을 생략해야 할지 난해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평소 공부할 때엔 개별 사건의 내용 자체보다는 법조와 절차를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개별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치밀하게 수사와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통해 진실로 다가서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례는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긍정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직접적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풀입니다. 이는 판례가 명의신탁에 대해 권장하고 장려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제가 판사였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형사사건은 주거침입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쟁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법적 개념인 주거권인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인지 여부였습니다. 더하여 공동거주관계에서 공동거주자의 외부인 출입 허락에 따른 주거 출입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1인의 허락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에 출입한 자에 대해서는 설령 그것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히 거주자의 주관적 인식만으로 성립해서는 안 되고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객관적 행위 또한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주자가 직접 문을 열어주어 안으로 들인 행위가 다른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으로 성립한다면 과도하게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소에 법학을 공부할 때는 그저 이론과 조문, 판례 내용을 암기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제 생각과 판단을 구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해당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통해 법학에 대한 시야와 관점을 넓힐 수 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언론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에 대한 언론사별 보도 경향 분석>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정책에 대해 언론사별로 보도 경향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정책에 대해 우호적이었고, 진보 성향의 한겨레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일본과 친교를 맺고 북한을 견제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공 대일외교정책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일본과의 교류를 통한 경제 이익과 민주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한 안보 협력의 이점에만 집중하며 정부를 추켜세운 반면 한겨레는 과거사 문제를 경시한다는 비판과 북한과의 적대와 긴장감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며 비판했습니다. 해당 분석을 통해서 같은 정부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언론사별 보도 경향성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특정의 언론사에만 치중하여 가치관과 사고를 확립하는 대신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접하며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언론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를 통해 국민이 특정 사안에 대해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며 보도 윤리

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체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겨울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의 경우 태영호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게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평소에는 국회의원이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많은 공약이 있고 또 그것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더하여 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국정에 무관심했는지 알게 되어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발의 법안은 20대 때보다 늘어 역대 국회 중 최다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그중 제가 사는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은 무엇이었는지, 발의하여 처리된 법안은 얼마나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실감하자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노 ○ 연

저는 20학번으로 입학하여 팬데믹으로 오랜 시간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여, 다른 지역에서 여러 대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벗어나 내가 주체가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활동이 생긴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올라오기 전까지 막연하게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던 저는, 대면학기 이후 외교관이 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가고자 하는 길과는 매우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전공수업에서 한 교수님을 만나 법조인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법이 어렵다면, 그 법과 판례 안에 '사람이 한 명 서 있고,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었고, 그날부터 법조인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법조인이 의뢰인을 돕기 위해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역량은 사회참여, 그리고 글쓰기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외활동과 봉사활동을 찾아볼 때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하여 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고, 매번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은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였습니다. 이번 총선이 시작되기 이전에 현 대 국회의원들이 최초로 계획한 공약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보통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 국회의원분이 공약을 거의 다 지키고 있었고, 2년 주기로 이루어진 조사에서 조금씩 진전이 보이고 있어 정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거의 비슷한 공약 여러 개를 공약으로 걸고, 그마저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이행률조사

활동이 없었다면,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 공약을 걸고 이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집중적으로 진행했던 활동은 판결문리서치였습니다. 저번 학기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 학기에는 좀 더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거나 제가 평소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분야의 판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판례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관련 판결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공인, 특히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하는 발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게시글이 단순 주장 및 문제제기라고 했으나, 해당 게시글을 게시했을 당시 피고인이 시의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발언의 무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해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거부' 판례를 통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병역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병역거부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각 심급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뒤집힌 것을 보면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판결문리서치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법률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어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수의 판결문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공약이행률조사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기회라 더욱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전 가을학기 봉사활동에서 했던 국정감사 활동도 매우 즐겁게 진행했던 기억이 남아서, 또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문 ○ 오

나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준 활동

학회에서 알게 된 친구의 소개로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다. 현재 나는 법학전문대학원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같은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진로를 결정한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다보니, 법조분야를 간접적이거나 체험할 수 있고 진학활동에 도움을 얻고자 해당 연맹의 봉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번 겨울학기의 필수 활동은 공약이행률 조사였는데, 나는 법조분야의 간접 체험이 이번 봉사 활동의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사법감시 분야의 판결문리서치를 주요 활동 영역으로 삼았다. 특히, 나는 행정법 전문 법조인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주요 형사,민사 등의 주요 판결문들 중 행정사건의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은 첫째, 내가 바로 직전 학기에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교과서로만 거부처분, 재량 등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학기 중에 나는 행정소송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판례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들과 행정소송진행 과정을 살펴보니 잠자고 있던 개념들이 기지개를 켜는 느낌이 들어 좋았다. 둘째로는 자신감과 확신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진로를 결정한 시기

가 늦어 현재 걷고 있는 법조인이라는 길이 나에게 어렵고 적성과 부합할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 그러나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어렵고 내게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 법률관계와 진행은 오히려 흥미를 불러왔다. 이 흥미는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하는 확신을 듣게 해주었다.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지점은 동명이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것이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담당 변호사 등의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는 있었지만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어느 소속의 누구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변호사 활동 시작 시기, 전문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론할 수 있었을 뿐이다. 변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어떤 사건을 담당하였는지 대략적으로만 알 수 있었다. 리서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이를 알기 쉽도록 약간의 개선책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약이행을 조사도 내가 주된 목표로 삼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웠다. 평소 사회와 정치문제에 깊게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보던 의원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활동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었다. 정당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가장 큰 뉴스지만 인물 중심으로 그것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의원을 조사하는 것은 내가 탐험가가 된 느낌이 들게 해주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내가 목표하였던 바를 확실히 성취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에 대해 감사한 느낌이 든다. 내가 진학까지 여유가 있다면 리서치 외에도 번역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도 존재한다. 리서치 활동만 해도 굉장히 얻어가는 게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어 내실을 다져야 하는 사람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 활동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일반 민 ○ 회

2023 겨울학기 봉사활동으로 필수 활동이었던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을 조사활동과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을 조사활동]

경기도 파주시을의 박정 의원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갑의 박주민 의원을 배정받아 각 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조사했다. 선거 공약에 관한 기사와 자료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던 반면 진행 상황에 대한 기사와 자료의 수는 부족해서 생각했던 바와 다르게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모호한 공약의 경우에는 정보도 부족했을뿐더러 자료마다 이해한 내용이나 진행 상황이 달라서 애를 먹기도 했다. 나 역시도 선거 후에 큰 이슈들에 휩쓸려 각 의원들의 공약에 무관심한 편이었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선거 전 의원들의 공약에 많은 관심을 갖는 만큼 선거 후에도 관심이 지속되어야만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며 국가의 발전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판결문 리서치]

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2개

첫 번째 판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판례였다. 해당 판례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낄 필요가 있느냐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판례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러한 행위들이 수차례 반복된다면 누적적이고 포괄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위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언젠가 일본 야쿠자가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 해당 사람의 축하 자리마다 이름이 없는 꽃다발을 보내는 것, 그게 전부였다. 나는 상대를 모르는데 상대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면서 이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성별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에 앞서 스토킹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윤리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법적인 비난까지 받을만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스토킹 관련 범죄는 주로 가까운 상대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에게 억울함과 복수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한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알맞은 처벌을 받으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시에 피해자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 판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스토킹 행위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판례였다. 층간 소음을 유발한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규정되어 스토킹 범죄를 성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들 중 상대방에게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상대방에게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주는 행위임 역시 분명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위 행동에 위법성이나 책임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 법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범위로 해석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판례

해당 판례에서는 링크가 성착취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으며, 해당 영상 내지 사진을 구입해야 다운로드가 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지 않은 상태는 아직 이를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링크에 접속했을 때, 별다른 조치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라면 링크 역시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타인에게 링크를 공유함으로써 링크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행위 역시 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고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형법상 '소지'의 정의가 목적물을 사실적인 지배하에 둔 상태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위 판결과 같이 해당 영상 내지 사진을 구입하여야만 다운로드가 되는 상황이라면, 구입하지 않아 다운로드 하지 않은 상태는 아직 소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위 사건과 다르게 구입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사진 내지 영상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이며, 해당 대화방에 사진 내지 영상이 현재 존재하고 아직 다운로드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어서 언제든지 다운로드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진 내지 영상까지 소지가 아니라고 봐야 될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아무리 법률의 문언에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해석을 할 때 시대적 상황과 법관의 재량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해당 판례는 형식절차주의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판례였다고 생각한다. 정황상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진실처럼 보여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답답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인간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없고 그렇기에 형식절차주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진실 같은 사실이라도 인정할 수 없다. 현대 과학이 이렇게나 발전했음에도 DNA 분석을 하지 못해서 피고인의 모발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 안타까운 감정이 드는 판례였다.

○ 영남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박 ○ 태

이번 2024년 겨울학기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4번째 봉사활동입니다. 지난 가을학기의 경우 신청은 하였으나 국감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날짜를 놓쳐 봉사를 마치지 못해 매우 아쉬웠는데 이번 학기는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비록 제가 신청한 분들은 배정받지 못했지만 국회의원 의정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의원님께서 공약을 얼마나 지키셨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를 검색하여 관련 활동을 하셨다는 증거를 찾았었는데 제가 해당 의원님들의 지역구와 좀 가까이 살았다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또 언론 모니터링을 하면서는 어떤 경제지가 어떠한 논평을 하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지들은 비슷한 주제에 관해 비슷한 논평을 하였었는데 좀 더 다양한 주제와 의견을 제시해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의 활동은 매우 미약하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 활동하고 싶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 ○ 지

지난 가을학기에 이어 겨울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지난 학기에는 학기 중에 진행 했던 터라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이번 봉사 활동은 방학을 이용하여 다양한 법 관련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가장 흥미를 가지고 진행했던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이었다. 많은 법원을 가지는 못하였고, 비록 민사와 형사사건밖에 방청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직접 법원에 가서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짧은 시간에 생각보다 많은 사건들이 진행됨을 느낄 수 있었고, 나의 생각보다 훨씬 많이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겉으로는 매우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있는 모습을 보니 조금 무섭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다. 매우 사소한 사건일지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 더 가까워져야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이번 학기의 필수 활동이었던 '공약이행률 조사'도 즐겁게 진행하였다. 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을 '김영호' 의원과 경기도 남양주시 병 '김용민' 의원에게 공약 이행률을 검토하였는데, 공약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니 나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공약을 선거 당시 내세웠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의원 모두 나쁘지 않은 이행률을 보였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러한 검토 과정이 없다면 선거 당시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의원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너무 추상적인 공약들도 많이 있었다. '~추진'과 같은 진행 과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공약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던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는 '판결문 리서치'활동을 진행하였다. 처음 활동을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사건을 선택하고, 조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 열람이 불가능한 판결문도 많이 있었고 판결문 자체가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도 많아 사건을 고르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번 진행하다 보니 어떤 사건을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감이 잡혀 나갔던 것 같다. 평소 많은 관심이 있던 성폭력 범죄 처벌, 아동 청소년 성 범죄에 대한 사건 등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생각보다 이러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 까지도 국민의 법감정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진행한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있었고 같은 법이라도 이를 이해하는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이에 대해 계속해서 항소와 상고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실제 판결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판결문을 검토해 보며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알아보고, 어떤 쟁점에 대해 어떤 증거, 법리해석을 바탕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한다면 앞으로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수업이나 강의로만 배웠던 여러 지식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이

용되는지를 알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 이론으로만 접했던 것들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의미 있었고 '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앞으로의 나의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국민대학교 법학과 박 ○ 연

지난 2023년 여름학기 봉사활동에 이어 두 번째로 2023년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고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배운 법학 지식과 정보를 이용한 봉사활동을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여름학기에 활동을 하면서 좋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다른 고민 없이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의정모니터링과 법정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의정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를 위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에서 첫 번째로 진행한 봉사활동은 의정모니터링이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은 이번 학기 필수 봉사활동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약분류점검 및 공약이행률 조사를 총 2회씩 진행해야 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미 필수 활동으로 진행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학을 배우는 법학과 학생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입법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국회의원과 그 국회의원 각각의 활동에 대해 조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국민으로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의 공약을 조사하고, 그 이행률을 조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모니터링과 같은 봉사활동을 통해서라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충실히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었지만, 관심도가 낮아져 공약 이행이 흐지부지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최대한 많은 공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의정모니터링과 같은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가능하다면 국민 개개인의 많은 관심까지도 이어진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활동은 판결문리서치였습니다. 판결문리서치를 선택한 이유는 그동안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며 판결문을 읽는 것이 충분히 익숙해졌고, 학교 공부를 하며 관심이 생긴 판례들이 생겼기 때문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결문리서치는 총 3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건 모두 형사사건이었으며,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를 위주로 선택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민사법보다는 형사법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3개의 판결문 중에서 2개는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며 잠시 언급되었던 판례들이었는데, 판결문 리서치를 하기 위해 대법원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확인하던 중에 발견하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이 들

었고, 그대로 리서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고 관심이 갔던 대법원 판결문의 리서치를 먼저 진행하려고 했는데 1심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1심 판결을 진행한 법원에 판결문사본제공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결문을 심도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동시에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며 활동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봉사활동으로써 의미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법학 공부를 하며 쌓은 지식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리서치를 진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의정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 두 가지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며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두 번째 학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진행하면서 법학과 관련된 봉사활동이 존재한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학기 법정 모니터링에 이어 이번 학기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지만 한편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니 기쁜 마음도 들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의정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를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박 ○ 정

졸업을 앞둔 내가 법학전문대학원 임시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다가 네이버 카페에서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봉사단 프로그램을 추천받았다. 많은 사람들의 후기나 활동에 관한 설명을 읽으며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도 한 번 부딪혀보자는 마음가짐과 어려우면 배우면서 하면 된다는 포부를 되새기며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신청하였다. 2023 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학생봉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내가 어느 분야에 더 흥미를 느끼고 어떤 부분에서 나의 지식을 메워 나가야할지 알게 되었다. 약 2개월 동안 내가 참여했던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 외국어 번역봉사, 그리고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 이렇게 3가지 분야였다.

활동을 마무리한 후 나에게는 뿌듯함과 감사함이 남았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으며 지식이 확장된 것 같다. 가장 처음으로 참여한 것은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이었다. 12월 어느 날의 형사8부의 마약관련 재판을 방청하였는데 재판부가 변경되어 공판갱신절차를 해야함에 따라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2월로 연기되어 재판의 분위기나 사건의 개요 이외의 것들을 얻어가기 어려웠다. 생생한 재판 진행과정을 보고 싶었던 터라 조금 아쉬웠지만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는 것 같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활동은 번역이었다.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서 곧바로 신청하고 내가 번역할 것은 미국선거법이었다. 국가형태, 이념, 정치제도 등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 많아서 용어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았지만 최대한 문맥을 파악해가며 회당 4-5페이지씩 번역하였

다. 번역을 하면서 미국선거법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미국의 유권자 등록법에 관한 부분이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선거연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 선거위원회에 유권자 등록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 시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도록 요구받는다. 이 외에도 미국선거법이 가지는 특징들과 우리나라 선거법과의 차이점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23년 겨울학기 봉사의 필수활동은 의정모니터링이었다. 제주도 서귀포시 국회의원 한 분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 국회의원 한 분 총 두 분의 공약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평소에는 전혀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을 국회의원 공약의 이행 완성도를 조사하였고 공약 자체의 구체성 및 현실성도 따져보았다.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정책 등 여론도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스스로에게 느낀 감정에서 나아가, 이렇게 유익한 활동을 기획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담당 자분들께도 감사함을 느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생들의 소감문 및 블로그 글들을 읽어보니 대부분 유익한 활동을 함으로써 보다 의미미한 봉사를 한 것 같다. 누군가에게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에게는 배우고 싶었던 분야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사소한 부분이지만 번역봉사 후 메일을 보낼 때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에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법률소비자연맹의 대학생봉사단을 신청한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원 입시였지만, 그 과정과 노력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눈의 피로를 무시한 채 모르는 분야는 끝까지 파고들기도 하고, 때로는 영상, 도서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식을 쌓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스스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더 해보고 싶은 활동들이 있기에 다음 봄학기 활동도 신청할 예정이다.

○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박 ○ 연

법이라는 분야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저는 단순히 학교에서 법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 이상으로 법을 탐구하고 실제 사법 현장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법률소비자연맹의 법률봉사활동은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법률에 관한 대외활동을 찾아보던 도중, 이전 봉사자분들의 봉사 후기를 보고 나서 저는 2023년도 겨울학기 법률봉사활동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진행한 봉사활동은 공약이행률조사 활동과, 번역봉사 활동, 판결문리서치 활동, 그리고 법정모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공약이행률조사는 선거로 인하여 제출 일자가 다른 활동에 비해 빨랐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진행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은 사법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의법과 관련이 있는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동일한 공약을 여러 면에 기재하며 선거 홍보지를 할애하는 등 시각적으로 약간의 속임수를 쓰려는 경향이 있고, 또한 선거 홍보지에 적혀 자료로 남은 공약이라 할지라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 선거 이전에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하게 읽는 편이었고, 공약에 따라 투표할 후보자를 정하기도 해, 솔직하게 저 정도면 정치의식이 높은 편인 것 같다는 우쭐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후보자가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던 적이 있는 경우, 후보자의 공약 이행률까지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약이행률조사 과정에서 공약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까지 투표 시에 고려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번역봉사는 영국의 Barrister 행위규범의 주어진 부분을 번역하였습니다. 번역 과정에서는 고유명사가 많아 적절하게 번역할 단어를 찾는 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번역에서 중요한 점은 맥락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법이 아무래도 직업을 위한 규정이 담긴 특수한 법이다 보니 번역 맥락은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리서치활동은 교권보호위원회초지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건으로 1회 진행했습니다. 리서치를 작성할 판례를 찾던 도중, 요즘 화두가 되었던 교권과 관련된 판례이기도 하고, 제 전공인 영어교육에서 교육과 큰 관련이 있는 판례라 생각하여 흥미롭게 리서치를 작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판례를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를 분석하며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1심의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고, 그 2심의 결과도 3심에서 뒤집히며 사법부의 판단이 계속해서 갈렸던 점이었습니다. 각 심의 판결문을 읽을 때마다 해당 재판부의 판결이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는 항상 법률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의해 판결이 갈린다는 점에서, 판결문의 텍스트를 표상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텍스트를 읽을 뿐만 아니라 주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직접 재판을 방청해서 진행하는 활동인 만큼 많이 기대되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재판을 방청해 본 경험이 없어,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할 당시에도, 제 생각과 다른 점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 들어간 재판이 약식재판이라 많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판은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그리고 판사가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약식재판의 경우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를 찾아보기도 힘들었고 거의 10초 내외로 판결이 빠르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도, 증거와 증언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고 추가로 판사가 인지하길 바라는 쟁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쟁점에 대한 실제 다툼은 증거와 증언을 제출한 뒤인 다음 재판으로 미뤄지는 듯했습니다. 제가 방청한 재판은 모두 민사재판이었기에 민사재판 과정에 대해서 바뀐 제 생각을 말해보면, 생각보다 재판과

정에서 이뤄지는 의견 다툼은 크지 않고, 판사가 중심으로 양측의 주장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는 인상이 남았습니다. 미래에 법조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진로에 대해 전문적인 과정을 밟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실제 실무 현장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제 미래의 진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어준 활동임과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사법 활동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박 ○ 영

이번 겨울학기 봉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게 되면서 법과 관련된 활동 중 저에게 가장 흥미롭게 다가온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이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일반인들에게서는 먼 느낌이 들지만, 법률 소비자 연맹이 진행하는 봉사활동은 결국 '비법조인들이 어땠 게하면 법을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비법조인으로서 아직은 낯선 법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활동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참여한 활동은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판결문리서치,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였습니다. 먼저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은 직접 법원에 가서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켜본다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법정에서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저는 처음엔 법원의 엄숙한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차분해졌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게 된 재판은 저작권법 위반에 관련된 형사재판이었는데, 아쉽게도 인사이드 등의 문제로 재판이 연기되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채 5분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재판이 이렇게 빨리 종료될 수 있구나', 또한 '이런 이유로 연기될 수도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재판과정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하면 할수록 신기하게도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판결문을 찾는 과정부터 어떤 부분이 쟁점이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무엇인지도 파악하기 벅했습니다. 몇 번이고 판결문을 읽어야만 겨우 이해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동법 분야의 판결문 리서치를 거듭하면서 점점 이해가 빨라졌습니다. 특히 리서치를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1심, 2심과 달리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졌을 땐 대법원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다른 결정을 내렸는지를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비전업 시간강사에 대해 합리적인 차별이었는데 아닌가에 대해 같은 사실을 두고도 1심, 2심과 대법원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고 요약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저에겐 가장 뜻깊은 활동이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아직 다뤄보지 않은 다양한 판결문 리서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겨울학기 필수활동이었던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성

인이 되고 선거에 참여하면서 후보들의 공약을 바탕으로 누구에게 한 표를 던질지는 고민해보았지만, 정작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내세운 공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는 확인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약이행률조사를 하면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렇게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두 후보 중 한 후보는 무려 81개의 공약사항을 내걸었습니다. 안타까웠던 점은 공약으로 주장했지만 정작 당선 후에는 관련 기사 한 줄조차 찾을 수 없는 공약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행점수 0점은 사업이 전혀 착수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무산된 사업 등인데 2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5차 조사 때도 똑같이 0점을 받은 공약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공약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번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주권의식을 갖고 참여할 것입니다.

2023년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며 가장 보람찼던 점은 내가 그동안 피상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법을 실제로 경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회엔 필연적으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저는 법조인으로서 법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에 더해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활동을 통해 저는 목표를 향한 발자국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 ○ 지

이번 학기는 두 번째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 여름에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하면서 법에 대해 더 알아가고,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이번 학기에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번학기는 여러 봉사활동을 했다면, 이번 학기는 판결문 리서치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물론 필수 봉사활동인 공약이행률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공약이행률조사로는 김용민 의원과 김영호 의원을 모니터링하였는데 저번 학기의 봉사활동과는 느낌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활동에서는 제가 하는 모니터링이 2차 모니터링이었기 때문에 1차 모니터링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위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모니터링은 3차 모니터링이었고, 다른 분들이 진행하신 1차와 2차 모니터링을 보면서 공약 이행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검토하면서도, 공약들이 어떻게 마무리되어가는지에 특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약은 대체로 2가지로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어떤 공약은 대부분 진행상황이 착수되어 완료된 사업들이었고, 어떤 공약은 아예 시도조차 되지 않은 사업들이었습니다. 전자는 숙원 사업이 완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몇 년 후면 완공될 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약은 아예 시도조

차 되지 않았는데, 관련 협의회나 행사조차 개최되지 않아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을 공약이라면 선거공보에 적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고, 앞으로도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국민으로서 꾸준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여러 판결문리서치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리서치했던 점입니다. 저번 학기에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리서치 해보지 못했는데 이번 학기에 저의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다른 판결문과 달리 더 장문으로 작성되어 있고,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반대의견, 별개의견 등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판결문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들었지만, 그만큼 뿌듯함도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성한 판결문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대법원이 계속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다루는 판례였는데, 이 판례는 앞서 대학교 강의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판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점은 수업시간에는 다수의견만을 중점으로 배웠지만, 막상 판결문을 읽어보니 별개의견도 분명 일리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는 필연적 참을 제시하기보다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민이 법에 요구하는 바를 찾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법률 활동을 하게 되어 뿌듯했고, 이번 학기 활동도 보람찬 활동들로 가득했다고 생각합니다.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 ○ 회

하동만 해당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가 다시 참여하면서 판결문과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기 위한 기사를 살펴보았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전부 살펴볼 기회는 많지 않다.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공약, 특히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나 지원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이상 관심을 가지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공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배정받은 지역 국회의원 공약을 살펴 보면서 우리 지역 내 공약들 또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곧 있을 총선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정치적 이념보다 공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주어진 판결문 속 사실관계를 읽고 참조 판례들을 참고하면서 직접 해당 사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를 비교해봤다. 어느 때는 1심 판결과, 어느 때는 대법원 판결과 생각이 일치했는데 대부분 그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더 큰 경우에 해당했다. 물론 저지른 행위가 침해한 법익보다 더 큰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로지 해당 행위와 침해된 법익의 경중만을 따져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법을 적용하는 일이 '사람의 일'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교내 법학회 내에서 다양한 사례를 다룰 때는 단순

히 원고 A, B라는 이름으로, 추상적 상황에 대해 다루었다면, 실제 사회 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판결문을 다룰 때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각급 법원이 내린 판결의 타당성 및 정당성에 대해 다른 판례나 기사를 참고하면서 숙고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판례문을 접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 민사 재판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각 업무 중 여러 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고들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에 따른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발생시키는 민법 제550조의 '해지'만 가능할 뿐이라는 판결과 관련하여 계속적 계약의 성립 여부 또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 가천대학교 법학과 박 ○ 교

이번 겨울학기 동안, 저는 판결문 리서치, 미국 조문 번역 봉사, 공약이행률 조사와 같은 봉사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두 번째 봉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안겨주었고, 저의 법률적 지식에 있어 새로운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판결문을 각 심급마다 분리하고 정리해 법률용어를 해석하면서 그 경험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유익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하고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판결문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리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률용어는 종종 난해하고 생소한데, 이를 일상적이고 명료한 언어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법적 결정에 대해 더욱 이해하기 쉬워지고 접근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 분야의 전문용어를 해석하고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법률 전문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전환하는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적 결정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에 봉사하는데 더욱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더불어, 이 봉사활동은 법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적 문제에 대한 대중의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법률에 대한 흥미와 이해가 깊어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한 작은 기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달 2월 저는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 조사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공약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을 알게 되면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공익에 기

여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건강한 민주사회의 기반이 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치적 참여와 공익에 대한 봉사는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핵심 가치라고 느꼈습니다. 더불어,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 조사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는 나의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고, 법률에 대한 흥미와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 용어를 해석하고 일반인에게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양과 능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러한 경험이 나의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법률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제 더 나은 법률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지식과 열정을 갖추게 되었고, 사회에 봉사하는 데에 대한 책임감과 의미를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은 나를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시키고,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식을 공유하고 사회의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목표를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며 덕분에 이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어 더없이 뿌듯하고 보람찼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박 ○ 림

최근 법률 분야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전까지는 법과는 큰 연계가 없는 삶을 살다가, 법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활동을 해보기 위해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1) 행사 도우미 2) 공약 점검 및 공약 이행을 조사 3) 번역 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법의 위치와 구성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다. 동시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지향하는 법적 정의를 위한 모니터링 및 감시 활동이 크게 중요한 역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다.

처음 참여한 행사는 이전까지 공약 및 이행을 점검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들과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을 성실히 해낸 학우들을 표창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곳에서 활동을 처음 시작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3개월 동안 해내야 할 모니터링의 의무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국회의원 이행 점검은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해냈는지 그 현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활동이었다. 나는 2명의 국회의원의 모니터링을 맡았는데, 그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공약을 처음보다 추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첫날 오후를 통해 추가된 공약은 처음 국민과 한 약속과는 다르다고 말씀해주셨던 것이 떠올라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던 시간이었다. 공약의 이행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한 것에 대한 기사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과정과 추진 현황이 실시간으로 투명이 공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추진되지 않거나 근황을 알 수 없는 공약들도 여럿 있어 공약 이행을 점검이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느꼈다. 3회에 걸쳐 진행된 활동에서 공약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완결을 맺기도, 부진한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 국민이라면 자신이 행사에 표에 대해하여 이러한 과정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삼스럽지만, 공약 점검의 중요도에 대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다음은 번역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법률 용어를 번역하는 것은 일반 번역과는 차이가 존재하고, 일상적인 뜻과는 차별화되어 있어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자칫하면 해석 전체가 변화할 수 있고 문맥 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조문 내용을 자세히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미국 사법 및 절차법에 대하여 번역에 진행되었고, 내가 맡은 부분은 대통령 사무실의 일부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특정 계약 의무의 가정, 외국 판결, 기타 민사소송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영화 촬영 등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이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 영상이 제작자, 전송자, 이전자 등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분쟁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활동 말미에 그동안의 봉사를 생각해보니, 얻어가는 것이 많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초반에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다양한 활동을 접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어서 진행될 봄학기 활동에도 지원하여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 모니터링을 활동을 진행해보고 싶다. 특히 실질적으로 법에 대해 접해볼 수 있는 재판 현장이나 현장 견학에 참여하여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사 ○ 주

법학과에 재학 중임에도 법이라는 학문에 대한 지식을 배울 뿐, 실제로 법적 지식이 실제 판례에 어떻게 쓰이는 지 분석할 기회가 없었다. 특히 최신 판례는 더 그랬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직접 판례의 쟁점을 찾아 정리하고, 모르는 법적 용어를 찾아 그 의미를 찾는 과정을 통해 법적 지식이 함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법조인을 꿈꾸면서도, 법이라는 학문이 실제로 쓰이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서 평소에 내가 배운 법적 지식이 판례에 이런 식으로 녹아있고, 쟁점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조인이라는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예전에는 막연히 판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만 하였다. 허나 판결문 리서치를 거듭하면서 쟁점을 찾으며 읽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 뿌듯하다.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조사 또한 나에게 매우 뜻 깊은 활동이었다. 평소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공약을 걸고 선거를 출마하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의 어떠한 공약을 내세우고 그들의 공약이행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평소에 내가 얼마나 나의 투표권을 안일하게 행사하였는지 깨닫고 반성하였다.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 봉사를 하게 되어 너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봉사활동이었음에도 내가 얻어간 것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감사하고, 추천해준 친구에게 고맙다. 다음 학기에도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다.

○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서 ○ 우

작년 겨울학기에 이어 두 번째로 법률 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할 기회를 얻었다. 지난 봉사활동에 의정 모니터링과 법률 번역을 하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성취감이 들었고, 법률에 관한 관심도 작년에 비해 구체적으로 생기기 시작하여서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학업에 집중하고 돈을 벌기 위해 과외를 하는 등 생활적인 문제로 인해 봉사에 1년간 참여하지 못했었다. 그러다 이번 겨울 방학에 그나마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법률 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고 싶다고 생각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리엔테이션을 대신한 자료집을 보며 법률 연맹의 취지와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중 봉사활동이 가지는 가치를 살펴볼 때는 작년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에 뿌듯해지기도 했고, 이번 학기의 봉사활동도 성실히 해야겠다는 결심 또한 서게 되었다. 그 후 국회 현장학습을 통해 여러 의원들을 실물로 보니 신기했고, 의원들 중 법률 연맹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꽤 많아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필수 활동이었던 의정 모니터링을 신청하여 공약을 검토하고 이행률을 조사했는데,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느낌이 또 새로웠다. 그런 만큼, 물론 지난 번에도 최선을 다해 공약과 이행률을 조사했지만, 이번에는 더더욱 힘을 쏟아 최대한 정확하게 공약과 그 이행률을 조사했다. 지난 봉사자들 중에 착각을 한 인원들이 있는지 지난 차수에서 연이어 잘못 조사된 이행 사항을 발견하여 정정했을 때는, 새로운 자료를 검색하고 정리하느라 힘도 들었지만, 무척 뿌듯하고 쾌감까지 들었다. 하지만 지난번에 조사한 의원들과 달리 이번에 조사한 의원들은 공약 이행률이 비교적 낮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실이 아쉬운 한편, 다양한 의원들의 다양한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나름의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역 봉사활동에서는 일본 형법과 일본 공직선거법을 총 26페이지 번역하는 작업을 했는데, 특히 일본 형법은 지난번에 번역한 법률이라 마무리를 직접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높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일본 공직선거법도 한 번에 23페이지를 번역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지난 학기에 일본 형법 5페이지를 번역했을 때에 비해서, 해당 법률에 관한 이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직 체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그 세부 규정이나 용어

및 과정 등이 그렇게까지 낯선 느낌은 아니어서 흥미로웠고, 법률의 국제적 포괄성에 관한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고 이를 조사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또한 동시에 우리나라 법률과 차이가 있는 부분도 상당수 존재했는데, 이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법을 외국에서 본다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을 단순히 국내적인 범위에만 국한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에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여러모로 깨닫게 되었던 기회였던 것 같다. 한편 일본 법률은 특히 용어 면에서 우리나라 법률과 비슷한 구석이 많아서 번역하며 새삼스럽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쓸쓸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법률의 용어에 관해 개정에 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언젠가 들었던 것 같은데, 번역 작업을 진행하며 이에 관한 관심이 더 생기게 되어서, 봉사활동 작업이 끝나고 이에 관한 진행 상황에 대해 추가로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에 대한 흥미 증진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의정활동에 관한 이해와 일본의 법률 및 우리나라의 법률에 관한 인사이트를 기를 수 있었다. 이렇게 얻은 지식과 경험이 나중에 나의 사회적 이해력과 공정한 판단력을 구축하는 데 밑바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봉사활동에 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나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소중한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 계발도 하고, 더 나은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뿌듯함도 선사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 한양대학교 사학과 설 ○ 은

법은 대대로 두가지 역할을 해왔다. 하나는 사회의 질서를 정하는 자의 표면화된 권력으로, 또 하나는 19세기 이래 공화주의의 타협의 산물로 스스로의 확보해왔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연결점과 각각의 한계를 줄이기 위해 등장한 법은 그 존재만으로 다양성을 넘어 보편화되었다. 근래에 들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법이 존재하지 않은 국가나 대규모의 공동체를 보기 어렵다. 소수의 공동체 및 민족, 종교 결집체를 논외로 하고도 말이다. 보편화된 권리로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최후의 경계대상이 된 법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야 할 지 현대인들이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사회 봉사 활동은 성숙한 활동을 가능케 해주었던 참여 활동이었다.

법이란 존재 또는 이를 관할하는 사법부의 존재는 독립성을 이라는 중요한 명분이 있기에 시민사회와 거리를 둔다는 느낌을 항상 느껴왔다. 따라서 참여가 가능할 지 또는 시민 감시가 유용할지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오리엔테이션의 자료, 사법감시활동을 통해 확인한 불합리한 법적 절차를 보며 더 이상 눈을 감아선 안되겠다고 느꼈다. 아쉽게도 이번 과정에서 재판 과정을 자주 확인해보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한 법원을 보며, 실제 법적 당사자들은 얼마나 더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지 가능케 했다. 더욱이 이번 사회봉사에서의 특이점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법적 활동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이슈와 독립적

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연결관계 속 법적 절차의 준수 여부, 헌법 상 또는 선거법 상 비교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게 되어 우리나라에선 정치가 법 영역과 상당히 밀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의원의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선거집 내부에 미사여구를 제외한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선거의 공약이 되기에 유권자로서 이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공약에 속아 올바른 투표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번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를 중점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두번째로 판결문 리서치 과정을 통해 알게된 점은, 재판이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또는 일부 공공 영역의 문제를 다루기에 이 정보를 제 3자가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판결문 리서치에서 전문, 요약,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획득하는 과정이 활동의 80%를 차지한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가 제작한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를 통해, 지금 이 수준의 정보 공개도 과거에 비하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미루어 집착해 볼 수 있기에, 앞으로 공공의 이익과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은 선에서 판결의 공개 범위가 확장이 된다면, 이를 학습하는 학생, 법률가, 시민 단체의 점진적인 발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번역봉사에서 영국 변호인 행위 규범을 맡게 되었을 때의 감상이다. 법률가의 윤리 문제 또는 가치 및 신념에 관한 이슈는 점차 다양성 또는 엄격성의 범주이상으로 중요하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가 되었다. 과거와 다르게 개방적인 영역에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여론과 더욱 밀접해지고 관심이 과잉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가운데, 번역 봉사를 통해 다시금 정돈된 법률가의 의무를 세심하게 확인해 보면서 법률가의 역할과 한계를 파악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었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법이 가지는 의미, 방향성, 시민 감시의 중요성을 파악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정기적인 사회 봉사 활동 참여로 스스로의 능력을 함양하고, 같은 고민과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를 공유하고 나누고자 한다.

○ 국민대학교 법학부 공법학 전공 소 ○ 완

지난 가을 학기에 진행한 봉사에 이어서 곧바로 진행한 이번 겨울 학기 법률소비자 연맹 봉사활동은 저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크게는 번역봉사와 겨울 공약이행을 조사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번역봉사의 경우 미국 캔자스 주의 헌법을 번역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우리나라와의 차이점과 함께 미국의 해당 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학습하였던 지난 학기와 달리,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에 진행한 분량을 포함해 캔자스 주 전체 헌법의 약 80% 가량을 오랜 시간을 들여 번역을 함으로써, 헌법을 제정한 분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조항 한 조항을 제정하였는지를 깊이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하나인 헌법과 달리 미국은 주마다의 헌법이 있어서 이의 차이점을 엿보는 재미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캔자스 주만의 특징과 상황을 잘 반영하였기 때문에, 헌법 번역을 하였음에도 상당히 심리적

인 친밀감 역시 느낄 수가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된 법률용어 학습을 위해 이미 200개 이상의 영어 법률 용어의 의미와 그 용례를 학습하였음에도, 일반 용어임에도 법률용어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발견되어, 이번 학기에 번역 봉사를 진행할 때 역시 사전 옆에 두어, 맥락상 조금이라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단어는 곧바로 세부의 여러 뜻을 살피어 세심하게 영어 법률용어의 해석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서 영어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하는 업무를 맡게 되더라도 지금의 시간을 돌이켜보며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후 진행한 공약이행률 조사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제대로 정치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미디어를 통해 선거 기간이 될 때에 어느 정도 공약을 살펴보기는 하였지만, 이제는 그 세부 내용이 어떠한지, 지역에는 어떠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까지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약이행률 조사를 하기 위하여 각 공약별로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3가지 이상의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한 후 조사해나가면서 각 공약이 해당 지역의 목은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보았습니다.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산업과, 특이한 자연환경 및 도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잘 발전시키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많은 시도를 하였다는 점이 돋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경우에는 해당 공약을 잘 홍보하여 당선이 되었음에도 이후에는 등한시한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으로서의 현실적인 사업 착수 및 예산 확보에서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에 유사한 업무를 접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최선을 다해 양자간의 균형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깊이 살피지 못했던 소중한 분야를 관찰하고 조사하며, 빛이 비추지 않아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늘까지도 잘 살펴보는 세심함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역시 날카롭게 닦아갈 수 있었던 뜨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법조인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도, 희망하는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확신으로 가득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도움을 준 값진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경북대학교 생명공학부 손 ○ 장

법학도의 길을 걷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봉사 활동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인권법캠프나 법원 견학, 그림자 배심원 등 다양한 활동들을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법률소비자연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법 관련 봉사 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겨울학기 참가자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학기 필수 활동이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조사라는 것을 듣고 정말 뜻 깊을 거라 생각하여 참가 신청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종류에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여 그 중 먼

저 번역 봉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평소 번역 활동에 관심이 많고 즐겨하는 편이었는데, 처음에는 영국법정변호사행위규범이라는 법전을 해석하려고 하니 어렵고 생소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번역을 하면 할수록 단순한 문장 해석이 아닌 영국의 법과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석함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봉사활동은 언론모니터링이었습니다. 저는 생명공학부 졸업생으로 평소연구원의 처우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론모니터링의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여러 기사들을 수집하여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00건 이상의 기사들을 다 읽으며 관련 용어와 지식들, 몇 년 간의 변화들을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관심이 많았다하더라도 언론사들을 비교하며 정리하니 이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깊어졌습니다. 또한 각각의 언론사들의 특징과 행보에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쟁점들을 생각해보고 보고서를 써내가는 것이 저의 쟁점 파악능력과 앞으로 법학도로서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필수 활동인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조사가 저의 마지막 활동이었습니다. 두 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공약 내용, 공약 수, 진행 상황, 이행률 등에 대해 조사하여 엑셀 파일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저는 5차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였는데 저의 평소 생각과 다르게 진행된 공약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공약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변경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공약들도 있었습니다. 추후 더 깊은 조사 후 추진하겠다는 말들과 다르게 현실적인 문제나 여러 상황들로 막히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안에 대한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약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막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약이행이 되지 않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봉사활동이라 어려운 점들도 있었는데 질문과 피드백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판결문 리서치나 다른 언어의 번역 봉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손 ○ 수

저번 가을학기를 시작으로 법률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해보면서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 현장 학습을 기회로 난생처음 국회에 가보기도 하고, 또 번역 봉사활동을 통해 난생처음 외국법을 번역해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일본 공직선거법 번역 봉사활동은 제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언어인 일본어 공부에 대한 심화학습이 되기도 했었고, 또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법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학기에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활동을 하며, 그동안 선거 이후에 그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공약을 이행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제가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한 표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이번 봉사활동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제 행보를 매우 변화시켰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보다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되었고, 이 후보가 과거에 내세운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가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저의 소중한 한 표를 더욱 신중하고 가치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후에도 당선된 의원들의 공약이 추후에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은 저에게 심화학습 같은 활동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법을 전공하며 많은 판례를 접하고 배우지만, 정작 하나의 사건을 두고 1심부터 3심까지 그렇게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며 사건 흐름을 완벽히 이해해본 경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들이 얹힌 판결문을 천천히 읽고 정리해나가면서, 사건과 판례를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어 실제 전공수업에서 판례를 배울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법률연맹에서의 봉사활동 경험은 제가 민주시민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 다는 성취감과 사명감을 가지게 해주었고, 또 법학을 전공했고 앞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으로서 보다 심화된 법적 학습기회를 접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한 법률연맹에서 계속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 가천대학교 법학과 손 ○ 은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해본 대외활동이다. 법학과에 들어와서 학부 생활을 하다보니 전공 공부에 흥미가 생겼고, 자연스럽게 관련된 대외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매학기 봉사활동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기 중에는 학업과 알바, 동아리를 병행하고 있어 다른 대외활동까지 하기는 버거웠는데,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방학에도 진행하니 나같은 대학생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지였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신청한 후, 오티를 가게 되었다.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분들이 상을 받고 위촉장을 받는 모습을 보고 나도 방학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오티가 끝난 후 바로 봉사를 시작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방학 중 연장된 동아리 활동과 알바, 여학 공부를 하다보니 첫 봉사활동이 늦어졌다. 그 시간동안 조금씩이라도 봉사활동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첫 봉사는 [사법감시-판결문 리서치] 활동이다. 해당 활동을 첫 봉사로 선택한 이유는 전공 수업 중 비슷한 형식으로 과제를 제출한 적이 몇 번 있어 익숙한 방식이었다. 그래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활동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활동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2021두44425' 사건의 판결문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지난 학기 [민사소송과집행1] 과목을 수강하며 중요한 판례 중 하나라며 배운 적이 있다. 그때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암기 위주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해당 판결의 재판이 1심부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저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등이 알고 싶

어 선택하게 되었다. 그렇게 판례를 1심부터 읽어보고, 직접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중요 부분은 표시해가며 읽으니 이해도 더 잘되고, 머리 속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느꼈다. 앞으로 수업을 듣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직접 1심부터의 판례를 찾아 사실관계를 읽어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진행한 활동은 [의정모니터링-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였다. 이번 학기에 진행하는 활동 중 가장 기대되는 활동이었다. 총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직접 국회의원에 대해 조사해 보고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 사실 이전까지는 대통령 선거가 아닌 이상 공약을 살펴보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의원인지를 판단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해당 활동을 하면서 반성도 많이 하였다. 민주주의의 아래 주권을 가진 시민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주체적으로 살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다. 공약 이행률만을 따지고 봤을 때 “정말 이때까지 공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한 것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수가 저조한 국회의원이 있었다. 점수를 다 매기고 점검하면서 분명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다짐했을 건데 그걸 잘 이루지 못한 것 같아 많이 안타까웠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선입견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해왔었는데, 이런 소수의 의원이 그런 이미지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이었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해당 의원이 어떤 공약을 내걸었고, 저번 국회 때는 어느 정도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는지 찾아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한다.

[법정모니터링]은 내가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대학교에 들어와 우리나라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으로 이루어지고, 누구든 가서 방청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학교에서도 법원 방청 프로그램을 몇 번이나 진행하였는데 매번 일정과 겹쳐 아쉽게도 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재판을 방청하면서 봉사도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서 너무 기뻐다. 사실 나의 첫 법원 방문은 2024.01.29.(월)이었다. 오전 재판을 보기 위해 10:00 전에 법원에 도착하여 들어갔는데, 진행 예정인 재판부가 하나 있었다. 문제는 진행 예정인 재판도 하나였다. 일단 미리 들어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는데 예상대로 재판이 30분을 채우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버스를 타고 꽤 먼 거리를 왔는데 재판이 없어 결국엔 집에 돌아가 다른 활동을 하였다. 나중에 찾아보니 월요일에는 재판이 많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의 재판만 진행하여 많이 아쉬웠지만, 덕분에 다시 방청을 하러 갈 땐 덜 어색하고, 편안하게 방청할 수 있었다. 물론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 엄숙한 분위기에 왠지 놀리는 느낌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방청을 할 수 있음에 기뻐고, 재판을 감시하고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 흥미로웠다. 시간상 다른 2024.02.23.(금) 하루만 방청을 갈 수밖에 없어서 아쉬웠지만, 덕분에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판사, 검사, 변호사 어느 직업이든 모두 존경스러웠고, 어느

문제 하나 없이 깔끔하게 진행되는 재판에 사법부의 신뢰도가 한층 올라갔다. 나도 그들처럼 멋진 법조인이 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활동은 [언론모니터링] 활동이다. 가장 어려웠고, 가장 시간투자가 많았던 활동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얻어간 것도 많다. 평소에 네이버 뉴스에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 그날의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건 했어도 어떤 언론사의 성향이나 선호하는 주제 등은 모르고 지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 10대 언론사의 기사나 사설을 읽고 그들의 특징과 성향을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도 하고, 평소에 그런 활동을 시작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언론모니터링을 신청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다. “양이 상당히 많은 텐데 내가 다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활동이기도 하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쉽사리 도전하지 않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처음 써보는 형식의 보고서다 보니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할지도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래도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과거에 많은 분이 제출해주신 자료들을 올려놓으셔서 참고하니 차근차근 분량을 채워갈 수 있었다. 160개가 넘는 사설을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도 10대 언론사의 성향이나 특징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살면서 그렇게 많은 사설을 한 번에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읽어보니 글을 읽으며 해당 사설의 필자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다른 언론사의 사설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파악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처음 해본 활동도, 접해왔지만 그래도 새로웠던 활동도 모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한 것 같아 만족스럽다. 더 많은 활동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도 남는다. 이 아쉬움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다음 여유있는 학기에 다시 신청하여 이번의 아쉬움을 다 해소하여야겠다. 이번 활동에서 한 번 경험해봤으니 다음 봉사에서는 더욱 숙련된 상태로 활동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봉사자들이 계셔서 하루에 셀 수 없이 많은 메일을 답장하시면서도 친절히 피드백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하며 이번 봉사활동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송 ○ 영

지난 2023학년도 2학기에 로스쿨 진학을 결심했다. 경영학과 소속으로서 법과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관련된 과도 아니기에 이번 동계 계절학기에 법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어떤 활동이 있을지 검색해 보다가 다양한 블로그 게시물들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법률 전문 NGO이고, 국내 최대의 시민단체로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법정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 의정감시 활동, 번역 및 조사, 판결문 리서치 활동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봉사활동 중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 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자율적으로 느껴졌다. 또한 로스쿨 재학을 준비 중었기 때문에 법학적성시험 (LEET) 공부와 병행하여야 했는데,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충분히 재택 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따라서 2023년 겨울학기에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번 겨울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은 공약이행률조사였는데,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우리 학교가 위치한 동작구 국회의원의 공약을 살펴 보면서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었다. 사실 유권자로서 선거 때에만 공약을 살펴보고, 정작 당선 후에는 그 공약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그러한 인식을 반성할 수 있었다. 또한 어떤 의원이 우리 지역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여 공약을 내고 있는지, 그냥 아무 공약이나 '보기에 좋은' 공약을 붙여 넣기 하고 있는지 공약을 살펴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째로 진행했던 활동은 판결문리서치였는데, 지난 학기 학교에서 '노사관계론' 수업을 수강하며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논의나 학습지 교사들의 근로자성 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배웠다.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판례 외에도 스스로 이에 대해 찾아보고 싶었는데, 마침 최근 판례 중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가 있어 적극적으로 판결문리서치에 임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확장시킬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재미있게 임했고, 한편으로는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을 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많이 진행했던 봉사활동이자, 마지막으로 임했던 활동은 번역봉사였다. 외국에서 교환학생 중 해당 국가의 회사법과 관련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는데, 나라와 문화에 따라 법률이 다르다는 점을 신기해했던 기억이 나 신청하였다. 실제로 영국 변호사 규범과 미국의 사법 및 절차법에 대한 번역을 진행하며, 이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상당히 뿌듯했다.

법률소비자연맹과 함께했던 이번 겨울 방학은 대학 입학 이후 손에 꼽게 알차고 뿌듯했던 방학이었다. 처음 봉사를 신청할 때에는 주변에 봉사활동을 진행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려웠는데, 보내 주시는 매뉴얼이 상당히 친절하여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앞으로 법조인이 되어 어떻게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경희대학교 응용영어통번역학과 신 ○ 진

법 분야의 진로를 설정한 이후, 법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질적으로 법이나 법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현저히 적었다. 그래서 올해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소비자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소감문을 작성하며 올해 상반기에 참여한 활동들을 되돌아보니,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자부할 수 있다. 나는 다음의 4가지 활동에 참여했다.

(1) 공약이행률 조사

이전까지 나에게 정치는 투표를 제외하고는 거리가 먼 단어처럼 느껴졌다. 그저 '매니페스토'란 단어만 들

어봤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다. 뉴스를 볼 때 흔히 보는 '공약이행률'을 실제로 평가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공약이행률 조사를 할 수 있었다. 나는 경상북도 도지사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하면서, 막연했던 도 또는 자치시청에서 다루는 업무를 알게 되었다. 사실 '감언이설'로 느껴지던 공약들이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으면서도, 공식 홈페이지에 내부 관련자들이 업로드한 이행률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들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래 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다를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들 사이에서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조금은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내부자 또는 관련인들이 아닌 가치중립적인 제3자, 즉 일반 시민들이 더 찾아보고 알아보고 공유해야 함을 체감했다.

(2) 사법감시 배심원단

소비자법률연맹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난 활동이었다. 그 날 나는 어렸을 적 마산 지원을 가본 것을 제외하고, 처음 실제 법정 내부에 들어갔다.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을 통해 실제로 재판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다. 첫 공판이었기에 배심원단 활동은 생각보다 일찍 끝났으며, 드라마나 매체에서만 보던 것과 현실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단 코로나의 여파로 재판장 안에서도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마스크 때문에 검사나 변호사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아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첫 공판이라 그런지, 판사만 거의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판사는 쟁점을 소개하며, 법률 용어가 나올 때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3~4번 더 풀어서 설명하는 노력했는데, 뭔가 친절한 재판을 이끌어가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한편, 나의 환상이 깨진 부분들도 몇몇 있었다. 내게 있어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을 고려해 의뢰인의 입장을 더 강하게 대변하는 역할인줄 알았는데, 뭔가 의뢰인과 변호인 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활동 때에는 다른 재판 모니터링에도 참여하며 실제 법정에서의 활동을 조금 더 면밀히 체감하고 싶다.

(3)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또한 이번 봄학기 필수활동이었기에, 최대한 많은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부탁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어가 명확하지 않은 설문지가 있어 설문지의 뜻을 물어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내가 직접 만든 설문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바로 확답을 주기 어려웠다. 다음 설문조사 때는 이런 점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4) 번역봉사

나는 테네시주 헌법을 번역했다. 사실 다양한 장르의 번역을 해왔기에, 약간의 자신감을 보였으나 가장 어려운 활동이었다. 테네시주의 역사, 미국의 정치구조 정도만 알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을거라 예상했으나, 지리적 정보와 법률에서만 쓰는 조동사, 고어들이 내 발목을 잡았다. 특히 공식적으로 한국어로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지명이 여러 있었다. 그리고 헌법이라면 당연히 20단어 내로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있을 줄 알았는데, 한 페이지가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조항도

있었다. 다음에 또 번역 봉사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시간을 여유있게 잡으면서 다른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고 싶다. 이번 학기에는 계속 메일이 누락되어,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 개인봉사 시작이 조금 늦어졌다. 다음에는 더 빨리 문의를 드려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야겠다. 아쉬움이 많은 봄학기 봉사활동이었으나, 여름학기 봉사활동에서는 그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전공 신 ○ 선

저는 지난 기간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 법조문 번역, 그리고 국회 현장학습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소감문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생각, 그리고 활동을 진행하며 배운 점 등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겨울학기 봉사활동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목표와 활동 내용, 참여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봉사활동의 목적과 법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법률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참여자들을 위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약과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치인들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조문 번역:

법조문 번역은 전문적인 지식과 정확성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 활동을 통해 법률 텍스트의 이해와 번역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법조문의 정확한 번역은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기쁨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회 현장학습 봉사:

국회 내부의 작동 메커니즘, 의원들의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정책 평가 방식을 가까이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이해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의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제 대응 방안을 고민해봄으로써 정책 제안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들은 제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먼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법률과 정치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시민의식과 사회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큰 영감을

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능력을 토대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봉사를 통해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소비자연맹과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봉사와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덕성여자대학교 법학전공 안 ○ 원

2023 겨울학기 봉사활동으로 의정모니터링과 4번의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하였다. 특히 판결문리서치는 매 학기마다 꾸준히 하는 활동이자 내가 가장 본 활동을 통해 가장 많은 부분을 배우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 느끼는 점은 판사들의 판단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움의 값어치가 크게 다가온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남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재판장이 판결문을 작성할 시에 심혈을 기울여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된 일련의 과정들을 분석한 것이기에 판결문을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재미도 있다. 민사, 형사, 재항고 등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판결문 간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흥미를 느끼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열심히 꾸준히 하여 판례 공부를 해나가고 싶다.

그리고 이번 학기 필수활동으로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두 차례정도 하였다. 우선은 제21대 국회의원 공약 점검과 공약이행률조사를 동시에 해보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내세웠던 공약들을 취임기간동안 이행에 나아갔는지 까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실제적인 공약이행률 점검해보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이니 책임감을 가지고 본 활동에 임하였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울의 정청래와 경기도 용인시병의 정춘숙 국회의원들은 공약이행률조사에서 다소 점수들이 낮게 평가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주로 추진은 하였으나 다른 의원에 의해 시행되거나 관련된 정보 자체를 미확인되는 것이 상당수여서 국민으로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하지만 공약점검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이행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니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이미 유사한 공약이 진행되고 있어서 본 국회의원들이 시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바람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믿고 뽑아준 만큼 매사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본인들의 지위를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다면, 보다 국민들과 국가간의 다리가 되어주는 국회의원들의 지위가 더욱 인정받고 신뢰를 받고, 국민들도 이들을 진정 믿어주는 긴밀한 상호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졸업 안 ○ 진

법률소비자 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 한건 이번이 처

음이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은 있지만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은 저에게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졸업 후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우선은 주말을 통해 할 수 있는 봉사인 번역활동 봉사를 신청하여 미국의 선거법의 일부 번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어번역은 종종 영문서적을 읽을 만큼 좋아하고 예전부터 한국의 법과는 다른 부분이 많은 미국의 법에 대해 관심이 있었기에 흥미를 가지고 매주 주말마다 일정 시간을 정해서 번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법률 체계에 대해 찾아보며 공부할 수 있었고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영문 법률 용어들에 대한 지식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조문체계와 미국의 조문체계를 비교해서 번역하는 것이 어려워서 담당자 분께 질문도 했었는데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덕분에 그 뒤로 번역 과정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몇 년 전 점자도서관에서 일반 서적을 점자로 변환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드는 봉사를 할 때도 시력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을 시각장애인들은 읽을 수 없기에 나의 봉사 활동이 그들에게 더 다양한 지식을 습득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번역활동을 하면서도 그때와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번역기의 기능이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해도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된 내용을 이해하며 읽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오독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영어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노력을 들여 번역을 하면 미국의 법에는 관심이 있지만 영어라는 언어의 벽 때문에 한정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던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런 경험 덕분에 자신이 잘 하는 분야의 봉사에 지원하게 되는 선순환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봉사를 통해 제 스스로의 언어 실력과 법률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으니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저 자신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의 봉사활동은 일년에 4번, 4학기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봄학기에도 봉사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한 번의 봉사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봉사를 통해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저 스스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경험들을 쌓고 싶습니다.

이번 겨울 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 조사는 제게 모르던 사실을 많이 알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투표를 할 때는 앞으로의 공약들만을 보고 투표 후 그 이후 얼마나 공약이 지켜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약이행률 조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공약을 지키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생각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일상과 맞닿은 공약들이 지켜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더 나은 경제·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보고 투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은 선거에서도 좀 더 세세하게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보고 재선의 경우 이전의 공약들이 잘 지켜졌는지, 초선의 경우 공약들의 실

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고려대학교 사학과 여 ○ 경

약 2개월 남짓의 시간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2024 겨울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 중 제가 참여했던 것은 국회의원의 공약 점검 및 공약 이행률 조사와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먼저 공약 점검 및 공약 이행률 조사를 진행하며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권이 없던 어린 시절 정치인들의 공약이 무엇인지 책자를 들추어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공약이 담긴 책자가 배달되면 경쟁하는 후보들의 책자를 펼쳐놓고 공약을 구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국민으로 하나의 책임을 다하게 된 나이가 되어서는 모든 공약을 주의 깊게 살피기 보다는 몇 가지 핵심 공약만 보았고, 책자도 펼쳐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후보가 당선된 후에도 그 공약이 얼마나 잘 달성되고 있는지 직접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 기회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을 잘 지키는지 찾아볼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국회의원은 제가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국민의 대표로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를 결과를 통해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률을 판단하면서, 어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공약을 내건 국회의원 한 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정부 등 다른 정치 주체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아쉽게 남았던 점은, 국회의원들이 내거는 공약들이 100개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다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건설과 같이 중요한 공약이 아니면 신문기사로 잘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공약이 지켜졌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다는 점도 활동과정에서의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주로 수도권 행정의 집중하고 있다보니 지방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활동이 잘 보도가 되지 않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안타까웠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에는 실제 판결문을 전부 다 읽어본 적이 없고, 각 문단이 너무 길어 집중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용어의 어려움보다는 문단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너무 길고 그러다 보니 문단이 길어져 일반인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판결문은 판결 요지가 명확히 나와있어 해당 판결이 무엇을 쟁점으로 했고 법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쉬웠지만 아예 판결 요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누가 승소하고 패소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어, 판사들이 판결문을 작성할 때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긴 글을 읽고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바꾸거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논리력과 독해력의 함양, 그리고 판결문과 법리에 대해 익숙해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활

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어떤 법조인, 어떤 시민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 명의 청년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오 ○ 준

법조인의 꿈을 가지게 된 후 법률 관련 봉사활동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다니다가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이 있지만 나의 관심사에 따라 번역봉사활동, 판결문리서치와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모니터링을 신청해서 활동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등재된 사건들 중 하나를 골라 판결문을 일반인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정리하는 활동이었다. 법조인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판례와 판결문일 것이므로 기대가 되기도 했다. 처음에 판결문을 접했을 때는 내용이 쉽게 잘 읽히지 않아 요약 및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회독 3회독하면서 사건 쟁점과 요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판결문을 보다 쉽게 정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고 판결문을 읽으면서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떠한 과거재판 결과에 근거하여 등의 여러 재판결과나 참고법률들을 예시로 들어가며 쟁점의 결론을 도출해 가는 과정이 논문을 읽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느꼈기에 더욱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번역봉사 활동은 전공분야를 살려 외국의 법률을 번역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분야로써 타국의 법률단어나 특정 약어를 찾아다니며 해당 국가의 정치상황, 법률체계, 법률 과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학기 필수활동이었던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를 참여했습니다. 각 의원들이 공언한 선거공약들과 실제로 이행한 공약을 비교하며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직접 점검해보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선거철에 의원들이 공약을 남발한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모니터링해 본 의원들이 생각보다 자신들의 공약을 지켜나가고 입법한다는 것을 깨닫고 편견을 깨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 활동은 단순히 정책 결정 과정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의원들이 포퓰리즘적으로 공약을 남발만 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입법활동과 정책 개진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약을 감시하고 점검하며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오 ○ 빈

대학 졸업 이후 법률전문대학원 입학준비를 하던 와중에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고, 이번 2023년도 겨울학기 봉사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공계 전공 특성상 법조계의 활동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기에 로스쿨 준비를 하면서 좋은 활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지난 3개월 동안 판결문 리서치, 언론모니터링,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본 결과, 법률·시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지는 등 실제로 제게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판결문 리서치는 법률적 이해와 통찰력을 키우는 데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리서치를 신청할 때 6차례 모두 제 전공과 관련된 판례를 선택했는데, 이는 학교 식품위생법 강의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내용이 실제 사건과 판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판결문의 긴 문장과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판결 전문을 다수 번 반복해서 읽어야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점차 용어와 판결문의 형식에 익숙해지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적 논리와 근거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타당한 논리적 주장을 구성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판결문에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영향으로 인해 일본의 법률 및 행정 체계가 한국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일본식 한자어가 수용되고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일반인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점차 판결문 작성에 있어서 일본식 한자를 순수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등 이러한 단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언론모니터링 활동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힘든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1월 3주차, 2월 1주차, 2월 4주차 총 3차례 참여했는데, 매일 신문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일주일 동안 10개의 일간지에 게재된 모든 사설을 읽고, 분야별·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꽤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치 분석을 다 끝내고 나면, 뿌듯함도 가장 크고 얻은 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설 분석 활동을 통해 가장 발전했다고 느끼는 점은 사설에서 논지와 논거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초반에는 사설이 짧은 길이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논지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많은 사설을 접하면서 그 어려움이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언론사 간 논조를 비교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각 언론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나 논조를 비교 분석하면서 언론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생각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차에는 진보 혹은 보수 언론사가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사설을 작성하지 않는 등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언론의 역할은 공정하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여 공론화를 촉진하고 시민들이 정보에 기반하여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언론사들이 더욱 공정하고 균형있는 보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는 국회의원들이 선거 공약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이었고, 공약 이행률 평가는 단순히 이행 여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행 과정의 배경을 함께 비판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 활동을 통해 유권자로서 선거 공보를 꼼꼼히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기게 되었는데, 일례로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은 공약의 90%가 소속 정당의 공약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의 공약은 보통 해당 정당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방향성을 반영하는 것인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공약이 핵심적으로 제시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조사 내내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유권자로서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상세히 비교하고 투표에 참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근간이므로 자세한 비교와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지난 3개월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으며, 로스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좋은 밑거름이 된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번이 첫 활동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친절하게 피드백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측에 감사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우 ○ 현

평소 법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형법, 민법, 상법 등의 다양한 법 강의를 학교에서 수강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해서는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마음 한편으로는 법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깨졌던 순간이 학교 '법학통론' 강의였습니다. 법학통론 강의에서는 여러 법 분야의 기초적인 부분을 배웠는데, 이때 당시 교수님께서 지나가면서 하셨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헌법에 관해 설명하시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 관해 교수님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는 단순히 법조인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요새 악플과 같은 마녀사냥 행태를 보면 국민들이 이에 대해 잊은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던 법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러한 교수님의 말씀이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조금 더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저의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활동이라 생각되어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진행한 봉사활동은 의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언론 모니터링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평소에 판례를 잘 읽을 기회가 없어서 판례를 읽어보는 것 자체가 신선하게 다가왔지만, 그 내용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부정기형에서 정기형으로 바뀔 경우, 형량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하는가에 대한 판결이었는데, 평소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였습니다. 소년

범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부정기형으로 선고해야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년범이 재판 중 성인이 될 경우 형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해본적 없었습니다. 비록 대법원 판례만 27페이지로 읽고 이해하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읽는 내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신경쓸게 많다는 점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가 가장 인상깊은 활동이었다면, 언론 모니터링은 가장 즐겁게 한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언론 모니터링으로 경제지 사실 분석을 하였는데, 평소 사실을 잘 읽지 않았기에 사실 하나하나가 매우 신선했습니다. 비록 100개가 넘는 사실을 전부 읽고 분석해야 했기에,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같은 주제에 대해 언론사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등등을 파악하면서 읽었기에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아했던 것은 경제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보다 정치 분야와 사회 분야 글이 더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경제보다는 정치와 사회적인 이슈를 더 좋아하기에 아예 경제 사실만 쓰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 사실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8개의 언론사의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언론사별 특징이랄 것 없이 대부분의 사실이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실만 복제가 되는 지금의 실정에 관해 한 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저의 인식을 바꾸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 생각했던 법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생각보다 치밀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몰랐던 부분을 채우고, 더 나은 리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유 ○ 영

I. 들어가며

대학 수업을 제외하고는 법과 관련해 알아보기나 분석해 볼 기회가 적다고 느껴 방학동안 수업 외의 법과 관련된 활동을 해보고자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자신이 살고있는 현실에서의 법을 가까이서 접해볼과 동시에 지역사회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II. 국회 현장학습

앞으로의 봉사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할지 정하기 위해 국회현장학습에 참여했다. 이전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학생분들을 보며 자신도 성실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하리라 다짐했었다. 축사와 함께 상장수여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새삼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바라는지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스스로 그러한 중책을 맡은 이상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잃지 않고 그 신뢰에 보답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새삼스럽게 국가와 정부기관, 국민의 관계 및

구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또한 곧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유권자로서 신중한 판단과 적극적인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다.

III. 의정모니터링-공약점검 및 5차 공약이행률조사

이번학기 필수 봉사활동인 의정모니터링활동을 신청하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싶었지만 기회를 스스로 만들지 못해 제대로 접하지 못했던 국회의원들의 공약과 그 이행의 정도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다. 각 국회의원을 배정받고, 공약들을 읽어보며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지역 시민들은 어떤 것을 바라는지와 그 지자체만의 오랜 숙원사업 등도 알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공약들도 있었지만, 조금은 터무니없어 보이는 공약도 공존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록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이나 방법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며 단순한 목표뿐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주고, 실현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공약들은 과감히 제외하는 편이 국민들이 해당 공약과 국회의원을 판단하기 용이하고, 신뢰도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공약이행률 조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정보가 너무 없어 조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부분 뉴스 기사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예 지자체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것이나 시행중이라는 두루뭉술한 현황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렇게 공약을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알기 어렵게 해둔다면 일반 시민들은 확실히 지역구의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이러한 공약을 목록화해서 현재 어떤 방식으로 시행중인지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일반시민들도 쉽게 검색하면 알 수 있도록 각 목록마다 이행과정과 보고서 등을 첨부해둔다면 국회의원으로서도 스스로의 공약과 발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을 위해 더욱더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활동을 마치며,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가고 있는지를 좀 더 가까이서 알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다른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더 관심 있게 보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IV. 판결문 리서치

법학부로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활동이었다. 강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각 사건마다 어떤 판결이 나고 항소와 대법원의 판결 등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대한 만큼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요약되거나 판결요지만 있는 판결문이 익숙하고 전문을 읽어보는 것은 처음이었ند지라 처음에는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번째 판결문 리서치를 작성할 때 즈음에는 많이 익숙해졌다. 같은 사건을 두고 거듭 판결이 나오면서 원심과 큰 차이 없이 마무리

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뒤집혀 기존 지방법원에 송부해버리는 판결도 있었다. 동일한 사실관계와 법령임에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V. 마치며

지난 두달간 다양한 활동을 하며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바람직한 사회에 이바지했다는 뿌듯함과 보람이 더 컸다.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었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해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웠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생긴다면 이번엔 해보지 못한 법정모니터링이나 언론모니터링과 같은 활동들과 함께 우리사회의 여러 면을 관찰하고 개선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고찰해 보고 싶다.

○ 한양대학교 철학과 유 ○ 연

-의원모니터링 소감-

어려움 : 국회의원들의 공약문의 형식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의 활동이 어느 한 곳에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원모니터링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모니터링했던 두 의원의 공약들만 비교하더라도 분량이나 구체적인 정도에 있어서 크게 상이했습니다. 공약사항들의 분량과 구체성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을 서술하는지에 따라 공약문의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약이 매우 구체적이고 방대한 공약문은 관련 활동방향이 조금만 달라져도 공약이행여부가 달라지기에 난이하고, 반대로 양이 적고 집약되어 있는 공약문은 공약의 범위가 넓어서 해당 의원의 활동이 대부분 해당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명의 활동을 추적하는 데에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해당 봉사활동 보고서가 가지는 영향력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평가의 객관성이 이번 활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의 : 의정모니터링 활동이 겨울 봉사활동의 필수였기 때문에 활동의 동기는 비록 적었지만,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앞서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긍지와 마음가짐을 되새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었던 활동임은 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입법기관의 흐름을 단순히 정권쟁탈전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의 공약방향성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시적인 시각으로까지 확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들의 활동을 추적하는 데에 소요시간이 상당했지만, 국회의원 한 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 나라의 유권자가 가지는 표 하나가 사회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소감-

법정모니터링 신청 동기 : 저는 향후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법조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싶었고, 이러한 동기로 여러 봉사활동 중 법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만 매몰되어 스스로의 궁극적인 꿈으로부터 동기가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판과정을 분석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려움 : 법원에 내방한 경험은 있었지만 공개재판을 방청한 경험은 전무해서 봉사활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입장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자가 모니터링해야 하는 법원이나 법관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공개재판 방청방법에 대한 설명도 대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집 근처의 법원부터 유선 조사, 현장 방문을 하여 공개재판 참여 방법을 일일이 물어보았는데, 주간 재판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매일 오전에 법원에 내방하여 당일 공개재판을 직접 게시판에서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 정도 허탕을 치면서 법원 규모가 큰 곳에서 법정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실패의 위험성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서울중앙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방하였고, 서울의 중심 법원인 만큼 매일 오전과 오후에 분단위로 공개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개재판을 방청하기 시작부터는 법정모니터링 봉사활동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 및 의의 :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하나의 재판부의 여러 재판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재판부의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한 재판부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다른 재판부의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함에 있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청한 재판부에서 연속되는 여러 사건들의 모든 내용을 메모하면서 재판 모니터링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무작정 재판 과정을 메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모니터링 관찰보고서에 있는 질문 사항들 위주로 재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어기고 있는 법조인들은 없는지 살피는 것을 중점으로 사건을 메모했습니다. 짧은 재판은 10~20분 정도에 종결되지만 긴 재판은 한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하기 때문에 관찰 기준점과 집중력은 필수 덕목이었는데, 관찰보고서 덕분에 재판을 보다 객관적으로 집중해서 평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법관마다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과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학자들의 우려사항들이 결코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총 세 곳의 재판부를 모니터링하였는데, 방청한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형사재판부와 서울중앙고등법원의 형사재판부로 두 곳의 단독재판부와 한 곳의 합의재판부를 방청한 것입니다. 고등법원에서의 재판은 합의부이자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의 규모가 크고 방청하는 인원도 많았으며 법조인들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적극적이며 엄숙했습니다. 이는 실제 방청하기 전에도 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재판부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놀라운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단독 재판부였던 지방법원의 민사/형사부의 재판은 위와 상이했습니다. 재판을 구성하는 인원도 현저히 적었고, 엄숙함 정도도 달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대한 논문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위원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논문 발표회를 개최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곧, 민사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단독재판부의 재판은 제출된 증거 자료의 논리와 신뢰성, 그리고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따지는 분석 작업의 현장이었고, 법관의 태도가 서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전술했던 사법부의 정치화로 연결되는 것인데, 당사자들의 태도나 호소력보다도 자료를 분석하는 법관의 관점이나 태도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쉽게 달라질 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관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도 이 사회에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유 ○ 진

세 번째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봉사활동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오리엔테이션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아쉬웠지만 국회주권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이었다. 이후에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을 하였다. 국회의원의 임기동안 공약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내가 직접 조사해보는 활동이었다. 평소에 정치에 많은 관심이 없었던 나에게 좋은 활동이었다.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많은 공약이 있는지 몰랐고, 국회의원들이 바꾼 작은 변화들이 나라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내가 잘 모르는 지역의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을 조사해서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아쉬웠다. 다음에 나의 고향에 있는 국회의원의 공약을 조사하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했다. 불학기 봉사부터 꾸준히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기분탓인지 모르겠지만 판결문을 읽는데 훨씬 잘 읽힌다고 느껴졌다. 예전에는 쟁점을 찾는 것도 어려웠는데 두번정도 읽어보면 이제 쟁점이 무엇인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다. 또한 어렵다고 생각했던 법률용어도 여러 번의 판결문리서치를 거쳐보니 익숙해졌다. 이제 시간상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판결문을 읽고 쟁점정리를 하는 활동은 혼자서라도 꾸준히 해볼 생각이다. 전공이 법학부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쉽게 읽는 것은 정말 도움되기 때문이다. 일년 동안 여름학기 빼고 모두 참여했던 봉사활동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재택에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나처럼 희망하는 진로가 법조인이란던가, 법학에 관심이 많은 내 주변사람들에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앞으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울 뿐이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을 돕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연대성과 상호의존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경험하면서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봉사활동은 또한 나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나는 내가 소속된 사회와의 유대감을 더욱 높일 수 있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모습

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나 자신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나의 봉사활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관과 사명감을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는 이러한 가치와 사명을 지키며 미래에도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 나의 작은 노력이 어떤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은 결국 사랑과 관용,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과정이며,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 이화여자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유 ○ 현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저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다양한 법학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중 하나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참여한 봉사활동은 총 세 가지로,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조사, 법정 모니터링, 그리고 번역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활동은 이번 학기 필수 활동으로, 국회의원인 선거 당시 세운 공약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활동입니다. 이전에는 국회의원의 주요 공약 정도만 알고 있었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상황을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공약 또한 국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 역시 국회의원의 공약을 잘 알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건강한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법정 모니터링에 참여했습니다. 이 활동은 원하는 법정에 방문하여 재판을 방청하고 운영 상황과 내용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제가 참여한 봉사활동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실감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원래는 허가를 받은 사람만 재판에 들어가서 방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부 재판을 제외하면 누구나 원하는 재판을 볼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권리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법학 과목을 수강하며 이론적인 지식은 일부 쌓았지만, 실제 재판을 관람해보니 우리나라의 법을 보다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재판의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대략적인 재판의 흐름과 판사, 변호사, 검사 등의 재판 구성원의 역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만 이번에는 방청하였는데, 다음에 또 법정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면 민사, 행정 재판 등 더 다양한 재판을 보고 싶습니다. 만약 법률소비자연맹의 여러 봉사활동 중 하나만 추천해야 한다면 이 활동을 선택할 정도로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역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법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활동으로, 저는 이번 학기에 영국 변호사 행위규범과 미국의 사법 및 절차법을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언어의 법문서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배포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나라의 법률 정보로의 접근이 더 용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법률을 번역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내용과 비

교할 수 있었는데, 비슷한 점도 있었고 차이가 나는 점도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나라 별로 가진 고유한 특성에 따라 법 또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 법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번역 봉사 활동은 법률에 대한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법학 이론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학이라는 분야가 실생활에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봉사활동을 통해 접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겨울 학기 기간이 짧아서 보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해 못했지만 다음에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학 지식을 더욱 쌓아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재판의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유 ○ 희

저는 원래 전공이 이공계열이라 법 분야와는 거리가 있는 공부와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분야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실무를 하고 크고 작은 계약과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법 분야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더욱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강의를 들으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실제로 더 다양한 법 분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법률소비자연맹에 봉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트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국회모니터링 행사를 실제로 참여하며 이번 겨울학기의 필수봉사인 국회모니터링 자료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구나를 직접 보게 되어 신기하기도 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었나 궁금했었는데, 이러한 봉사 연맹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국 선거법 번역 봉사를 했습니다. 일상 영어에는 거부감이 없었지만, 의외로 법조문에서 흔히 사용되는 영어 단어들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고, 30장을 번역하며 영어단어들이 한국의 법률 용어들과 어떻게 대응되는지 전반적인 패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실제로 한국 법률용어는 어떻게 쓰이든지 찾아보게 되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선거와 별개로 미국의 선거는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법조문을 통해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에서 가장 재미있게 진행했던 것은 공약이행을 조사였습니다. 사실 일부 속한 지역이나 화제가 되는 공약 이외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외 인천이나 부산의 국회의원 공약도 확인하며 이런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이 주력으로 운영되고 있고 필요하며 앞으로 꼭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사들과 뉴스를 찾아보며 그간 무심하게 지나쳤던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슈들과 실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공약이 내세워진 후 어떤 절차를 통

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과 확실한 의지가 보이는 공약 등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유 ○ 원

처음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주변에서 해본 사람들의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신청하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각 활동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재밌을 것 같아서 '법정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에 신청했다. 겨울활동 필수활동으로 '의정모니터링'까지 총 4가지의 활동을 하였다.

'법정모니터링'은 실제로 법원에 가는 거라 처음에는 부담감이 컸다. 재판을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1월 12일 무작정 법원으로 갔다. 여러 재판부에서 민사사건,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방청을 하는데 재판장은 생각보다 작았고, 방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형사사건은 많이 들어본 용어들이 나와서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다. 다만 처음이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체크하면서 듣느라 조금 힘들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외국인이었는데,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 재판이 미뤄졌다. 방청객은 나밖에 없어서 사실 조금은 무서웠다. 살인이나 폭행, 추행 등의 재판은 웬만하면 방청하는 것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민사사건은 용어와 사건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심지어 재판이 짧게 마무리되어 해당 재판만으로는 완벽히 파악할 수 없었다. 원고와 피고가 직접 참석하기도 하지만, 대리인이 나온 경우가 많아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법정모니터링은 법원에 직접 방문할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고, 방문했지만 진행 중인 재판이 없어서 여러 번 방청하지 못했다. 아쉬움도 있지만, 앞으로는 꼭 봉사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난다면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 방청을 해보고 싶다.

'언론모니터링'은 1월 다섯째 주 10대 일간지의 사실을 분석했다. 평소 헤드에 뜨는 기사나 사실을 봤었지, 자주 보는 언론사가 있거나, 언론사를 고려하고 사실을 보지 않았다. 10대 언론사의 사실을 분석해보니 다양한 분야와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영화, 연극, 음악 등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문화 분야 사실이 적은 건 아쉬웠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활동이었고 분석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알아보는 것이 의미있었다. 스크랩북을 만들면서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단순히 작업만 하지 않고, 사실들을 하나씩 읽고 분석하면서 식견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정치 색깔이 뚜렷한 언론사들이 있는 걸 알았지만, 사실에서는 생각보다 공격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나라의 언론을 책임지는 10대 일간지인 만큼 하나의 주제와 의견만 고수하지 않고 다양하고 균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판결문리서치'는 법과 가까워지고, 많이 배울 수 있는 활동이었다. 학교에서 법 수업을 들을 때 사건의 판결문을 읽어보고 쟁점을 분석해보았지만, 하나씩 파헤쳐 보는 건 처음이었다. 재판당사자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 많아 찾는데 어려웠지만, 대리인들의 정보를 알아보고, 재판 승소율까지 파악할 수 있어 재밌었다. 판결문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직접 정리해보면서 사건을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설문을 작성하면서 직접 재판 당사자, 판사, 제3자가 되어볼 수 있었고 여러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법조인이 되어서도 사건을 한 쪽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의정모니터링'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자유롭게 선택해서 조사하는 것이었다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랜덤으로 주어진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할 수 있어 좋았다. 광주광역시 북구갑 '조오섭' 의원과 서울특별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을 조사했다. 지역과 당에 관계없이 두 의원이 비슷한 개수의 공약을 내었고, 이행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사실 공약으로 내세운 일들을 혼자 하긴 어렵다. 국회의원이 주도적으로 이행한 것도 있지만, 같은 당이나 국회, 정부 등 다른 곳에서 수행한 일들도 있어서 온전히 그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에 포함해야하는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다. 국회의원을 뵈을 때 그 사람의 행적, 공약 등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뵈긴 어렵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서 생각보다 쉽게 정보를 알 수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생각보다 한 활동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마음 먹고 하면 금방 끝내는 일들이라 방학 동안 틈틈이 활동해서 좋았다. 학기 중에는 많은 활동을 하기 힘들겠지만, 또 봉사활동을 신청해서 다른 주제들로 활동해보고 싶다.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유 ○ 석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두 번째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판결문리서치를 통해 주로 관심있었던 형사법 분야는 물론 민법, 행정법 전반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임은 물론 각 법 간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해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공약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매번 같은 것을 사용하거나 약속한 공약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법률 관련 봉사를 할 수 있는 한편, 법학 전반에 대한 실전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봄학기에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며 우리나라가 사법정의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윤 ○ 린

벌써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한 시간이 두 학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마치고 봉사활동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은 시간이나마 학교에서 별도로 법학과목을 수강하고 있지만, 봉사활동을 통해서 실제 상황에서는 법이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고 적용되는지 알 수 있는 기회

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꼭 참여해봐야 할 봉사활동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난학기에는 필수봉사활동인 국정감사모니터링 외에 번역봉사와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겨울학기에는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보고자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두44392 [주거비이전등], 대법원 2023다249661 [토지인도] 두 판결문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다249661 [토지인도]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명확하였고, 쟁점 또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에서 수강한 '현대생활과 법' 과목에서 일부 배운 내용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내용의 해석을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일방당사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한 내용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2022두44392 [주거비이전등]의 경우 제1심에서 원고가 58명, 제2심에서 20명, 제3심에서 10명으로 많았기 때문에 판결문이 매우 길었고,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원고의 상황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분량상 보고서에는 모두 작성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일관된 법적 기준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한 사례와 법률 조항의 용어를 법률의 취지와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해석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을학기에 이어 겨울학기에도 번역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학기에는 미국 사법 및 절차법을 번역하였는데, 새로운 용어가 많고 한국어에 대응되는 말이 없는 단어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번역봉사는 외국의 법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문화와 일반상식을 추측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번역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학기 필수활동이었던 공약이행률조사에 대한 소감입니다. 흔히 공약은 선거철에만 이용되고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이행률조사는 이러한 공약이 실제로 실현되었는지, 실현되었다면 그 과정과 결과에 당선인이 어떤 식으로 기여하였는지, 실현된 후에 문제가 없었는지 알아보는 작업이었습니다. 공약이 수십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오래 걸렸지만, 나와 관계가 없어 잘 알지 못했던 지역의 이슈를 알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에는 당선인 개인의 노력, 국가의 협력, 국민의 감시 및 적극적인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이 ○ 겐

평소에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던 분야의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법률 봉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점검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서 시작할 때 판례분석하는 것이 너무 낯설어서 막막했고 용어혹은 사실관계 확인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었지

만 하나씩 해나갈수록 아는 지식도 많아지고 이해 가는 것도 많아져서 뿌듯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관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스스로가 느껴질 만큼의 지식 습득과 성장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기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례들은 어떤 판결이 나올까 어떤 법리를 이용할까라고 막연히 궁금했던 사례들을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사례와 판결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지식들을 쌓아나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분석했을 때 서로 다른 매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형사사건은 사례 자체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고 어떤 판결이 나올까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은데, 민사사건은 하나하나 법리를 따져가면서 싸워나가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이름은 봉사활동이지만 이 활동들 덕분에 오히려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소비자학과 이 ○ 민

이번 학기 무사히 봉사활동을 잘 마무리한 것 같아 기쁩니다. 예전에 학교 동기가 소개해주던 봉사활동으로, 학과에 걸맞는 단체에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 국회행사에 참석을 위해 국회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는 설렘이었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이 공약 이행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해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으며, 저 또한 겨울학기 필수 봉사였던 공약이행률 조사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공약 이행을 조사를 하며 가장 놀란 점은 그 작은 팜플렛 속에 수많은 공약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충보고 버리는 용도였지만, 세심하게 따져볼수록 많은 공약들이 나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물론 같은 공약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넣어서 공약 부풀리기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진짜 활동을 찾아보면서 그저 끼워 넣은 것이 아닌, 진짜 다양한 지역의 니즈를 충족하는 공약을 수행하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법률 번역 봉사를 하면서, 미국의 여러 법절차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도 잘 모르지만, 미국의 법을 번역하며, 우리나라의 법을 조금 더 알고 한다면 조금 더 번역이 수월해지고, 여러 지식을 쌓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번역 활동을 하며 법 지식과 영어를 익힐 수 있었으며, 국회 현장학습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모습과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었고, 공약 이행을 조사를 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덕성여자대학교 법학과 이 ○ 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처음으로 해본 봉사활동을 잘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소감문을 작성합니다. 우연히 친구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된 봉사활동이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법 관련 봉사활동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땐 너무 딱딱한 활동만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번역이나 작곡 같은 다양한 활동도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제가 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와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조사입니다.

먼저 판결문 리서치는 처음 작성할 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이 조금 있었지만 여러 번 작성하니 적응이 되어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긴 판결문을 읽고 요약하고, 논점과 근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뿌듯하고 보람도 큰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학과를 재학하고 있어서 판결에 대해서는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긴 판결문 전문을 통째로 읽은 적은 별로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판결문을 세세하게 이해하고, 배웠던 법 지식을 적용해 볼 수도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봉사활동을 또 하게 된다면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꼭 다시 하고 싶은 활동입니다.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 또한 새로운 경험이라 좋았습니다. 그동안 투표는 열심히 해왔으나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이 공약을 잘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회의원 이 내세운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어떻게 취소되거나 보류되었는지 살펴보고 공약 이행률을 매기는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의 중요성과 관심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공약을 잘 이행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행되지 않은 공약들도 있었고, 실현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공약이 잘 실행된 것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약을 이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공약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감시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앞으로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학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법조인의 시각을 키우고,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태백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봉사활동이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있다면 다른 다양한 활동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게 감사드리며, 소감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 ○ 민

학교 커뮤니티에서 우연한 기회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대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그리고 하고 싶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직접 법원을 찾아가 재판을 방청하는 일이 저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활동 초반에는 수업에서만 듣던, 책에서만 보던 재판의 모습이 눈앞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활동 시간이 쌓일수록, 판사, 검사, 변호사와 피고인, 증인 한 명, 한 명에게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이끌어가는 태도, 검사가 증인을 심문하는 모습,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하는 모습,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집중하며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여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해나가면서, 사법 감시의 일환으로 재판과정의 올바름에 대해서도 큰 주의를 기울였지만, 재판과정을 직접 보며 재판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던 뜻 깊은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제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는 총선 전 최종 공약 이행률 조사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저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임에도,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공약을 일일이 확인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약 이행률 조사를 통해, 선거철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약 100개 내외의 많은 공약을 내세운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웠던 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공약의 개수는 굉장히 많지만 그중 실제로 이행된 공약은 다소 많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번 선거일이 다가올 때마다 공약 이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존재해 왔지만, 그 실태를 직접 확인해보니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표를 얻는 데에만 치중하여 허황된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원에게,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처음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할 당시에는 그저 막막하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판결문의 양식과 사용되는 법률용어, 내재되어 있는 논리적 흐름 등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낯설'에서 오는 막막함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런 순간마다 해당 활동의 목적을 되새겼습니다. 법률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인들도 판결문을 쉽게 읽고,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러한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힘이 들어도 시간과 정성을 쏟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활동의 중반에 이르면, 더 이상 판결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의 양식과 용어는 물론, 피고와 원고 각 입장이 주장하는 바와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 그리고 판사의 판결에 내재된 논리의 흐름 등을 무리 없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연맹의 이러한 활동을 통해 판결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모두가 부담 없이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길 바라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과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해주었습니다. 미래에 법조인이 되어 이번 봉사활동을 법조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뜻깊은 발판으로 반추해볼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이 ○ 정

법학 관련 진학을 고민하게 되면서, 관련된 봉사활동이 없을까 찾아보던 차에 친구를 통해 법률소비자연맹과 해당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이번 겨울학기 필수 봉사활동 내역이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여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정치 관련 뉴스나 기사를 많이 보는 편이지만 실제로 어떤 국회의원의 공약이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하나하나 비교해본 적은 없었기에, 이번 활동을 통해

이런 검증을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해당 활동을 통해 선거 공보도 매우 꼼꼼히 읽게 되고, 공약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다보니 각 국회의원의 자질과 업무 성실도를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는 공약의 내용이 변질되어 진행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구를 위한 사업을 명목으로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 본인과 이익관계가 있는 사업체에 예산을 활용했다는 해당 지역구민들의 성토내용이 담긴 기사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단순히 봉사활동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다가를 선거에 제가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진행해보자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말로 하는 약속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지난 공약의 이행률을 지표로,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국회의원을 판별하는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지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직접 이러한 검증을 해보지 않더라도 해당 봉사활동을 통해 모인 많은 자료를 보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필수활동 외에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기사나 뉴스를 통해 어떤 사건의 내용이나 결과를 본 적은 있어도 실제 판결문을 읽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막상 판결문을 읽으니 생각보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일반인의 기준은 상대적이겠지만, 그래도 최근 판결문이 점점 더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는 경향으로 바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엔 청각장애인을 위해 판결문에 삽화를 삽입한 경우와 청소년을 위해 구어체의 존댓말로 판결문을 작성한 사례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봉사활동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방향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판결문을 읽으며 원고와 피고 각각의 주장,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판사의 결론까지 흐름을 따라가며 이해할 수 있었고 각각의 주장이 많은 고심 끝에 나온 내용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법현장에서는 이러한 근거로 이러한 결론을 내는구나 느끼며 법적 지식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것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은 지식과 뿌듯함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한 번 더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사법부와 정치에 대한 이러한 건강한 관심과 검증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 주변인에게도 많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이 ○ 현

법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법률소비자 연맹의 봉사활동을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판결문 리서치와 번역봉사, 필수 활동인 국회의정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학부생때 대법원 판결 관련 리서치를 한 경험은 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을 전부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총 두 개의 판결문 리서치를 작성했고, 주제는 각각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와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였습니다.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을 여러 번 읽으면서 판결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쟁점과 법리,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했는데, 해당 판결문의 요지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심, 2심, 대법원 판결을 거쳐 쟁점에 따른 법리의 적용이 달라지거나, 법리는 같지만 해석을 달리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판사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해석의 흐름을 읽어나가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법리를 파악하며 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법리를 읽어나가며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판결문 리서치 양식에 나오는 설문조사에서도 관련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 용어를 새롭게 알기도 했고, 평소에는 알기 어려웠던 법적 분쟁 이슈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문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세법과 자료를 찾아보며 국내 고정사업장 관련 과세 이슈에 대한 이해를 쌓으려 했습니다. 처음 읽을 땐 당연히 판례를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져서, 두 번째 리서치는 더 낯선 용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번역봉사는 미국 사법 및 절차법 번역을 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판결문 리서치보다 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익숙한 단어들이 아니라서 관련 배경지식을 쌓으려 노력했고, 하나의 단어에도 여러 뜻이 있기 때문에 문맥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법적 절차를 파악해야 하며 번역을 수행해야 해서 판결문 리서치보다도 시간이 더 걸린 활동이었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법 및 절차법 번역을 통해 그 나라의 법적 관점이나 문화를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흥미로웠고, 우리나라 법과는 어떻게 다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생소한 용어들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국회의정 모니터링은 국회의정을 감시하며 해당 국회의원의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며 해당 봉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국회의원 공약 이행의 판단 점수도 세부적이었으며 이를 위한 판단 근거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고 최신의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총 두 명의 국회의원 공약률을 조사했고, 해당 국회의원의 사이트, 기사 등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약을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것 같다고 느낀 국회의원이 있는 반면에 그저 예전에 썼던, 또는 당에서 형식적으로 많이 쓰이는 공약들을 그대로 가져와 내세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공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거나, 이행을 위한 조치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정 감시 역할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대략 3달동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새롭게 배우고, 느낀 것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은 습관들을 통해 앞으로도 판결문을 분석할 때 쟁점과 법리,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비판적인 접근을 하거나 의정모니터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 조선대학교 공공인재법무학과 이 ○ 창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겨울방학 봉사활동에서 제가 진행하게 된 봉사활동들은 의정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의정모니터링의 경우, 배정받은 국회의원의 공약들이 이행되었는지 기사검색을 통해 검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은 분명 어렵지 않은 봉사활동이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을 상당히 소모하는 작업이었고, 또 그만큼 확실하게 검증하게 된 것 같아 꽤 뿌듯했습니다. 이러한 의정모니터링은 저 혼자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검증되는 것으로 보였고, 이는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과정이고 그로 인해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이 쌓여가고 저도 그것에 이바지하였다는 것에 제가 수행하는 봉사활동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법정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은 법원홈페이지를 통해 각 요일에 어떤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준비하여 법원에 방문하였지만, 그럼에도 아예 재판이 진행되지 않거나 재판부가 겹치게 되면서 꽤 많은 허탕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을 방청하며 실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선고를 내리던 제11형사부와 민사재판들이었는데 제11형사부에서 진행되던 대부분의 재판은 선고였고 어떤 죄를 저지르고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그 과정 속에서의 감형 사유, 가중 사유들을 들어가며 실제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사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민사재판에서 제 생각과 달랐던 점은 첫 번째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단순 대리인이나 본인이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사정을 자세히 발언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법률전문인을 선임하여 변호하는 것과는 확실히 진행 과정의 매끄러움이나 준비서면의 질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민사재판에서 막상 피고와 원고가 서로 다툼이 격하게 벌어지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특히나 예민한 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라면 그 갈등의 골이 꽤나 깊었을 텐데, 그럼에도 분노한다기보다는 받아낼 것을 그저 받아내려 왔다는 인상을 받아 꽤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는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총 3개의 판결문을 조사하였는데 확실히 판결문을 읽어가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원이 제시하는 근거들과 논리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확실히 법학도로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이 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언급한 형사판결문이었었는데 이는 당장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형사소송법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문을 여럿 찾아보고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확실히 법을 공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름방학에도 봉사활동을 진행했었지만, 그때는 채워야 할 시간의 존재를 모르기도 했고,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과 어색함을 느껴서 부족한 부분들

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 부족한 부분을 모두 채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로 활용한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이번년도에 3학년을 진급하면서 할 일도 더 많아지고 더 바빠지겠지만, 여름방학에도 봉사활동을 다시 한 번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과 이 ○ 은

2023 겨울학기 법률소비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과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실천해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 활동했던 사법감시배심원단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평소에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법과 사회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으로서 재판을 방청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지, 방청을 통해 어떤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얻고 적용해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자택에서 법원까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재판 방청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있었는데,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대부분의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래에 법조계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고, 미래에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회 현장학습을 통해서는 본격적인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률소비연맹 대학생 봉사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알아볼 수 있어서 뜻 깊었고, 봉사 참여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2023 겨울학기 봉사활동의 필수 활동이었던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를 통해 공약 이행 현황 조사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꼼꼼히 보지 않고 넘어갔던 국회의원 공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이들이 있어야 공약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민으로서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전에는 국회의원의 공약 진행상황을 개인이 팔로우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는데, 의지와 관심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시민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관심이 가장 큰 원동력을 깨닫는 활동이었습니다. 미국 사법 및 절차법 번역봉사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법률을 살펴 볼 수 있었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법률을 비교 분석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번역에 들어가기 전 해당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법률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관찰해보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다양한 법률 용어가 사용된 조문을 읽고 번

역해보며 복잡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한 번역을 통해 글로벌 소통역량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이 ○ 진

1. 번역 봉사

2023 겨울학기 봉사활동으로 처음 선택한 것은 번역 봉사였다. 학교에서는 우리나라의 민법, 상법을 위주로 들었기에 다른 나라의 법체계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타국의 문화와 주요 가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인 법을 분석하는 것에 많은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나의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으로 번역 봉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처음 맡은 번역 내용은 미국 선거법에 관한 것이었다. 번역 당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 총통 선거, 그리고 트럼프의 재선 도전으로 미국 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던 시기였다. 미국 선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국 선거법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선거법의 내용 중 선거 위원회의 의무,구성 및 임기, 직원 구성, 권한 의무 등을 조사하고 번역했다. 번역을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국민의 참여를 중요시한다는 점이었다. 미국의 선거 위원회는 Help America Vote College Program (선거일에 여론조사 기관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을 모집 및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원회 활동 내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정작 투표율은 저조한 미국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느껴졌다. 두 번째로 맡은 번역 내용은 미국 사법 및 절차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 중, 나는 연방 사법 센터와 미국 치안 판사에 대한 내용을 번역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치안 판사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와 달리,미국은 치안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치안판사로 임명되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들 중 자격에 부합하는 자가 없는 경우엔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일반인을 선정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치안판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소송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간편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익한 제도임을 느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을 지라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다면 일반인 역시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도 신기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와 너무 다른 법체계, 전 문적인 단어의 나열로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다. 단순히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문화와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도 느꼈다. 그러나 사전조사의 내용을 이를 해석에 반영하다 보니, 점차 번역 실력이 느는 것이 느껴졌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제도, 법률용어들을 알게 되면서 처음에 번역 봉사를 통해 얻고자 했던 '타국의 문화와 주요 가치를 들여다 봄'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초반의 기대사항을 충

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2. 판결문 리서치

판결문 리서치는 번역 봉사 이후로 신청했던 활동이다. 번역 봉사를 통해 타국의 법체계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궁금해졌다. 판결문 리서치는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문을 분석하여,어떤 법적 근거를 채택하고 기각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활동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법적,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

처음 판결문 리서치로 선택한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대법원2022도4171] 였다. 해당 사건은 단체 메시지를 통해 원고에게 받은 피해사실을 알리며, 친구들에게 '조심하라.'고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명예훼손에 성립하기 위해선 '비방할 목적'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행위가 비방할 목적과 공익적 목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보았고, 3심에서는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인정했다. 1,2심은 비교적 표면적인 근거로 피고의 행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달리 3심은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판결이라고 느껴졌다. 피고의 행위가 명예 훼손으로 여겨질 부분이 일부 있으나,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부수적인 것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분석하면서 판결은 단순히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본질을 꿰뚫어 볼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두 번째로 선택한 사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대법원 2018다290436] 였다. 해당 사건은 피고들이 받은 특별성과급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특별성과급이 피고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경영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실상 1인회사인 점을 강조하며 이사의 판단이 주주총회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했다. 반면, 원고는 특별성과급도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여기고, 주주총회와 이사의 판단이 동일한 효력을 지닐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1,2,3심은 모두 피고의 특별성과급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했다. 특별 성과급이 '사실상'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실상 1인회사라 할지라도, 이사의 승인이 주주총회로 여겨질 수는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나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동감하였다. 판단 근거가 된 상법 제 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이는 사건의 내용이 사실상 해당 법령의 취지와 일치한다면 보다 유연한 해석으로 회사 당사자들에 대한 폭넓은 보호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법령이나 회사 정관에 완벽히 들어맞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의 취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회사의 금전적 문제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번의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원의 판단

근거를 살펴볼 수 있었고, 나의 생각과 비교하여 보면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짐을 느꼈다. 특히 판결이 단순히 표면적인 언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미칠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나도 단순히 사건의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판결문 리서치가 그 포문을 열어준 것 같아 감사한 경험이었다.

3. 의정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한 봉사활동은 의정 모니터링이었다. 21대 국회의원의 공약을 점검하고 이행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었다. 내가의정 모니터링 대상으로 배정받은 국회의원은 박광운 (경기도 수원시정), 박대출 (경상남도 진주시갑) 이었다. 두 국회의원의 활동들을 찾아보고 분석하면서, 곧 있을 지역구 선거를 제대로 준비하는 느낌이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투표'라고 생각한다. 국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투표 과정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을 꼼꼼히 조사하고 공약의 실천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국민의 권리인 '투표'를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의정 모니터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은 활동이었다.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더욱 자세히 살필 수 있게 되었다. 번역 봉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들을 우리 사회에 도입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정서와 일치하며 납득할 수 있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살펴며,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국회의원의 활동들을 감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여겼던 것들도 사실은 나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체감할 수 있었다. 법원의 판결과 국가의 사회제도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감시한다면 내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값진 깨달음을 얻게 해준 이번 2023년 겨울학기 봉사활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한 가장 의미 있는 봉사였다.

○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이 ○ 지

지난 학기에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법률 봉사활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법률 봉사는 생소하지만 흥미로웠습니다. 운이 좋게 타이밍이 맞아 국정감사 모니터링도 진행하며, 법률과 나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난 활동을 토대로 이번 학기에도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지난 학기의 다짐과는 다르게 일이 바빠 이번 학기에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위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판결문 리서치라도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서, 각 사건마다 최대한 다른 죄명으로 판결문들을 찾아 요약 진행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는 총 3개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위반,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었습니다. 첫번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건은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배포한 것이 직접적인 배포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채팅창에 올려놓기만 하고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링크를 보낸 것은 배포라 볼 수 있지만, 다운로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관련해,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대리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반의사불벌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 판례였습니다. 세번째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 중 저작권격권 위반을 넘어 피해자의 명예 훼손까지 인정된 첫 판례입니다. 저작권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판결문 리서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대법원 판례를 읽고 요약하며 판례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공약 조사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공약이 지켜지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이 ○ 용

지난 2023학년 가을학기 처음으로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한 후로 이번 겨울학기에도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진행한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와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점검 및 공약이행률조사였습니다. 우선,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점검 및 공약이행률조사는 올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제21대 국회의원인 2020년 제20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에 게시한 공약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각 공약이 지난 4년간 어느 정도 이행이 되었는지 조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 공약이행률 조사는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해온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점과 한 명의 국민이자 유권자로서 우리나라 3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무엇이었으며, 그 공약을 어느 정도로 이행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인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제가 조사한 한 국회의원의 경우는 제가 살았던 곳에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더욱 집중력 있고 관심있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약이행률조사와 공약 점검을 하며 국회의원이 내거는 공약 하나하나가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민감한 현안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개별 지역구의 이익을 대표하면서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여러 권한을 가지는 국회의원의 특성상 국회

의원 개인의 정치적, 법적 이해관계와 영향력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이 내걸었던 공약 자체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빠른 속도로 공약이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유권자의 선택과 감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저번 학기 봉사활동에 이어서 겨울학기에도 하게 된 판결문 리서치는 주로 민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판결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문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평소에 많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행하는 단계에 이르러 각종 분쟁에 휩싸여 결과적으로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조항과 그와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위약벌 조항을 어떻게 구분하며 그 성질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왔는데 이번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서 이에 관하여 찾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다룬 사건과 고속철도 인근에서 잠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고속철도 운영으로 인한 소음을 비롯한 손실 및 손해를 보상과 배상하라는 사건에서 각종 공익사업에서 환경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피해들을 국가가 국민에게 어떻게 보상해야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다룬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을 분석하면서 이전 학기보다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판결문을 해석하고 이를 정리하여 알기 쉽고 정확하게 쟁점과 법리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도출하고 그 쟁점을 각급 법원에서 어떠한 법리를 바탕으로 적용하고 결론을 내렸는지 그 논리구조를 집중적으로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으며 여러 법률 용어와 법원의 재판과정에 관해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국민이 입법부 및 사법부의 주요 활동을 분석하고 감시하면서 각종 정책과 법 전반에 관한 지식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가 헌법상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진 채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이 ○ 현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는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언론모니터링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었고,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활동들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에는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활동이 필수적이었으며, 저는 여기에 더해서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활동 그리고 언론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한 봉사활동이었기에 처음 보다는 익숙했지만 언론모니터링과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는 처음이었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했던거 같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은 민사 3부, 형사3부, 행정 또는 소액

3부를 합쳐 총 9부에 대한 재판들을 현장 모니터링하는 활동이지만 이번학기는 필수활동이 아니었기에 총 3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제 법원에 가서 진행해야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법쪽 직군의 실무자들을 볼 수 있었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글로만 보다가 직접 보게 되어서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재판은 드라마나 영화처럼 극적이지 않고, 정말 객관적이고 주어진 증거들만으로 판단한다고 느꼈습니다. 판사들을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사건들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있었고 때문에 재판진행 속도가 빠르면 2분도 채 안걸리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이 그자리에서 서로 변론을 하며 그 말을 듣고 판사가 순간순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당사자들의 서면을 통해 재판이전에 판사가 읽고 이미 판결을 해오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법쪽 직무를 생각 중이었는데 법정모니터링을 통해서 재판과 관련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그 직무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어서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대법원의 주요 판례들 중에서 몇 가지를 본인이 직접 선정해서 해당 사건의 1심, 2심, 3심을 분석하는 활동이었습니다. 해당 활동을 통해서 판사가 사건을 판단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2심, 3심이 앞선 재판에 대한 단순한 재판단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3심의 경우는 사건에 대한 잘못을 따지는 것 보다는 앞선 1심, 2심에 적용된 법률이 정당인지, 맞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었고, 이는 평소 생각했던 부분과 차이가 있어서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한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수많은 법률들이 적용되고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은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추천해주는 최근 주요쟁점 중에서 골라서 언론사별로 기사를 스크랩해 분석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와 진보언론사들을 선택해서 같은 주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다각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해보는 활동이었기에 잘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매뉴얼에 따라 차근차근하다보니 결국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며 느낀 점은 이분법적인 사고로 사건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더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활동은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배정해주었고, 2명에 국회의원들의 공약집을 보고 뉴스기사와 보도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공약들이 있었고, 하나의 공약이 시행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의사소통 과정 그리고 우여곡절들을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이 몇 퍼센트 이행되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현실 가능성있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바람직한 공약을 내거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활동인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했던 겨울봉사 활동을 통해서 법쪽 직무에 대해 더욱 관심이 커진 것 같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내적동기들도 많이 얻어가고 관련분야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들도 풀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보람차고 뜻 깊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법률소비자연맹에게 감사드립니다.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이 ○ 언

법조인이라는 꿈을 꾸며 대학생 신분으로 법 관련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의 봉사활동이 공익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의 작은 봉사활동 하나 하나가 국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재판관을 직접 방청하고 그 재판부와 검사, 변호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범죄와 법에 관심이 많아 형사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었는데 단지 방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재판의 내용 등을 기록하고 이 기록이 재판과정의 공정성과 사법개혁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려웠던 법률 용어와 친숙해질 수 있었고, 재판 과정을 더 자세히 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저에게 재판 방청 온 학생이냐고 물으시고 기록을 보지 못 하는 저를 위해 증거 요지와 서증의 간단한 내용을 소개해주신 판사님, 마약 사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울먹이며 단약을 강조하시던 판사님,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시던 판사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법조인이란 누군가의 삶을 결정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피고인, 피해자, 유족에게 공감하며 나아가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법조인들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방청하면서 보게 되었던 그런 판사님, 검사님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라는 것이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총선을 앞둔 지금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의견이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는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의정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잘 작동하는 현장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공약의 내용이 정말 많았는데 대부분의 공약을 이행하신 의원분을 보며 정말 국민을, 시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가 언론과 국회, 국민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국회 의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감시한다면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

렵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태 제가 뽑았던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직접 뽑은 국회의원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의미있는 경험과 다짐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가치있는 경험을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 ○ 슬

법률소비자연맹의 2023년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다양한 경험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저는 법률과 정치 분야에 대해 스스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었기에 더욱 보람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공약점검 및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정치의 현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고,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정치와 정치인들의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판결문을 직접 읽고 분석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법률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더욱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리서치를 하게 되었을 때,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본 것이 처음이라 생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분야에 관한 사건,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아기사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선정하여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쟁점과 주장, 그리고 근거를 정리해 나가며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판단의 근거를 살펴보니 충분히 타당한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리서치로 ‘조영남 대작 사건’을 선정했는데, 뉴스로만 접하던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사건을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과 그렇다면 어떻게 판결을 내렸어야 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법적 판단과 그 프로세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판결문 리서치에서 유명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저작권 시비를 조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사건들을 자세히 알게 되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읽어보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

결을 내린 것 같으면서도 그 기준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당사자라면 판결에 승복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작더라도 계속해서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하는 목표를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사회에 나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이 ○ 찬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는 작년 겨울학기를 이어 두 번째 봉사이다. 봉사활동은 법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번역, 국회의원 공약 점검 및 이행률 조사를 진행하였다. 법정모니터링은 형사사건 2회, 행정사건 1회의 총 3회를 진행하였다. 해당 봉사활동은 이전에 진행한 적이 있었기에 새로울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사건들의 양상은 너무나도 다양했고, 증인신문 과정을 처음으로 관찰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상이한 사건들과 복잡한 사법 절차들을 관찰을 통해 간접 경험해보니, 이러한 과정들의 엄중함과 복잡함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였다.

또한, 국가나 관찰자의 입장이 아닌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재판에 서는 등의 사법적 절차를 경험하는 것이 일상과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계기가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는 총 2회를 진행하였는데, 하나는 형사사건인 2023도10768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행정사건인 2023두44061이었다. 지난 봉사 활동에서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가 생각보다 흥미로웠기에 이번 봉사 활동은 2개의 사건을 리서치하였는데, 개인적으로 대법원 판결문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는 것에 흥미가 많아 2023도10768 판결문을 조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재미있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건을 선정함에 있어, 스스로를 도전에 던져 놓고 싶어 정말 익숙하지 않으며 배경지식도 전혀 없던 상속 관련 행정 사건의 리서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모르는 용어가 참 많았으며 사실 관계도 상대적으로 이전의 것보다 복잡하였기에 리서치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두 마친 현재로서는 뿌듯한 감정이 남아있다. 만약 다음에도 봉사활동 기회가 있다면 잘 모르는 사건의 리서치를 진행할 것 같다.

번역 활동은 미국 선거법이 배정되었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정말 없었기에 걱정이 많았으나, 작년에 캘리포니아 헌법을 번역한 경험이 있기에 의지를 다지고 도전하였다. 그러나 역시 선거법에 관련된 미국의 법률 용어와 미국의 선거 체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탓에, 본격적으로 수월하게 번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후반부에 이르러서였으며, 이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 수정한 번역도 꽤나 많았었다. 우여곡절 끝에 번역을 끝내고 나니,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한층 나아진 이해를 갖게 되었으며, 더불어 영어 실력도 상승한 것 같은 체감을 하였다.

나머지 하나의 봉사활동은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인 국회의원 공약 점검 및 이행률조사였다. 사실 그 동안

은 정치, 특히 국회의원들의 활동들에 관해 관심이 없었으며 아는 것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활동이 필수 활동이었기에, 약간의 걱정과 함께 활동을 하고 나면 무언가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봉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배정된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통영시 고성군의 정점식 의원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율의 정일영 의원이었다. 두 지역 모두 생소한 곳이었기에, 공약 점검 및 이행률조사를 진행하며 지역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에 더해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어떠한 사항들을 공약으로 삼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공약들을 이행하는지를 가볍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조사와 같이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일종의 부담, 혹은 견제가 되는 것일텐데, 이러한 장치가 민주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이 ○ 리

법률소비자연맹의 2023년 동계 봉사활동은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 준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의 전공 특성상, 지금까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에 주로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계가 아닌 다른 분야의 진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과 관련한 경험을 봉사를 통해 쌓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봉사활동의 필수 활동이기도 하였던 의정 모니터링은 21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2명의 국회의원을 담당하여 그들의 공약과 지금까지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하면서, 각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와 지역구민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펼쳤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공약이행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행이 완료된 공약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국회의원에게 국민에게 자신의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촉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2회 수행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와 관련한 법적 분쟁과 그 판결을 살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법원에서는 그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를 판결문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제가 막연히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사가 법적으로 검토하여 내린 판단을 비교해 봄으로써 법관의 시각을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처음 읽었을 때에는 이해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지만, 두 차례 리서치를 수행하면서 판결문을 점점 익숙하게 읽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형사 재판부를 방청하며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재판을 모든 국민이 쉽게 방청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어 놀라웠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널리 홍보하여 법에 대한 접근이 국민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강화하여 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폐쇄적이고 배타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법이 국민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이 저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을 반성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법에 대한 관심을 이어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경희대학교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임 ○ 재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내 삶을 돌아보자면 진로 탐색에 대한 방향의 시기였던 것 같다. 6개월간의 교환 학생을 끝내고 곧바로 학기 생활을 시작하며 그 이후의 내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주변의 친구들은 인턴 활동을 하거나 대학원을 목표로 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고 그에서 오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했다.

사실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언가에 대한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내 상황과 되고 싶은 나를 모두 생각했을 때, 로스쿨에 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를 이루기 위한 첫 시작이 바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었다.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힘닿는 대로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1년간 미디어 봉사동아리에서 활동했었고 이를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정말 좋았다. 사실 막연하게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게 시작했다는 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지식은 매우 부족했던 것 같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에서 나는 세 건의 판결문 리서치를 마치게 되었고, 판결문을 읽어보게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생소한 법률적 용어들과 긴 문장에 처음에는 이를 이해하는데 쉽지 않았다. 반복해서 이를 차츰 읽어나가고 정리해 나갈수록 법률적인 이해가 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사안 하나하나가 재판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또한 실감할 수 있었다. 주장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릴 때, 정말 신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1심 2심 3심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이를 확정적으로 판결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같은 사실이라도 그 논증 과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검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며 나의 진로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판결문의 양과 길이를 고려했을 때 인터넷으로 이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간

편한 방법인데,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은 관련한 법률적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판결문의 내용 자체가 너무 복잡해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선 이를 훨씬 쉬운 문장으로 작성해야한다고 느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 또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정말 뜻 깊다고 느꼈고, 만약 실제로 내가 법조인이 될 수 있다면 이러한 점을 직접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번 학기의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 또한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투표하기 전, 그저 내가 선호하거나 익숙한 정당의 후보를 고르는 경우가 많았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약을 제시하는지는 파악해 보려 한 적이 없다. 이번 조사를 통해 후보자들이 나의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공약의 개수보다 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제로 실현하는지가 중요한 만큼, 실제 이행률을 더욱 높일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3월이 지나가고 있고 내가 목표하고 있는 법학 능력 시험까지 몇 개월 남지 않았다. 그 시간을 정말 후회 없이 보내보고 싶다. 그 성패의 여부보다 내가 이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력과 도전의 경험 자체가 나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봄학기의 봉사에도 지원에 더욱 열심히 활동해보고 싶다.

○ 동국대학교 법학과 장 ○ 규

법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법에 대해 학문적으로 공부해보거나 판결문을 접했던 적은 있었지만,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여러 면에서 기억에 많이 남을 활동이었다.

가장 많이 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는데, 판결문을 접했던 적이 많았음에도 다른 시각에서 판결문을 다뤄보며 배우는 것이 많았던 것 같다. 법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는 평범한 시각에서도 판결문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어떠한 표현이나 단어가 어려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러한 것들을 순화해서 바꿔보거나, 이러한 부분은 특히 어려울 수 있으므로 판결문 작성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또한 대학에서 판결문을 다룰 때는 학문적으로 법리를 이해해서 해당 사건에 맞게 적용해보는 등의 방식으로 생각해보았다면,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판결요지, 판결전문, 재판당사자들을 정리해보며, 판결문의 형식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더불어 1심, 2심, 3심에서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고 법리에 대한 해석도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판결문을 정리하며 무엇이 옳은 방향일지, 그에 대한 근거는 충분한지 고민해보며 판결에 대한 나의 시각이 풍부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마지막 판결문 리서치였던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인 몬트리올 협약을 다루면서, 협약의 적용이 우선이지만 협약이 모든 부분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협약이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지인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판단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2심, 3심 모두 손

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3심에서 2심은 손해 배상의 기준을 몬트리올 협약으로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 특히 흥미로웠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도 배우는 것이 많았던 것 같다. 법학과지만 직접 법원에 가서 방청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작에 법원 방청을 해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실제 재판에서는 법정 드라마에서처럼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변론하거나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듯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 하지만 판사가 중간에 놓칠 수 있는 부분에서 애매하게 제시된 법리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고쳐서 말하거나, 증인의 증언 중 애매하게 제시된 부분을 다시 물어봐서 확실하게 만드는 것을 보며 배우는 것이 많았다. 가끔 검사나 변호사가 변론에 대해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으며 일반 국민들이 재판부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 또한 들었다.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은 한 재판부당 하루에 맡는 사건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재판부가 한 사건에 합당한 시간을 모두 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겼었다.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공약이행률조사 활동을 통해서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에 반성을 하게 되었다. 국회의원들의 공약은 정말 많았고 그 많은 공약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편했다. 해당 활동 이후 내가 사는 지역구의 의원의 공약은 무엇인지 이행 정도는 어떠한지 찾아보기도 하였다.

봉사활동을 하는 내내 나의 전공이기도 한 법을 다각적으로 다루고 공부하면서, 성취감 또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나의 활동이 법률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 ○ 념

겨울학기 봉사활동에서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조사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입법을 책임지는 입법부, 국회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정치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 등에서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뜻 깊었다. 정치 공약은 곧 현실에서의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내용의 실효성과 더불어 실제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등 공약이 이행되어 효과를 발휘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담당한 국회의원 두 명의 각각의 공약 내용과 그것이 연도별로 얼마만큼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시행되지 못했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기사로 찾아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국회의원이 공약을 걸고 그것을 이행하기까지 생각보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특히 도로, 터널 건설 등의 대규모의 사업은 해당 국회의원 임기 내에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정책 공약뿐만 아니라 입법 공약의 추진 정도를 찾아보며 배운 점도 있다. 보통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특정 입법을 발의하는데 이때 중간에 계류 상태에 머물러 실질적으로 입법 및 공포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지는 않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정책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은 점에 미루어 보건대, 국회의원은 본인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공약 효과의 실질성을 도모해야 하고 그저 말뿐인 허황된 공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함으로써 입법자로서, 또 해당 지역구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해당 활동을 통해 평소에 접할 기회가 없는 다른 지역구의 정책 공약과 추진 사항 및 배경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의미있는 경험이었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전 ○ 비

오티 이후 첫 봉사활동은 국회 현장학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리엔테이션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프라인 활동으로 국회 현장학습에 다녀와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현장학습을 통해 법률연맹 소속 직원분들을 직접 보고 연설을 들으니, 법률연맹의 목표나 가치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 학기인 가을학기에도 법률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었는데, 제가 참여한 국정감사 모니터링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민복상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시상을 하는 모습을 보니, 활동을 참여함에 있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뿐 만 아니라 모니터위원단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에서 기억에 남는 재판은 마약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장에 들어가니 피고인석에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앉아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30대의 피고인들을 보았는데, 20대 피고인들을 보니 싱숭생숭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부모님들 얼굴을 보니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방청을 보는 내내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재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는 처음 수행하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활동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에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공약 하나하나를 조사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공약을 조사한 후에는 뿌듯함을 느꼈고, 공약만 보고 끝냈던 이전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가장 얻는 것이 많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공부를 할 때면 대법원 판례만 찾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리서치 활동을 통해 3심을 모두 정독하면서 사건의 판결 흐름을 읽을 수 있었던 부분이 좋았습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배웠던 법조문을 실제 판례문에서 읽으니 복습을 하는 느낌도 들었고, 사례 분석 과제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법률연맹 봉사 활동을 즐겨워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장래 희망에 대한 확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할 시간과 여유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전 ○ 영

이번 봉사활동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외부

에서 처음으로 참여한 봉사활동 중에서 '법'을 다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법조인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해왔지만, 이번에는 그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봉사하는 경험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첫 봉사활동으로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방청은 이전에도 한 번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평가의 목적을 가지고 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긴장과 기대가 함께 뒤섞인 마음으로 재판장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종료되었지만, 그럼에도 재판의 과정 자체가 흥미로워서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은 저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봉사자들에게 어떤 지원과 협조를 바라는지 알게 되어 봉사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겨울봉사활동 중에는 제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조사를 수행했습니다. 배정된 국회의원인 설훈 경기도 부천시율/성일중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의 공약을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이전에는 국회의원들의 공약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공약을 이행하는 노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일중 국회의원의 다양한 공약과 이행을 조사의 어려움을 체감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시민들에게 국회의원의 활동을 주목해야 한다는 인식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다짐이 강해졌습니다.

판결문리서치활동은 자택에서 시간 제약 없이 수행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매우 즐거운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대한 흥미와 판결문리서치에 대한 열정으로 총 3개의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2022도12494사기죄위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얼핏 보면 절도로 보일 수 있는데, 나와 같이 1심에서는 절도로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죄명이 사기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법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법리가 어떤 행위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신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3심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재판의 과정과 판결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1심, 2심, 3심까지 세 번의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달라지고,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는 모습은 실제 재판장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엿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법률과 재판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리서치활동을 통해 법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키우며, 법리의 복잡성과 실제 재판에서의 논쟁의 과정을 체험하면서 더욱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법률 분야에서의 참여와 이해를 높여가며 사회에 기여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전 ○ 현

지난 겨울 방학기간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과는 거리가 먼 학과의 전공생으로서 봉사활동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

지만, 용기를 가지고 신청하였습니다. 법과 관련한 진로를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서, 봉사를 통해 입법과 사법에 다가가고 싶은 열정을 가지며 봉사에 임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한 활동은 겨울학기 필수 봉사였던 제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조사였습니다. 두 의원을 배정받아 그들의 공약을 점검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약 이행을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이 내세운 공약을 꼼꼼히 읽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선거철이 다가와도 국회의원들의 공약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래왔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공약은 예상보다 훨씬 자세하고 다양했으며, 지역의 구역별로도 나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은 정말 해당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공약 중에서는 이미 시행된 공약도 많았지만, 아직 논의 중이거나 시행되지 않은 사업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지키지 않은 공약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국민들의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을 감시하지 않는다면, 공약을 소홀히 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조사는 더 나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총 4회에 걸쳐 활동했는데, 처음에는 무척 걱정이 컸습니다. 한 번도 법 관련 과목을 배워본 적이 없어, 판결문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서치 방법이 친절하게 소개된 안내문을 통해, 판결문 분석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심과 1심의 전문이 모두 나와있는 판결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나 쟁점 정리, 판결 요지 작성 등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판결 전문을 천천히 읽어보며 재판 과정을 따라가려 노력하다보니, 점차 이해가 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특히 평소 관심이 있던 저작권법에 관해 많은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같은 법조문이라도 판사에 따라 다르게 법조문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승소였던 재판 결과가, 3심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것을 보며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판례를 읽으며 '과연 내가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라는 생각도 자주 해보게 되었습니다. 법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면, 판결문을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국회의원의 공약에 대해 신경을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만큼,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도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한 표를 행사할 것 같습니다. 또 그에서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국민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통해서, 처음 '판례'라는 것을 읽어보며 법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 저작권법이 아닌 타 분야의 판례들도 읽어보며, 법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번 2023-2024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더욱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정 ○ 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지원하는 법률봉사는 기존 봉사
와 다르기에 법률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접
해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점은 법률봉사가 아니었다
면 국회도 법원도 갈 기회가 없기에 봉사를 핑계로 삼
아 견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예비교육 이후 사법감시배심원단을 통해 대법
원에 갔는데 거기서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재판장에 실
제 들어가 보고 재판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재판부가 변경되어 공판 갱신 절차를 해야
하지만 2월 19일 정기적 법원 인사이동 때문에 재판부
가 다시 변경될 예정이기에 재판을 연기해서 자세히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 가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검사님 변
호사님들을 보며 결의를 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국회에 가셔도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노력 중
인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당원 수는 대충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국회의
원들을 볼 수 있었고 겨울학기 필수활동인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를 하면서 4차 이상으로 이뤄지는 여
러 검수를 통해 단순히 국회의원이 당선 이후의 행적
을 확인할 수 있고 단순히 공수표처럼 남발하는 많은
공약이 이러한 사람들의 감시와 제지로 잘 지켜지고
있구나, 그리고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감시할 수 있
는 수단이라고 느껴져 좋았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4분을 조사했는데 그분 중 한 분은
본인이 말한 공약의 90% 이상을 이행하셔서 감사했습
니다. 물론 법안이나 계획이라는 것이 모두가 지켜지면
 좋겠지만 단계별 절차를 통해 법안이나 예산 등을 짜
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려 여러 의원에 거쳐서 이뤄
지는 법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
과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 봉사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저는 법원모니
터링도 함께 지원했는데 법원모니터링을 희망하시는
분은 민사3이건 형사 3건 그 외 3건을 채워야 하기에
제가 찾아가 3일은 개인파산 사건으로 인한 민사2건
형사 1건밖에 보이지 않아 9개를 채우지 못해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
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 정 ○ 서

국제학과에 진학 중인 저는 학교에서 국제사회에서
꼭 필요한 학문들을 배우고 있고, 그 중에서도 국제경
제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경영학 과목과 국제무역투자론 과목이 저에게 흥
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와 공급망
이슈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현 시국에서 해당 수업들
을 수강하며 저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세워
나가야 할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서 관련 직종을 찾아보던 중 국제통상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글로벌한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통상 관
련 이슈를 다루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

게 되었습니다.

호기롭게 도전해 보고자 하는 마음은 생겼으나 막상
로스쿨 준비를 시작하려고 보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
니다. 변호사가 되어 국가 경제와 자국 기업들의 이익
을 위해 살고 싶다는 사명 의식은 생겼지만, 사실상 제
가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서 저는 실질적으로 법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관련
활동들이 다양하게 마련된 봉사활동을 찾게 되었고, 이
러한 계기로 이번 학기에 첫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
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필수활동이었던 의정 모니터링, 미국
선거법 번역 활동에 주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의정 모
니터링은 국회의원들의 공약 분류 점검과 공약이행률
을 조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회
의원들의 공약을 꼼꼼히 읽어보고는 했지만 선출된 의
원이 얼마나 성실하게 공약을 이행하는지는 파악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올바른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약이행률 조사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번 학기에 미국 총기 휴대 관련 법
안과 그 쟁점 관련 번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국제
학과에서 모든 수업과 소통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영어로 공부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
었던 터라 다른 활동들보다는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국가별 문화 및 용어
차이로 인해 국내법률용어에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를
찾기 힘들어 해외 법률 사전의 영영풀이까지 참고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영문 법률 용어를
더 심도 있게 공부하여 다음 봉사활동부터는 국민들이
조금 더 편히 볼 수 있는 관련 법 번역본을 완성해야
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귀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법률연맹 담당자분들께 감사하고, 다음 학기의 봉
사활동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 ○ 영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조현영입니다. 겨울학기 필수 봉사활동인 제21대 국회
의원 공약점검 및 이행률 조사와 번역봉사에 참여했습
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의 공약을
점검하는 일은 저에게는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부끄럽
지만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투표 전에 집으
로 오는 공약집을 한 번 간략히 읽는 것으로 끝났었는
데, 공약 이행 조사에 참여하면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이렇게까지 면밀하게 살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대
구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자 강기윤 의원님의 공약
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에 거주중인 저에게는 생소한
공약도 많았습니다. 공약 점검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공
약이 해당 지역구의 발전을 약속하고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사회의 소외계층의 문제점
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기도 했습니다.

공약 이행률 조사가 끝난 후,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
와 제가 다니는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자발적으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의 삶의 편리와 지역 복지

등에 초점을 둔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리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공약들을 보면서, 익숙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안들이 사회의 과제임을 몰랐던 제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껴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법전의 제5편 제376조를 번역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6월 미국의 UCLA 대학교에서 1년간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UCLA의 법학전문대학원 내 도서관에서 영어로 번역된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의 법률 자료와 이에 대한 논문들을 읽으면서 법률의 번역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이번 번역 봉사를 통해 미국의 법을 한국어로 보는 작업은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 이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와 영미법계인 미국법의 차이가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미국의 사법 공무원이 재직 중에, 은퇴 후에 유족들이 받는 연금에 대한 조문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의 연금법 역시 궁금해져서 찾아보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어영문이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번역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이는 단어들 중에서 법률의 범주 내에서는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용어한영사전과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번역센터의 공개 자료를 참고해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학기 20페이지 가량의 조문 하나만을 번역하였지만, 언젠가 미국 법전이 모두 번역되어 미국의 법률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학기에도 미국 법조문을 번역하는 법률 번역 봉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힙니다.

○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 차 ○ 비

이 봉사활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로스쿨 지망생, 적어도 인문대생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대생이나 법률평사활동은 주변에서 특이하다는 취급을 받았다. 나는 공대생답게 이 봉사활동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인문대생 친구의 추천으로 지원하게 됐다. 법정 모니터링, 공약 이행률 조사, 판결문 리서치 3가지의 활동을 마쳤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법정과 재판에 무지했던 내 지난날의 반성이었다.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정확한 차이도 제대로 몰랐거니와 처음엔 검사석과 변호사석도 헷갈렸다. 판사가 1명이 아니라 3명,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 짐짓 태연한 척을 했지만 말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같이 간 친구는 법에 지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고 있어서 재판을 더 재밌게 방청했는지 싶어서 무지한 나에게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내게도 4번의 방청 경험이 생겼으니 앞으로 방청할 때 색다른 재미를 느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공약 이행률 조사도 내게 뜻 깊었다. 열심히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 나를 보며 엄마가 한 말씀 하셨다. “국회의원이 공약을 지키는 걸 보질 못했는데!” 비리를 저지르고 명예에만 급급해하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봐오

셔서 못마땅해 하신 것일 테다. 직접 조사해보니, 내가 맡은 두 국회의원은 공약 중 일부를 지키긴 지켰다. 다만 그 국회의원이 직접 추진한 게 아닌 정부에서 시행한 공약이 많아서 그 국회의원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불투명했다. 이 밖의 공약은 대부분 이행률 평점이 0점(전혀 시행되지 않음)이었다. 0점을 매길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판결문 리서치에서는 재미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바로 한 판결의 1심, 2심의 결과가 3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나는 여기서 재판은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사실 판결에선 ‘검정 아니면 하양’이라는 흑백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다만 최대한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엄중한 숙고를 거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의미를 체감하니 내가 사는 사회에 깊은 고마움과 애정을 느꼈다.

대한민국의 법과 재판은 철저한 체계와 부단한 노력으로 쉬지 않고 굴러가고 있다. 법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안정감과, 동시에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사회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조만간 제22대 총선이 있다. 나라와 국민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신중히 고민하겠다.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최 ○ 혁

주변의 소개를 통해 나는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다. 평소 법과 법률 관련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는 2개월 정도 되는 겨울방학을 내가 좋아하는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차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가 신청서를 내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는데, 여러 봉사활동들 중 나는 2023년 겨울학기 필수 봉사활동인 의정모니터링(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과 판결문 리서치, 법정 모니터링 봉사를 신청하였다. 해당 소감문을 작성하며 위 3개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의정모니터링(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평소 선거를 할 때 나는 투표를 하러 가기 전 누구에게 표를 줄지 정하는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은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았었다. 어차피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봉사활동을 하며 국회의원들의 공약 하나하나를 일일이 읽어보며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니 열심히 공약을 이행하는 정치인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번 의정모니터링 봉사는 나에게 약 한 달 후 이뤄질 총선부터는 후보자들의 공약도 꼼꼼히 살펴본 뒤 투표 하는 유권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는 계기가 되었다.

의정모니터링 봉사를 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발표하며 공약을 다소 모호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를 들면 ‘지역과 공존하는 개발’ 이런 방식으로 공약을 작성하는 것이다. 공약은 유권자들과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하는 바

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유권자와의 약속을 모호하게 작성하는 정치인이 줄어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하며 총 3건의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그 사건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살인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질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핑계를 대기에 급급했다. 피고인의 일상 생활을 볼 때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자 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당연히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범죄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변명거리를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없이 자신의 책임만 줄이려 하고, 피고인에게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한 피해자들은 평생 마음의 상처를 가진 채 살아야 하는 이 현실이 안타까웠다.

법정모니터링 봉사를 하면서는 우리 국민들이 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에 조금 더 친숙해지려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니 매우 안타까웠다. 국민들이 법과 친숙해질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순진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 사회가 개탄스럽기도 하였다.

약 3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며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경험을 많이 해 보았고, 이 덕분에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다. 다음 방학에도 기회가 된다면 법률소비자연맹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최 ○ 윤

지난 학기들에 이어, 겨울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매년 깊은 학습과 성장의 기회가 되었는데, 특히 이번 겨울학기에는 중국어·영어 번역 활동과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며 지식의 확장을 경험하고 사회적 책임감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선거법과 미국의 사법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는 법적 문서에 담긴 언어의 미묘함과 정밀함을 파악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민으로서 법과 정의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과정에 대해 실질적인 관찰과 분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다양한 문화와 법제 사이의 연결 고리를 탐색해보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의미를 가졌던 것은 중국 공직선거법과 미국 사법 및 절차법의 번역 작업이었습니다. 이 두 번역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문화와 법제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법적 문서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중국 공직선거법을 번역하

는 과정에서는, 중국의 선거 제도와 공직 선출 과정에 대한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경험은 언어적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의 법적 체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법 및 절차법의 번역 작업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법률 시스템과 절차에 초점을 맞춰, 중간 부분의 문서 번역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문서 번역의 정밀함과 정확성의 중요성을 깊이 실감할 수 있었으며, 법의 운용과 해석에 있어 문화적 맥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번역 활동을 통해, 저는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번역은 단순히 단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행위를 넘어서,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다른 문화와 법률 시스템 간의 다리를 놓는 작업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각 법률 문서에 담긴 특정한 문화적 가치와 정치적 맥락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배움을 통해 제가 글로벌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국제적인 시각과 문화 간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와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글로벌 커뮤니티 내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적 이해와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글로벌 시민으로서,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의정 모니터링 활동도 많은 것을 배워가는 기회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과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그들의 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프로세스의 복잡성과 의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과제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이 어떻게 지역사회와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어떻게 지역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의정 활동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키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정치적 의사소통과 대중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의정 활동이 지역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목격하면서,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갖게 되었으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다양한 문화와 법 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었습

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화적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활동이 제가 더욱 의미 있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 필수적인 밑거름이 된 만큼, 추후에도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최 ○ 선

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정말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실제 법률 분야에서의 경험을 보고 배우고 법의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알게되어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사법 및 절차법을 번역하는 활동은 법률 문서의 언어와 용어를 실제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법률은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으로 이뤄져 있어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영어에 두려움이 있고 따라서 번역을 하는 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들어 가장 힘들었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접해본 적 없는 미국의 사법 및 절차법에 대해 적게라도 알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이 활동을 통해 법률 문서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민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리서치하는 활동은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법률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법률의 적용과 해석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부 수업을 통해 배운 '친족상속법', '가족법' 등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데 큰 흥미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길고 복잡한 판결문을 스스로 분석해보는 활동을 통해 판결문의 구조를 이해하고 법률의 적용 범위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활동은 정치와 법률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법률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실제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공약들을 점검하면서 다양한 기사를 접함으로써 사회 현상과 제도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평소 정치와 입법에는 관심이 없었던지라 국회위원들의 역할에도 관심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 분야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질 수 있었으며, 로스쿨 진학이라는 꿈을 더욱 확고히 하고 이를 원동력으로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데에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며, 법률이 사회와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수학과 하 ○ 은

이번 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으로 제가 했던 활동은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와 판결문리서치, 그리고 법정 모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임기동안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왔는지 평가해 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국회의원 분의 60개 가량 되는 공약 세부내용을 직접 인터넷에 검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지만 그동안은 그저 그렇게 지나가고 흘러들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직접 조사해보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기분이었고 앞으로 더 관심 갖고 비판적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총 3가지 판결문을 읽어보았는데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되는 사건,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사건, 교원보호위원회조직처분취소사건에 대해 판결문을 읽고 어려운 용어 정리하기, 사건을 시간순서대로 보기 좋게 정리하기, 일반인이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판단 등을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해보는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총 6곳의 재판부에 들어가서 방청을 해보았는데 선고 하는 재판부도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선고가 진행되는지도 보았고 변론종결하는 재판부에 들어가서 실제 티비에 보던 것처럼 변호사와 검사가 치열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변론하고 항변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형사와 민사 재판을 각각 3곳씩 다녀왔으며 민사는 생각보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해결하고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학 중에 하는 봉사활동이어서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욕심을 내는 바람에 그리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의미 있었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법에 관심이 많고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더 재미있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조사 봉사를 하면서는 평소 몰랐던 시사상식도 알게 되고 공약에 관한 비판적인 시각이 생긴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은 처음하는 것에 비해 속도도 빨라지고 이해하는 시간도 단축되어서 판결문 읽는 것에 제가점점 적응하고 익숙해져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을 할애한 만큼 값진 경험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을학기 때 해보고 싶었던 법정 모니터링 활동까지 무사히 마쳐서 더욱더 뜻깊고, 인상 깊은 봉사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담당자분들께서는 보고서나 자료를 제출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봉사활동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모르는 점들이 있을 때 메일을 드리면 답을 친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또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그저 흘러갈 수 있었던 방학을 알차게 보낸 것 같아서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하 ○ 영

이번을 끝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이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배우는 게 많았기에 학기를 거듭할수록 이 봉사활동에 많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로스쿨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적의 봉사활동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은 제가 학교에서 수강하고 있는 법학 과목과의 시너지가 컸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는 처음으로 형법수업을 수강했었는데, 판례 위주의 수업 특성 상 형법 이론이 실제로 적용되는 판례를 자주 봐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리서치 방법으로 빠르게 판례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저의 형법 과목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교재에는 판결문의 일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 파악은 다소 힘들었지만 전문을 봄으로써 해당 사건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판례는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도 597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수업시간에, 이론을 공부할 때는 국내에서의 미결구금은 형에 산입하고 외국에서의 형 집행기간 또한 형에 산입하지만,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은 형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에 배우지 않았는데, 이는 판결문 리서치를 수행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국내에서의 형벌권 행사가 외국에서의 형사절차와는 별개의 것인 만큼 우리나라 형법법규에 따른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이루어진 강제처분으로 볼 수 없고,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해당 국가의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구금 기간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을 이유도 모르고 암기하는 것보다는, 판결문 전문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이론이 법제화 된 근거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더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시험형식 또한 판례 위주의 사례형 문제였기에, 판례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며 형법이론을 체화시키는 방식은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간고사는 40점 만점에 39점을 받았으며, 기말고사는 50점 만점에 50점을 받으면서 수강인원 중 1등으로 종강하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판결문 리서치 방법은 앞으로 학제적으로든, 일상생활에서든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겨울학기에는 처음으로 번역봉사도 해봤는데,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해당 국가의 차별화된 법률 체계와 단어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영국 법정 변호사 행위규범의 목차였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법과는 체계나 용어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의정 모니터링이 필수활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물론, 의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공약 분류나 이행을 점검을 하면서 현재 사회에서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

안 발의’보다는 시설/인프라 확충이나 경제적 지원 등에 더 초점이 맞춰진 공약들이 많았기에, 활동하면서 법률 봉사의 취지에는 다소 벗어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된다면 법률봉사에 더 목적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함 ○ 나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제게 많은 의미를 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봉사 기간 동안, 제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조사와 판결문 리서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용선 서울특별시 양천구울과 진성준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 모니터링 활동은 국회의원의 공약과 이행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며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들을 접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국회의원의 공약과 이행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생소하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했으나, 조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요구와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 간의 괴리를 발견하는 등 실제 정책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2023학년도 가을학기에 이어 가장 많이 한 봉사활동이었는데, 이를 통해 법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나 의료법 분야의 법률 지식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총 4번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대법원 2016도 21314 의료법위반, 대법원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0다218925 손해배상, 대법원 2019도191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이루어졌고, 각 판결문에 대한 리서치를 수행할 때마다 법률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흥미와 이해가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미래에 법률 분야를 전공하여 법률 관련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들은 제 대학 생활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공 수업을 듣고, 임상 실습을 나가며 의문이 들었던 법적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더욱 열정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 국민에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법률소비자연맹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홍 ○ 정

2023년도 겨울학기에 언론모니터링 봉사와 국제영역 봉사활동, 공약분석 활동, 판결문 리서치 총 4가지 활동을 하였다. 언론모니터링은 10대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세계, 서울, 국민, 문화)의 일주일치 사설을 분석하는 활동과 특정 이슈를 토대로 분석하는 이슈분석이었는데 그 중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이슈분석을 선택했다. 평소 기업 면접을 준비할 때 참고했던 노란봉투법 이슈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고,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보도 자료가 30개 이상이다 보니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다음 기업 면접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의정모니터링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양식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었다. 의정모니터링으로 공약이행률분석 활동을 했다.

모든 공약이 전부 내 주변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내용이어서 세부적인 공약에 관심을 갖지 못한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반성하게 된 기회였다. 경기도 수원시무(김진표),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김철민)로 공약이행률을 분석하는 활동이다. 이행된 공약 약 80개~100개의 이행률에 대해 분석하는 활동이었다. 공약 분석 활동은 평소 정당과 후보에만 관심을 가졌던 모습을 깨닫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 단순히 '투표'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공약 이행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스스로의 모습에 반성하였다. 그 후 내 지역구의 국회의원 4년 간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4년 뒤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분석 활동에도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국제영역 봉사료 신청한 번역 봉사 활동은 세 가지 봉사활동 중 가장 고난이도였다. 영국 법안을 한글로 번역하는 활동이었으나 법전 번역 활동의 난이도는 다른 두 봉사활동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총 20페이지를 번역하는 활동이었다. 법률이다 보니 한 문단이 2000자 일 정도로 호흡이 상당히 긴 문단과 어려운 용어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지난 학기에 1개 정도 해서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2개 정도 할 수 있었다. 주로 고용 관계에서의 법적 문제에 관심이 많아 첫 번째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다루었다면, 두 번째 판례는 형사 소송이었다. 다음 학기에 형사 소송 판례를 선택해서 좀더 범위를 늘려 향후 로스쿨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모니터링 20시간, 의정모니터링 13시간, 번역봉사 활동 20시간, 판결문 리서치 10시간 총 네가지 활동을 완료하여 오리엔테이션 제외하고 63시간의 봉사활동을 완료했다.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홍 ○ 재

이번 동계학기로 세 번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유는 봄학기, 여름 학기에 진행했던 법정모니터링, 번역 봉사활동, 의정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며 제 적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동계학기에는 직접 국회의 사당에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국정감사 모니터링 위원으로서 위촉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계학기 활동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이번 동계학기의 필수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

습니다. 여름학기에 직접 국회의사당에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 점검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재택봉사가 아닌 현장에 나아가 그들의 공약 실무 이행 여부를 시상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국정감사 모니터링 위원으로서 위촉되는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하는 봉사활동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동계학기에는 직접 국민(대학생) 국정감사 모니터링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내역을 살펴보고, 관련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강득구, 강병원, 강민국 의원의 공약 이행을 내역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이번 국감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국민 참여자로서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업무 이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번역봉사>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번역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실정법들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저의 외국어 능력이 많이 부족함을 체감할 수 있어, 공부 자극제 요소로서 작용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지난 학기 봉사활동에서는 러시아 헌법, 지난학기에는 미국의 루이지애나 헌법에 대한 번역활동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도 미국의 선거법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좋았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현재 스포츠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서남아시아의 헌법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싶단 생각이 듭니다.

<느낀 점>

법률 관련 세 번째 대외활동을 진행해보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활동을, 번역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확신과 다짐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위원으로서 위촉돼, '국정감사'라는 주요 시사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을 하게 돼 만족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황 ○ 신

막연하게 3월 복학 전 대외활동 하나쯤 하자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활동들을 살펴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 법률봉사활동이 눈에 띄었다. 그간 경험해본 봉사활동들은 '온정의 손길'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활동들이었는데 법률봉사활동은 생소하기도 했고 흔치 않은 기회인 것 같아서 '2023학년도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겨울 동안 법정모니터링 4회, 판결문리서치활동 2회,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활동 2건을 하였는데 우선 법정모니터링의 경우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원에 가 본 것이어서 활동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다. 집이 법원 근처여서 마음만 먹었으면 구경 가 볼 수도 있었는데 법원의 문턱이 높게 느껴져서인지 선뜻 가기가 어려웠다. 물론 첫 모니터링도 엄청 긴장하고 갔다. 법원 건물 복도는 생각만큼 조용했지만 법정 내부는 내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평소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법정 장면들을 보면 원고 측 변호사와 피고 측 변호사가 극렬하게 다투는 판사가 이를 중재하는 경우 또는 형사법정의 경우 피고의 변호인이 검사와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 법정은 민사의 경우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도 하고 법관이 몇 가지 사항을 확인만 하고 다음 기일을 잡아 2분 채 지나지 않아 재판이 끝나기도 했다. 4번의 모니터링에서 경험한 법관들이 재판의 당사자들을 배려하여 알기 쉽게 용어를 풀이하거나 증인이 논점에서 벗어난 증언을 할 경우 다시 논점을 집어주어 평소 미디어로 체득한 법관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는 나름 의미 있는 경험을 하였다. 아쉽게도 행정 법정은 자주 열리지 않아 방청을 못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의 경우 최신 대법원 판례를 하나를 선정하여 1,2심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정리하는 작업이고 이번 학기에는 민사 1건과 행정사건 1건을 정리했다. 법학과 학생이 아니다 보니 평소에는 뉴스를 보고 대법원 판결의 결론만 발췌하여 정리하는 작업 정도만 하였기에 원심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는 것은 처음 해봤다. 내용이 너무 길고 어려운 용어들이 섞여 있어서 정리하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간혹 가다가 학교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나오면 반갑기도 하고 괜히 뿌듯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이행률조사의 경우 내용들을 조사할 때마다 생각만큼이나 실망스러웠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약들을 굳이 4-5개로 쪼개는 등 꼼수를 쓰는 게 눈에 보여서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도 있겠지만 내가 조사한 2명은 그랬다. 이 활동을 계기로 곧 있을 총선에 나올 우리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세밀하게 뜯어볼 것이고 정당한 보고 투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듯 3달간 여러 활동을 하면서 기대 이상으로 얻어가는 것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진로를 변경하는 계기가 되어 뜻 깊었다.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황 ○ 정

법률소비자연맹 자원봉사활동은 법을 대하는 태도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 봉사활동 활동 내용으로는 두 명의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확인했고, 판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 등을 정리하는 것과 미국 사법 및 절차법을 번역을 했다. 각각의 봉사활동을 한 후의 느낀 점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다. 먼저, 공약 이행 확인은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이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약 이행 여부는 국회의원의 업적과 정책 수립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회의원이 공약을 이행함으로써

어떻게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임을 느꼈고 앞으로 최소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을 확인함으로써 나는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 보람을 느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판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과 사실관계 등을 정리하는 작업은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큰 보람으로 다가왔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판결문은 법률 용어와 전문적인 언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이를 정리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작업을 했다.

이러한 판결문 리서치 과정을 통해 법률 분야에서의 논리적 사고와 분석 능력을 키움으로써 역량 발전을 할 수 있었다. 특히, 판결문은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사의 판단과 이유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기에, 판결문을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논리적 사고력과 분석 능력을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도움을 줄 수도 있었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었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법과 절차법 중에서 특검 부분을 번역하는 작업은 나에게 법률에 대한 국제적 시야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를 통해 미국의 법률 체계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특검 제도와 그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법률 용어와 표현을 번역하면서 언어적인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법률 분야에서의 국제적 역량을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는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법률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나는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일조할 수 있음을 느꼈다.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이하 법률연맹 홈페이지의 자원봉사 소감문을 참조

**The Due(Tru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the Firmest Pillar
of Good Government**
**공정한 사법은 민주국가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미국 George Washington이 1789.9.28.초대 대통령 취임직후
초대 법무부장관에게 당부한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임.
현재 뉴욕 변호가 Supreme Court에 각인·선언되어 있음